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임순희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연구원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임 순 희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연구원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인 쇄 2006년 12월 27일

발 행 2006년 12월 27일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북한인권연구센터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887)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8 (팩시밀리) 901-2546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가 격 8,000원

© 통일연구원, 2006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 임순희. — 서울 : 통일연구원, 2006	
p. ;	cm. — (연구총서 ; 06-16)
참고문헌수록	
ISBN 978-89-8479-384-2 93340 : ₩8000	
331.23-KDC4	
305.2-DDC21	CIP2006002893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I. 서 론	1
1. 연구목적과 방법	3
2. 분석 자료의 유용성과 한계	5
II. 주요 개념정의와 분석틀	11
1. 북한의 새 세대	13
2. 분석틀	20
III. 식량난 이후 북한 새 세대의 인생관	23
1. 자아인식	25
2. 삶의 목표	36
3. 직업관	42
IV. 식량난 이후 북한 새 세대의 가정관	65
1. 결혼관	67
2. 부모관	87
3. 부부관	93

V. 식량난 이후 북한 새 세대의 여성관	105
VI. 북한 새 세대 가치관의 변화요인	117
1.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	119
2. 부분적 체제개방으로 인한 외부사조·문물의 침투	130
VII. 결론: 전망	137
참고문헌	143
최근 발간자료 안내	149

I

서론

1. 연구목적과 방법

가치관의 문제는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의의가 적지 않다. 가치관은 한 사회의 가치지향 형성에 있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궁극적으로는 그 사회의 발전과 유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이는 곧 사회구성원의 의식 내지 가치관 변화가 사회변화의 동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뜻하며, 이러한 점에서 한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하위집단의 의식 내지 가치관은 중대한 의의와 중요성을 갖게 된다.

북한의 새 세대는 사회구성의 핵심이며 사회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집단이다. 또한 이들은 남한의 새 세대와 함께 미래의 통일한국을 담당할 주역들이다. 따라서 북한사회의 변화 추세 및 전망과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한반도 통일과 남북한 내적 통합을 상정할 때에도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에 대한 분석은 필요성과 의의를 더한다. 남북한 내적통합은 상호 문화적 이질화 극복 및 동질화의 노력이 선행될 때 그 가능성이 보다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1980년대 말 이래 나타나고 있는 북한주민의 가치관 변화는 1990년대를 통해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이 악화됨에 따라 보다 더 확산, 심화되는 추세이며 특히 새 세대들 사이에서 보다 더 뚜렷하게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는 1995년 12월에 발표한 이 연구자의 논문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¹에서도 심층 분석된바 있다. 그러나

¹ 임순희,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상)』(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이 연구결과물은 시기적으로 북한의 식량난이 국제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한 1995년까지의 관련 자료들을 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당국이 국제사회에 식량 원조를 요청한 1995년 중반 이래 보다 더 확산, 심화되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를 파악, 이해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

이 글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북한의 식량난이 국제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한 1995년 이후의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을 분석, 논한 후 분석결과를 연구자의 관련 선행연구결과와 비교하여 식량난 이후 북한 새 세대 가치관의 변화 양상 및 추세를 살펴보고 또한 변화요인을 근거로 하여 앞으로의 북한 새 세대 가치관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가치관 분석의 일반적 기법은 설문조사, 심층대담, 또는 행동관찰 등이며 이 가운데 가장 보편화된 기법은 설문조사를 통한 가치관 측정방법인 서베이(survey) 방법이다. 그러나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분석은 서베이 방법과 같은 직접적·경험적 방법이 불가능하므로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간접 기법들 중에 하나가 내용분석이다. 이는 특히 경험적인 자료입수에 문제가 있거나 연구자의 자료가 문헌에 국한되어 있을 경우에 쓸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다. 이 글의 분석기법도 내용분석이며 1995년 이후 발표된 북한 소설을 중심으로 한 질적연구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분석결과의 입증 내지 보완을 위해 새터민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결과와 국내외 북한이탈주민들의 관련 증언·수기 모음집, 그리고 관련 선행연구결과물 등을 적극 활용한다.

2. 분석 자료의 유용성과 한계

소설은 동시대인의 의식과 생활태도를 비교적 알기 쉽게 나타내는 귀중한 자료의 구실을 할 수가 있다.² 소설은 그 배경을 이루는 시대상과 사회상을 반영하며 그 시대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현실감 있게 묘사한다는 점에서 분석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소설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북한소설은 김일성의 ‘교시’와 김정일의 ‘지적’ 내지 ‘말씀’, 그리고 다양한 정치·이념 및 경제·사회 구호 내지 운동 등을 통해 시대상과 사회상을 반영하며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북한의 시대적·사회적 변화와 주민들의 가치관 및 생활문화에 관한 분석에 있어 유용한 자료이다. 또한 북한소설은 소설의 일반적인 특성에서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에 근거해서도 분석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첫째, 북한소설은 주민들의 현실생활과 그들의 내면세계를 구체적·세부적으로 매우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북한은 소설문학을 일컬어 “묘사를 수단으로 생활을 반영하는 묘사문학이며 소설의 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묘사, 세부묘사”³라고 한다. 사람과 생활을 현실감 있게 묘사해야 문학예술 작품이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생활을 세부화 하여 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⁴ 또한 북한은 소설작

² 김태길, 『소설문학에 나타난 한국인의 가치관』(서울: 일지사, 1977), p. 8.

³ 오승련,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문학론>에서 밝히신 주체의 문학형태 이론에 대하여,” 『조선문학』(1993.9), p. 32.

⁴ 김해월, “수령형상창조와 감정조직문제,” 『조선문학』(1999.2), p. 48.

폼과 생활세부를 하나의 유기체와 그 구성단위인 세포와의 관계에 비유하여 생활세부 형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설에 묘사되는 생활의 세부들은 작품의 사상예술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고리”로서 작품전반의 진실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한다.⁵ 일컬어 ‘묘사문학’이라고 하는 북한의 소설에서 심리묘사와 세부묘사를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사람 중심의 문예관”이라고 하는 ‘주체의 문예관’에 논거를 두고 있다. 북한은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있으며 “사람을 중심에 놓고 문학예술을 대하는 관점과 립장”⁶이라고 하는 주체의 문예관에 근거하여 문학을 “성격을 위주로 한 형상 창조”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로써 소설에서 심리묘사와 세부묘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문학에서 인간을 그린다것은 그의 성격을 그린다것이다. 문학에서 인간을 화폭의 중심에 세운다것은 결국 그의 성격을 위주로 하여 형상을 창조하는것을 말한다. 문학은 사건이 아니라 성격을 위주로 하여 형상을 창조하여야 한다.⁷

둘째, 노동당 문예정책의 산물인 북한소설은 주제 및 소재, 형식 및 내용이 다를지라도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일률적이다.

북한 문예작품 창작의 기본과제인 ‘수령형상창조’, ‘당의 위대성형상’, ‘주체형의 인간전형창조’, 그리고 보통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사회적 미담 등을 다룬 북한의 모든 소설작품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한결같이 국가와 사회, 집단과 인민을 위한 희생과 헌신, 당과 수령의 뜻 관철, 당과 수령의

⁵ “령도자와 작가: 하나의 생활세부도,” 『조선문학』(2005.10), p. 21.

⁶ 김정일, 『주체문학론』(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5.

⁷ 위의 책, p. 190.

은덕과 배려에 대한 감사 등이다. 또한 소설에서는 “수령을 직접 형상하지 않는 작품인 경우라 하더라도 모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현명한 영도, 고매한 덕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뚜렷이 강조”⁸해야 하는바, 작품에 수령을 직접 형상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령이 제기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 수령의 뜻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해 나가는 주인공의 투쟁 모습을 형상함으로써 수령의 위대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북한소설은 분석을 통해 당의 공식 가치지향을 읽어내는 한편 당의 공식 가치지향에 비추어 북한 새 세대 가치관의 실제와 변화 여부를 밝혀 논하는 데 있어 유용한 자료이다.

셋째, 1980년대 이후 북한소설은 실제 일반사람들이 당대 현실 생활에서 느끼고 마주치는 다양한 문제, 즉 오늘날 북한의 보통 사람이 겪는 직접적이고 절실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⁹

이는 곧 소설의 주제 및 소재가 다양해졌음을 말해 주는바, 1980년대 이래 발표된 북한 소설에 있어서는 체제·수령을 홍보하는 작품들 외에도 보통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다룬 작품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신·구세대간 의식격차문제, 새 세대의 직업선택과 직업의식문제, 육체노동에 대한 차별의식문제, 새 세대의 사랑과 결혼문제, 도시·농촌간 생활격차문제, 성차별문제, 이혼문제, 여성문제, 고아를 키우는 처녀들의 미담 등을 다룬 작품들이 그것이다. 또한 2000년대에 들어서는 특히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으로 인한 생계유지의 어려움, 여성들이 직장생활과

⁸ 김정일,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자,” 『김정일 선집 13』(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81.

⁹ 김재용,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4), pp. 263~271.

가정생활을 병행해 나가며 겪는 어려움, 부부간의 불화 등을 주제로 한 작품들도 드물지 않게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북한 소설은 분석 자료로서의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북한 문예창작의 기본원칙들 가운데 하나인 ‘당의 영도’에서 비롯된다. 문예창작에 대한 당의 영도란 작가, 예술인들이 당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며 당의 지도를 성실히 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¹⁰ 김정일이 저술한 『주체문학론』에서는 문학사업에 대한 당의 영도를 노동계급의 혁명적 문학을 건설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며 노동계급의 혁명적 문학창작과 건설에 대한 정책적 지도, 정치적 지도라고 밝히고 있다. 혁명적 문학창작에 있어서 당의 영도를 생명선으로 견지하며 당이 제시하는 문학창작과 건설의 방향 및 방도를 따름으로써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창작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의 영도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작가를 당과 운명을 같이 하는 혁명가로 준비시키고 그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는 문제이다. 『주체문학론』에 따르면 작가는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 당 문예노선의 철저한 옹호자, 적극적인 관철자이며, 이러한 지위와 역할을 지닌 작가들이 본분을 다할 때 당과 운명을 같이 하는 참된 ‘주체형의 혁명적 문예전사’라고 말할 수 있다. 북한의 작가, 예술인들이 주체형의 혁명적 문예전사가 되기 위한 필수과제는 ‘당성’ 단련이다. 당성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며 그것은 당과 수령이 주는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는 데서 나타난다.¹¹ 이와 같은 당의 영도에 따라 창작되는

¹⁰ 김일성,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낡은 사상잔재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1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 554.

북한의 문학작품은 지배가치의 정당성 지지와 대중선동 및 대중 동원의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이와 관련해 김일성은,

작가들은 인민들속에서 우리 당정책을 해설선전하는 열렬한 선전자이며 군중을 교양하는 참다운 교양자입니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문학예술작품을 통하여 당과 정부의 로선과 정책을 인민들에게 옹게 해설선전하여야 합니다.¹²

라고 밝힌바 있다.

당의 영도 아래 창작되는 북한의 소설작품은 당의 정치사상교양 수단의 하나로서 기능하며,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에로 힘 있게 불러일으키는 사상적무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¹³ 또한 문학예술인들은 “당과 인민의 리익의 옹호자, 대변자”로서의 역할과 “인민들을 교양하고 공화국을 사수하는 투사”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요약하건대 이와 같이 북한소설은 ‘당의 영도’라는 원칙에 의거하여 주체사상과 당의 문예정책에 충실한 당위적 결말만을 지어내며 ‘당의 사상적 무기’로서의 역할과 ‘인민대중 교화’라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데에 이 글의 주제인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분석을 위한 자료로서의 한계가 있다.

북한의 문학창작에 대한 당적 통제와 소설의 역할 및 사회적 기능에서 비롯되는 분석 자료로서의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소설작품에서 전달하고 있는 일률적인 당의 메시

¹¹ 김정일,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자,” p. 109.

¹² 김일성, “현실을 반영한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하자,” 『김일성저작집 10』(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456.

¹³ 최길상, “당중앙위원회 구호는 우리 문학의 시대정신,” 『조선문학』(1998.7), p. 18.

지를 거스르는 북한 새 세대의 또 다른 가치관, 삶의 모습 등을 소설의 행간에서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는 북한 문예작품 창작의 기본구도를 이해하고 소설의 행간을 읽음으로써 가능성을 보다 더 높일 수 있다. 북한의 문예작품 창작에서 긍정인물과 부정인물의 대립과 투쟁으로 갈등을 설정하고 이야기를 엮어나가는 것은 극적인 것을 형상하는데서 기본이며,¹⁴ 또한 작품에서 갈등은 부정이 극복되고 동지적 단결이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서 해결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¹⁵ 이와 같은 문예작품 창작의 기본구도에서 긍정인물은 대체적으로 당의 공식가치지향 내지 메시지를 대변하며 당의 공식가치지향 내지 메시지를 거스르는 생각과 행태를 나타내는 부정인물은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한다. 따라서 분석 자료로서의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소설은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분석에 있어 유용성이 적지 않다.

¹⁴ 오승련,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문학론>에서 밝히신 주체의 문학형태 리론에 대하여,” p. 34.

¹⁵ 자본주의사회와는 달리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회적 모순이 적대적인 성격을 띠지 않기 때문에 사회주의사회 근로자들의 생활을 반영한 문학예술작품에서의 갈등은 적대적 성격을 띠지 않으며, 따라서 문학예술작품에서 긍정과 부정의 충돌이 결렬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서는 안 되고 갈등이 해결될 수 없는 것으로 되어도 안 된다는 것이다. 김일성, “조선2.8예술영화촬영소의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26』(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p. 447~448.

II

주요 개념정의와 분석틀

1. 북한의 새 세대

북한문헌을 통해 보면 북한에서는 “청소년, 청년 학생” 등을 모두 새 세대라고 부른다. 북한의 사전적 정의에 있어 청소년이란, “청년과 소년”을 칭한다.¹⁶ 이와 같은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북한의 새 세대는 청년기와 소년기에 있는 모든 연령층을 포함하며 구체적으로는 ‘조선소년단원’(9~13세)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원’(14~30세) 모두가 새 세대에 속한다. 그러나 새터민들에 따르면 통상 북한의 새 세대는 10대 후반에서 20대의 젊은이들로서 이제 사회의 문턱에 들어서서 세대들을 지칭한다. 주지하듯이 1990년대에 들어 한국사회에 등장한 ‘신세대’는 보통명사가 아닌 고유명사화된 단어이다. 이를 테면 신세대는 물질적인 부족함을 모르고 자라난 세대, 기존의 질서와 전통적 가치관을 거부하며 자유와 홀로서기를 원하는 강렬한 개성을 지닌 새로운 도덕관과 가치관의 소유자 등을 의미한다. 북한의 새 세대는 한국의 신세대와 같이 주로 문화적 견지에서 고유명사화된 단어는 아니다. 북한의 새 세대는 문화보다는 정치·사상적으로 개념이 규정되어 있다. 북한의 새 세대에 대한 공식정의를 이른바 ‘혁명의 4세대’이다.¹⁷ 또한 북한에서 새 세대는 “주체사상의 가장 열렬한 신봉자, 옹호자”, “당의 믿음직한 전투부대, 혁명의 계승자, 당의 근위대, 결사대”, “혁명의 교대자” 등으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의 선군사상, 선군정치로 시작된 이른바 선군시대의 새 세대들

¹⁶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말사전』(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 p. 1146.

¹⁷ “머리글: 혁명의 1세대, 2세대들처럼 살며 투쟁하는 새세대의 형상을 훌륭히 창조하는것은 작가들의 영예로운 임무,” 『조선문학』(1993.7), pp. 4~5.

은 다른 무엇보다도 “시대의 선구자가 되어 강성대국건설의 앞장에 서야 할 세대”로서 이들의 “가장 영예로운 사명”이자 “임무”는 “김정일동지의 선군사상과 노선을 관철하는 투사가 되고 기수가 되는것”이다.¹⁸ 새 세대들은 김정일의 선군사상과 노선을 철저히 구현해 나가는 “제일옹호자, 제일관철자”가 되어야 하며, “강성대국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영예를 높이 떨치는 것”은 이들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과업이다. 이에 대해 선군시대의 새 세대들 역시 자신들을 일컬어 “선군혁명의 첫 개척자”들이라고 자긍심 높게 말한다.

위대한 수령님을 옹위하여 만주광야를 주름잡으며 탄우속을 헤쳐온 우리 혁명의 첫 세대들! 력사가 알고 인민이 아는 그들이 우리 혁명의 첫 개척자들이었다면 선군시대에 총잡고 나선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선군혁명의 첫 개척자들이다. 제국주의자들의 도전은 더욱 악랄해지고 선군혁명의 길앞에는 아직도 시련과 난관이 겹쌓여있다. 생각을 해도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일을 해도 인민군대의 투쟁기풍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시여 이 난국을 헤쳐나가시려는 우리 장군님이끄시는 선군시대에 혁명의 총대를 잡고 나선 우리는 선군시대의 새 세대들!¹⁹

또한 선군시대의 새 세대들은 “장군님의 안녕과 권위를 지켜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싸우는 선군시대의 총폭탄영웅들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하며, 이들은 인민군대에 복무하는 것을 “가장 영예로운 의무”로 여겨야 한다.²⁰ 특히 북한은 새 세대들에 대해 “수

¹⁸ “사설: 선군의 기치높이 조선청년의 혁명적기상을 힘있게 떨치자,” 『로동신문』, 2006년 8월 28일.

¹⁹ 김현일, “선군시대의 새 세대,” 『청년문학』(2004.2), pp. 31~32.

²⁰ “사설: 선군의 기치높이 조선청년의 혁명적기상을 힘있게 떨치자.”

령결사옹위정신으로 살며 투쟁할 것”을 역설한다. 북한의 새 세
대도 이를 다음과 같이 자각하고 있다.

…아버지장군님을 결사옹위할 충성의 한마음으로 불타고 있
는 우리모두의 의지이고 신념인것이다. 그러니 우리모두는
아버지장군님의 백두산총대에 재워진 한발한발의 총탄이 아
니겠는가.²¹

북한이 표방하는 청소년정책의 목표는 모든 청소년들을 ‘주체
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러나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란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여기는 참된 인간”²²을 뜻한다고 할
때 북한 청소년정책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청소년들의 수령에 대
한 충실성 강화에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청소년정책의 목표
와 궁극적인 지향점은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로서 구체화되
어 있다.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는 “사람들을 혁명화, 노동
계급화, 공산주의화하는것”이며, “사회주의교육에서 특별히 중
요한것은 혁명의 교대자들인 새세대들을 열렬한 혁명가, 공산주의
자로 키워내는것”²³이다. 또한 이러한 기본원리를 구현하기 위해
북한은 새 세대들을 유치원과 학교시절부터 혁명적으로, 공산주
의적으로 교육교양하며 각급 당 조직들은 청소년들에 대한 사상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청소년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
실하고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 혁명가로 키워야 할 것을 역설한

²¹ 리송희, “청춘이 설 자리,” 『청년문학』(2004.6), p. 43.

²² 김정일, 『주체문학론』, p. 113.

²³ 김일성,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함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3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p. 367.

다.²⁴

이와 같은 북한 청소년정책의 목표와 궁극적인 지향점은 잡지 『새세대』의 발간 의의 및 목적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새세대』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잡지로서 주체44(1955)년 2월 25일 창간되어 월간으로 발행되고 있는 대중교양종합잡지이다. 『새세대』는 “고등중학교(현 중학교) 청년동맹원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들을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이 서고 지덕체를 갖춘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로 교양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²⁵을 기본사명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잡지의 주요 내용은 김일성의 ‘유훈’과 김정일의 ‘말씀’, 그 구현인 당의 노선과 정책 해설, 김일성·김정일의 혁명역사와 업적, 공산주의적 덕성 자료 수록 등에 가장 비중을 두고 있으며, 청년학생들이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지니고 충성동, 효자동으로 자라나고 있는 소식들과 학습, 조직생활을 잘 하고 있는 모범적 단위들의 성과와 경험, 개별 학생들의 긍정자료 소개 선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한편 1980년대 말 이래 북한 새 세대들 사이에 사상적 동요 내지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1990년대를 통해 점차 확산, 심화되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9년 평양에서 개최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이후 북한의 신문, 방송, 잡지 등 주요 언론매체들이 새 세대들의 사상적 이완 현상, 무사안일 풍조, 개인주의적 생활태도 등 혁명의식 약화와 노동기피 풍조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새 세대들에 대한 “반동적인 사상문화와 퇴폐적인 생활양

²⁴ 임순희,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서울: 통일연구원, 2005), p. 15.

²⁵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p. 562.

식 유포”와 “제국주의자들이 퍼뜨리는 《자유화》바람과 날라리 풍의 유혹”을 강하게 경계한 것은 이와 같은 추세를 시사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북한은 구소련 해체 및 동구 사회주의권 붕괴와 때를 같이 하여 1990년대 초반에 이른바 ‘모기장 전략’을 내세움으로써 새 세대를 비롯한 북한주민들 사이에 자본주의 풍조가 침투하는 것을 철저히 막아 사회주의를 고수하고자 한 의지를 강하게 엿보였다.

주지하듯이 1990년대 북한의 경제상황은 극심한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특히 연이은 자연재해로 인해 식량난이 크게 악화됨으로써 적게는 수십만에서 많게는 수백만 명으로 추정되는 아사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식량난은 북한사회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었으며 북한주민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던 가치관의 변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980년대 말 이래 식량난과 부분적 체제개방에 따라 북한주민들 사이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사상적 해이 내지 혁명의식 약화 현상과 관련해 북한당국이 가장 우려한 대상은 새 세대 집단이다. 199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사회주의를 말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은 사상문화적 침투로부터 시작되며 그것은 청년들에게 제일 먼저 미치게 된다”²⁶라고 하여 서구사조와 문물의 침투로 인한 새 세대의 동요와 혼란을 경고하였으며, “청년들은 제국주의자들이 퍼뜨리는 《자유화》바람과 날라리풍에 유혹되지 말아야 하며 그것을 철저히 배격”²⁷할 것을 강조한바 있다.

²⁶ 김정일, “청년들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청년전위가 되자,” 『천리마』(1991.11), p. 22.

²⁷ 김일성, “청년들은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혁명 위업을 빛나게 완성하자,” 『청년문학』(1993.4), p. 7.

이는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 해소와 외교적 고립을 타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취해진 부분적 체제개방이 새 세대들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북한당국이 크게 고심하고 있음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1995년 중반에 북한당국은 국제사회에 식량원조를 요청하였으며, 이로써 제한적이거나 체제개방이 보다 더 확대되었다. 또한 2000년 6월 남북한 정상간에 ‘6·15남북공동선언’이 합의, 발표됨으로써 남북한간 인적교류가 크게 증대되었다. 이 외에도 북한은 국제회의와 국제영화제 등을 평양에 유치하는 등 외부사조 및 문물이 유입될 수 있는 통로와 기회를 보다 더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이와 같은 부분적 체제개방의 확대에 따른 북한주민의 혁명성·이념성 약화를 우려하여 종래와 마찬가지로 사상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1990년대 말에 나온 ‘모기장’론²⁸에서도 잘 엿볼 수 있다. 북한은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에 근본바탕”을 두고 있는 “제국주의의 사상문화, 제국주의자들이 퍼뜨리는 자본주의 황색바람”의 침투를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격파”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민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²⁹ 또한 북한은 “제국주의사상문화가 제일먼저

²⁸ ‘모기장’론은 1999년 6월 1일자 『로동신문』의 “《로동신문》, 《근로자》 공동론설: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배격하자”에서 구체화되었다. 이 논설의 요지는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는 세계제패전략의 중요한 수단”이므로 자본주의 황색바람을 결코 허용해서는 안되며, 따라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모기장을 튼튼히 치고, “사회주의사상문화전선을 금성철벽으로 다져나가자”는 것이다. 요컨대 ‘모기장’론은 부분적 체제개방에 따라 자본주의 황색바람이 들어올지라도 사상교양사업을 철저히 함으로써 부르주아사상문화(제국주의사상문화)의 사소한 요소(모기)도 침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로동신문》, 《근로자》 공동론설: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를 배격하자,” 『로동신문』, 1999년 6월 1일.

²⁹ 위의 글.

침투하고 제일 쉽게 발붙일수 있는 분야가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령역”³⁰임을 경고하고 1990년대 초와 마찬가지로 부분적 체제 개방의 확대가 특히 새 세대들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크게 우려하며 새 세대들에 대한 사상교양에 주력하고 있다.

지금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나라 사회주의를 말살하기 위하여 사람들속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허물고 우리의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습니다. 적들은 우리 내부에 <자유화바람>을 불어 넣어 썩어 빠진 부르조아사상과 풍조를 퍼뜨리고 여러 가지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조장시키며 특히 새 세대 청년들을 사상정신적으로 병들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부르조아생활풍조와 비사회주의적 현상은 사람들의 계급의식을 마비시키며 사회주의제도를 쪼먹고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파괴하는 위험한 독소입니다.³¹

당조직들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영화를 통한 교양, 군중 예술활동을 통한 교양, 연혁을 통한 교양을 비롯한 사상사업의 형식과 방법들을 적극 활용하여 사회주의가 인민들의 신념으로, 생활로 되도록 하여야 한다. 새 세대 청년들이 우리 신념을 가지고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³²

³⁰ 위의 글.

³¹ 김정일, “청년동맹초급조직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 『김정일선집 1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 474.

³² “사회주의신념이 강한 인민은 불패이다,” 『로동신문』, 2006년 8월 30일.

2. 분석틀

이 글에서는 연구자가 1995년에 발표한 같은 주제의 연구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연구자의 1995년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분석틀을 원용하기로 한다. 선행연구인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에서 범주화한 분석대상 영역은 남·북한 청소년의 가치관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결과물들과 국내에서 발표된 가치관 관련 선행연구결과물들에서 설정된 대상영역들을 취합, 정리하여 그 가운데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다루어진 대상영역들을 선택한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분석대상 영역을 인생관, 가정관, 사회관계관 등 3개 범주로 크게 구분하고 하위영역을 설정하였다. 인생관에는 자아개념, 인간관, 삶의 목표, 직업관, 행복관 등이 포함되었다. 가정관에는 결혼관, 부모관, 부부관 등이 포함되었으며, 사회관계관에는 남존여비관, 장유유서관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윤리관과 교우관, 이성관 등을 하위영역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분석대상 영역을 인생관, 가정관, 여성관 등 3개 범주로 크게 나누고 다음과 같은 하위영역들을 다루고자 한다. 인생관에서는 자아인식, 삶의 목표, 직업관 등을 하위영역으로 설정하며 가정관에서는 결혼관, 부모관, 부부관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여성관에서는 하위영역을 설정하지 않고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주로 남존여비관념을 중심으로 하여 북한 새 세대의 여성에 대한 의식 내지 가치관을 논하고자 한다.³³ 선행연구에서 다루었던 인간관, 행복관, 장유유서관, 교우관, 이성관 그리고 선행연구의 분석대상

³³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남존여비관, 남아선호사상 등의 전통적 윤리관을 사회관계관의 하위영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논거가 희박하다는 관련 전문가의 지적에 따라 분석 내용을 감안하여 사회관계관을 여성관으로 개념화하였다.

영역에서도 제외했던 정치관, 경제관, 국가관, 전쟁관, 통일관 등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선행연구결과에서 나타나는바, 인간관, 행복관, 장유유서관, 교우관, 이성관 등은 다른 하위영역들의 분석내용과 상당부분 중복되므로 분석의 의의 및 필요성이 덜하기 때문이다. 정치관, 경제관, 국가관, 전쟁관, 통일관 등은 다른 가치관 영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치성·이념성이 보다 더 강하게 내재되어 있는 영역들이다. 또한 북한 소설에서는 정치, 경제, 국가, 전쟁, 통일 등 정치성·이념성이 내재된 문제를 둘러싼 등장인물들 간의 갈등관계를 설정하지 않으므로 소설의 행간을 읽어 가치관의 실재를 분석해 내기 어렵다. 따라서 정치성·이념성이 내재된 가치관 영역들에 대한 분석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이 글에서 가치관의 개념은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개인 또는 집단의 어떤 선택상황에 있어 작용하는 평가적기준 내지 행동의 기준이며, 이는 개인 또는 집단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정의한다.³⁴

³⁴ 임순희,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p. 84.

III

식량난 이후 북한 새 세대의 인생관

1. 자아인식

인생의 주체는 자기 자신, 즉 자아(自我)이다. 한 의식 있는 자아가 자신의 삶을 행복하고 보람 있게 설계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앞서 행해져야 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아 형성이다. 자아 형성은 일면 자신의 내외적인 조건과 환경에 대한 자각을 뜻한다고도 할 때, 바람직한 자아형성을 위해서는 타인, 또는 외부의 물리적인 요구 내지 간섭이 배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 새 세대의 자아형성 및 인식에 있어서는 외부 요인이 작용하며, 이는 사상교양·교육을 통해서이다. 북한은 사상교양·교육을 통해 북한 새 세대로 하여금 자신의 성격 및 의지, 자신의 능력 및 자신이 하는 일, 자신의 존재 가치 및 의의, 자신의 대인관계 및 사회환경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곧 새 세대들로 하여금 당의 공식 가치지향을 수용, 습득하도록 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북한 소설을 통해 보면 북한 새 세대의 자아인식은 식량난 이전과 마찬가지로 매우 긍정적이다. 1995년 이후 발표된 소설에서도 당의 공식가치지향을 대변하는 긍정인물들은 자신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물론 사회환경에 대해서도 만족하며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당의 은덕과 배려 속에서 어려움 없이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속에서 밝게 웃으며 자라난 새세대”³⁵임을 자긍심 높게 외친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이 “최고사령관동지의 전사”이며 “선군령도”를 받드는 데에 삶

³⁵ 박찬은, “북주머니,” 『조선문학』(2001.10), p. 16.

의 의의와 기쁨이 있다고 말한다.

조국과 인민의 사랑, 마을탄부들의 사랑, 위순길의 사랑까지도 그 태양의 빛발로 이루어지는것이리라. 나는 여전히 최고 사령관동지의 전사이다. 여기서 한삽의 석탄이라도 보태는것이 내나름으로 선군령도를 받드는것이고 거기에 내 삶의 목적이 있고 기쁨이 있다. 내 만일 사랑을 따라 여기를 떠난 생활은 무의미해지고 서글퍼질것이다...³⁶

소설에서 긍정인물로 등장하는 새 세대들은 자신들을 ‘행복동이’라고도 말한다. 그리고 자신들을 행복동으로 키워준 당과 수령의 은덕에 보답하는 것은 인간의 의무이기 전에 양심이고 도리이며 자신들에 대한 시대의 요구라고 인식한다.

참으로 은심은 자기를 오늘까지 사랑의 한품에 안아 공부시켜주고 행복동으로 키워 내세워준 당의 은덕에 어떻게 보답해야 하는가를 심장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사회앞에 지닌 인간의 의무이기전에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우리 새 세대 청년들의 량심이고 도리이기도 하였다. 더우기 그것은 풀뿌리를 씹으며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는 어려운 속에서도 …과학과 기술로 부강한 사회주의농촌을 건설해가고 있는 오늘의 들끓는 시대가 우리 청년들에게 제기하는 요구이기도 하였다. 이 투쟁에서 농촌청년들이 주인이 되어 선봉에 서는 것은 너무도 응당한 본분이였다.³⁷

소설에서 그려진 새 세대의 긍정적인 자아인식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성취감 내지 만족감, 사명감 내지 의무감, 강한 의욕과 자부심 등에서도 엿볼 수 있다. 새 세대를 중심인물로 한 북한 소

³⁶ 류정옥, “금대봉마루,” 『조선문학』(2005.4), p. 59.

³⁷ 장선홍, “강반의 달밤,” 『조선문학』(2003.10), p. 73.

설작품들에서는 긍정인물로 등장하는 새 세대들이 “아버이 수령님의 유훈”과 “장군님의 원대한 뜻”을 실현하기 위해 투철한 사명감, 의무감을 가지고 일에 임한다. 또한 이들은 “《고난의 행군》에 이은 강행군”을 겪는 과정에서 맞부딪치는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강한 의욕을 가지고 참을성 있게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며 자기가 하는 일에서 큰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낀다. 이와 같이 긍정적으로 자아를 인식하는 새 세대의 전형은 단편소설 『스물한발의 《포성》』에서도 잘 형상되어 있다. 이 작품에서 착암수로 일하는 새 세대 청년은 일이 힘든 그 자체가 자기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 의의와 가치를 스스로 깨닫도록 해준 주요 근거이자 계기였다고 인식한다.

그러나 나는 착암수가 된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 힘들다는 그것이 나에게 나의 위치, 나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때문이었다.³⁸

또한 단편소설 『백년을 부를 노래』에서 새 세대 여자 “수학교원”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사회조건과 환경에 만족해하며 행복한 직장생활을 한다.

스물세살잡힌 수학교원 송정화는 학급애들을 무척 사랑했다. …그는 행복했다. 마치 이 모든것이 태여날 때부터 이미 자신의 것으로 마련되어있었던것처럼 생각되었다.³⁹

한편 소설에서 새 세대들에게 역할 모델로서 제시되는 모범상

³⁸ 한웅빈, “스물한발의 《포성》,” 『조선문학』(2001.5), p. 25.

³⁹ 지경일, “백년을 부를 노래,” 『조선문학』(1999.12), p. 53.

은 ‘인민군대’이다. 소설을 통해 보면 북한은 새 세대들에게 ‘혁명적 군인정신’으로의 삶과 병사의 자세로 조국을 수호할 것을 역설하며 “병사와 같은 심장”⁴⁰을 지니고 살라고 한다. 새 세대들에게 군대를 역할 모델로 제시하고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살 것을 강조하는 내용은 특히 중학생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을 소재로 한 작품들에서 잘 나타난다. 한 예로 중편소설 『7분단』에서는 자기 분단의 성적을 높이기 위해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분단원 하나를 다른 분단으로 보내자는 분단위원장 학생의 제의에 대해 담임선생님이 인민군대를 따라배워야 할 모범상으로 내세우며 분단위원장 학생을 설득한다.

《철남학생, 독고를 우리는 절대로 다른 분단에 보내서는 안 돼요. 그애도 학생들과 똑같이 최우등생이 되어야 해요. 그의 학습방조는 내가 맡겠어요. 인민군대아저씨들이라면 꼭 그렇게 했을거예요.》⁴¹

역시 같은 소설에서 스케이트를 잘 타지 못하는 한 학생이 자기로 인해 체육경기에서 자기 분단이 우승하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함을 분단위원장에게 밝히며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스케이트를 잘 배우겠노라고 다짐한다.

《정말 날 용서해 줘. 내 오늘부터 열흘사이에 스케이트를 완전히 떼겠어. 인민군대아저씨들처럼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말이야. 믿어줘, 응!...》⁴²

⁴⁰ 리영환, “버드나무,” 『조선문학』(2001.2), p. 45.

⁴¹ 변제전, 『7분단』(평양: 금성청년출판사, 2004), p. 19.

⁴² 위의 글, pp. 35~36.

소설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인민군대를 역할 모델로 하고 있으며 교사들은 선군사상으로 무장하고 혁명적 군인 정신으로 학생들을 대하며 수업에 임할 것을 다짐한다. 이와 같은 다짐과 각오를 단편소설 『끓어지는 교단』에서는 “혁명적 군인 정신으로 살며 일하려는” 한 여 교원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으며, 이러한 다짐과 각오 아래 일하는 여 교원은 “당의 선군사상으로 무장한 미더운 교육자”로 칭송된다.

«전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병사들이 조국을 지켜 날마다 땀을 흘리듯이 교원들은 한시간, 한시간의 수업을 땀과 바꾸어야 한다고 말합니다.»⁴³

우리 당의 선군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미더운 교육자들, 오유정리와 같이 구슬땀을 바쳐 조국의 미래를 가꾸어가는 티없이 맑은 새세대 교육자들로 하여 우리의 교단은 더욱 깨끗하고 신성해지고있었다.⁴⁴

위와 같이 새 세대들의 자아형성 및 인식과 관련하여 인민군대를 역할 모델로 내세우고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살 것을 강조하는 내용은 1995년까지의 북한 소설들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인민군대 따라배우기’라든가 혁명적 군인정신이 강조된 것은 이른바 선군사상, 선군정치 등의 용어가 등장한 이후부터이다. 혁명적 군인정신은 김일성 사후 수령의 후계자, 후계수령으로서의 김정일의 위상 확립, 강화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치방식으로 제시된 ‘선군정치’에서 비롯된 것이다. 북한은 김정일을 김일

⁴³ 김정희, “끓어지는 교단,” 『조선문학』(2005.6), p. 73.

⁴⁴ 위의 글, p. 76.

성과 동일시함으로써 생전에 김일성이 지녔던 수령의 권위와 카리스마를 김정일에게 부여하는 한편 김정일의 새로운 정치방식을 다양하게 개념화함으로써 김일성과의 차별화를 꾀하며 ‘영도의 예술가’로서의 김정일의 위대성을 부각시키었는바, 이 과정에서 음악정치, 과학중시정치 등과 함께 새로이 개념화된 정치방식이 선군정치이다.⁴⁵ 그리고 선군정치의 구현에 있어 강조점은 전체 인민이 군대의 혁명적 군인정신, 투쟁기풍, 생활기풍을 적극 따라 배우도록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혁명적 군인정신이란 “선군혁명시대의 사회주의조선의 시대정신으로서 김정일의 선군정치에 의해 창조된 사회주의 수호정신,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이며 수령결사옹위정신이 집중적으로 체현되어 있는 정신”⁴⁶을 말하며 혁명적 군인정신에 있어 핵심은 ‘수령결사옹위정신’이다. 따라서 인민군대 따라배우기라든가 혁명적 군인정신 발양 등이 의도하는 바는 궁극적으로 수령에 대한 충실성 강화에 있으며, 소설에서도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살아가는 새 세대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김일성의 유훈과 김정일의 뜻을 관철하는 데에 투철한 사명감과 의무감을 지닌다. 또한 소설에서는 북한의 노 세대들도 새 세대들에게 오직 당과 수령의 뜻에 따라 살 것을 역설한다. 다음의 예는 중편소설 『푸른과원』에서 과수원 관수문제를 놓고 분

⁴⁵ 1998년 9월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으로 추대된 직후 김정일 특유의 정치방식으로 공식화된 선군정치방식은 “군사 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령도방식이며, 혁명과 건설의 어떤 어려운 과제도 해결할 수 있는 만능의 정치, 일석다조의 현명한 정치”라고 한다. 『조선중앙방송』, 1998년 10월 20일; 이주철, 『김정일의 생각읽기』(서울: 지식공작소, 2000), pp. 124~126 참조.

⁴⁶ 리현순, “문학예술에서의 선군혁명로선의 구현,” 『조선예술』(2001.4), p. 17.

장장 박두섭이 연구사 신명진에게 하는 말이다.

《…우리가 북청회의결정을 받들고 장관목이 무성했던 이 고장에 과원을 일떠세울 때도 어려운 고비가 한두번이 아니었지.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의 뜻대로 하니 되더라 말이지. 시험포전에서 재배시험을 하는것도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뜻이 아닌가?》 신명진은 가슴에 불덩이를 안은듯 했다. 《물론 연구사에게 지칠줄 모르는 정열도 자질도 있어야 하겠지, 그보다 중요한건 늘 당의 뜻대로 살며 숨 쉬는거요. 뭐니뭐니해도 연구사에게는 그게 주춧돌이지!》⁴⁷

그러나 선행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1995년 이후 발표된 북한 소설에서도 북한의 새 세대들은 개성을 지닌 독립적인 인격체로서의 자아를 인식하기보다는 집단 속에서 획일화된 자아를 인식한다. 이들은 ‘내가 속한 집단’이 아니라 ‘집단에 속한 나’를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긍정인물로 그려진 새 세대들은 당의 공식가치지향에 따라 무비판적으로 자아를 형성, 인식하며 당이 바라는 ‘주체형의 인간 전형’⁴⁸들로 살아갈 뿐이다.

북한에서 집단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이며, 이는 새 세대들에게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북한 주민생활의 기본원리인 집단주의에 따라 새 세대들은 어려서부터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집단적·사회적으로 양육되며 소학교에 입학한

⁴⁷ 업성영, 『푸른과원』(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01), p. 134.

⁴⁸ ‘주체형의 인간,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란 자주적인 인간의 사상 의식과 정신도덕적 풍모를 가장 원만히 체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여기는 참된 인간이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를 말한다. 김정일, 『주체문학론』, p. 113.

이후로는 일상적인 조직생활을 해야 한다. ‘조선소년단’ 생활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생활이 그것이다. 또한 북한은 집단주의교양을 통해 새 세대들에게 집단의 힘이 크다는 것을 숙지시키며, “조직과 집단을 떠나서는 살수 없다고 생각하도록” 만든다.⁴⁹ 이는 곧 새 세대들로 하여금 집단 속에 매몰된 획일화·전형화된 자아만을 의식하게 하며 자신의 보다 나은 삶을 지향하는 독립적 인격체로서의 개인보다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존재하는 개인만을 인식하도록 한다는 것을 뜻한다. 오직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개인에게는 의무와 책임만이 요구될 뿐이며, 이러한 자아개념은 어떤 대의나 국가에 대한 광신과 맹목적인 헌신을 낳게 한다고 할 때,⁵⁰ 이에 대해 북한의 새 세대들도 예외가 아니다. 소설에서 당의 공식 가치지향을 구현하는 새 세대들은 자신의 권리에 대한 자각이나 주장은 전혀 없고 오로지 국가와 사회, 집단에 대한 의무 수행만을 중요시하며, 국가와 사회, 집단에 대한 의무도 궁극적으로는 김정일과 김일성을 대상으로 한다. 맹목적 헌신의 대상이 수령 한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설에서 부정인물로 그려진 새 세대들의 자아인식은 당의 공식 가치지향과는 다르다. 이들은 집단 속에 매몰된 획일화된 자아에 대해 회의와 갈등을 겪으며, 당과 수령의 뜻 관철, 집단과 사회에 대한 맹목적 헌신보다는 자아중심적이고 개인지향적인 자아인식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당의 공식가치지향을 거스르는 새 세대의 행태는 1995년 이후 발표된 북한 소설에서도 다

⁴⁹ 김일성, “학교교육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29』(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p. 181.

⁵⁰ 에드워드 스튜어트 저, 김성경 역, 『문화차이와 인간관계』(서울: 보성사, 1991), p. 98.

양하게 그려져 있다. 단편소설 『복주머니』에서는 24살에 고급기능공이 되자마자 시집을 가고 공장을 퇴직해버린 새 세대 여성 최순이 그의 친구가 고급기능공이 된지 8년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공장을 떠날 수가 없어 남편과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데 대해 다음과 같이 비웃듯 말한다.

«호호호, 참 남들은 구실이 없어 공장을 못떼는데… 고급기능공이 뭐 어쨌다는거야. 말로만 고급기능공, 고급기능공하지 누가 착실히 돌봐 주길 하니. 나라사정이 어려워 졌는데 제살마련은 제가 하는게 응당하지 뭐.»⁵¹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친구는 생활난으로 인해 최순의 생각과 행동이 이기적으로 바뀌었음을 의식하고 비판한다.

우리 생활이 일시적으로 어려워 지자 최순은 누가 뭐라던 제 나름대로 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동요가 일어 났던것이다. … 과연 그럴까. 고급기능공으로 온 공장의 사랑을 받으면 그자체가 곧 행복이 아닐까. 하지만 최순의 행복관은 자기만족이 위주구나.⁵²

공식 가치지향에 따르면 북한의 새 세대 여자들에게 있어 영예군인과의 결혼은 “당과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고 기쁨을 드리 기 위한” 의무이며 자각이다. 이는 새 세대 남자들에게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북한 새 세대들은 영예군인과의 결혼을 꺼리며, 부모들 역시 자녀가 여예군인과 결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 소설에서도 부정인물로 등장하는 새

⁵¹ 박찬은, “복주머니,” p. 16.

⁵² 위의 글, p. 16.

세대들은 영예군인과 결혼하려 하지 않으며 친구가 영예군인과 결혼하려는 것도 만류한다. 단편소설 『금대봉마루』에서는 두 다리가 없는 영예군인 여자와 결혼하려 하는 새 세대 남자가 결혼을 말리는 친구의 말을 떠올리며 갈등을 겪는다.

서정님은 녀성으로, 안해로서는 커다란 약점과 제한성을 가진 여자다. 처녀가 아무리 강의한 의지력과 정신력,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를 안해로 맞아들인다는것은 앞으로 걷게 될 인생길에서 커다란 희생성과 헌신성을 각오해야 한다. …《동무가 그와의 사랑을 마음속에서 털어버리고 다른 처녀와 결혼한다고 해서 비난할 사람은 없어. 동무로서야 할수 있는것을 다하지 않았다.》 좋은 자리에 소개를 하겠다고 나서는 친구들이 하는 말이였다. 그 말도 옳다.⁵³

그의 부모 역시 평양에 사는 아들이 영예군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며 근심한다.

아들을 먼 외지로, 그것도 영예군인처녀에게 일생을 맡기며 탄광으로 보낸다는것이 보통일인가.⁵⁴

장편소설 『우리의 집』⁵⁵에서는 새 세대 청년 인혁이 중요한 국가지적 사업에 있어서 자신을 필요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약속한 혜성이 직업을 바꿀 것을 적극 권함에 따라 의식적으로 맡은 일에 소홀한 태도를 보인다. 단편소설 『당부』에서는 한 새 세대가 할아버지와 같은 노 세대의 “구시대적” 사고에 반발하

⁵³ 류정옥, “금대봉마루,” p. 51.

⁵⁴ 위의 글, p. 60.

⁵⁵ 최영학, 『우리의 집』(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5).

며, 이를 통해 최근 북한 새 세대의 사상적 이완과 신·구세대간 사상적 의식격차를 내보인다.

대대로 머슴을 산 할아버지였다. 할아버지는 머슴살이가 그 무슨 《투쟁경력》으로 되거나 하는듯이 찍하면 《배를 좀 굶아봐야 할 녀석》, 《엄동설한에 흠참뎡이를 입어봐야 정신이 들 녀석》하고 《채찍》처럼 쳐들군하였다. 허지만 나는 그것을 별로 대수로워하지 않았다. 벌써 반세기가 지나간 옛일인데다가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 머슴살이라는것을 크게 생각지 않았었다. 할아버지는 물론, 증조할아버지도 머슴살이를 했다는데 지주놈을 활 때려놓히던가, 뛰쳐나와 멀리로 도망치던가 할 노릇이지 무엇 때문에 머슴살이를 한단 말인가. 나라면 절대로 참지 않았을것이다.⁵⁶

또한 중편소설 『열매는 봄날에』에서 노 세대들은 미국과의 포성 없는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 새 세대들이 태만함과 사상적 해이를 보이는 데 대해 다음과 같이 크게 걱정한다.

《하긴 우리 둘째녀석두 일하는걸 보문 너무 걱정이 없는게 탈이웬다. 나라가 시련을 겪는데두 모지름이 없거든요. …아침에두 깨워 주지 않으니 해가 중났되도록 내쳐 잘판이지요.》 …《그전에 우리가 …미국놈들과 싸워 이기구 내 나라를 보란듯이 일떠세우자구 기세가 등등했지요. 지금두 그놈들이 우릴 봉쇄해서 어찌 보자구 하는데 젊은녀석들은 제 땅 없는 머슴살이신세가 얼마나 참혹한것인지 모르다나니 사생결단의 각오가 부족하단 말이웬다.》⁵⁷

이와 같이 소설에서 부정인물로 형성된 새 세대들은 당의 공식 가치지향을 거스르고 있으며, 여기에서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⁵⁶ 류정옥, “당부,” 『조선문학』(1995.11), p. 52.

⁵⁷ 박용전, 『열매는 봄날에』(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3), p. 134.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사실상 선행연구에서 밝혔듯이 1980년대 말 이래 새 세대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아인식의 변화는 1990년대를 통한 식량난을 겪는 과정에서 보다 더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른바 ‘자유주의’를 하는 새 세대들이 학교생활과 조직생활에서 사상일탈 행위를 많이 하며 청소년 폭력, 절도 등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고 한다. 최근 들어서는 새 세대들 사이에 마약 사용이 점증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관련 조사단체에 따르면 북한당국의 여러 차례에 걸친 강력한 경고 및 단속, 처벌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역(함경북도)에서 마약을 사용하는 20~30대 남성이 점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국경연선 지역에서는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난 10대 청소년들의 ‘얼음’ (마약의 일종, 빙두(氷豆)) 사용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⁵⁸ 또한 이와 관련해 북한당국은 특히 중학교 10대 청소년들의 마약 사용 문제에 심각성을 느끼고 청소년 대상 마약 판매자를 단속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 학교에서 쉬는 시간을 이용해 마약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의 뒤를 밟아 마약 판매 거래 조직을 검거하고 있다는 것이다.⁵⁹

2. 삶의 목표

북한에서 사람의 가치는 그 자신이 사회적 존재로서의 본질적 속성인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어떻게 발휘하는가에 따라서

⁵⁸ (사)좋은벗들 북한연구소, 『뉴스레터: 오늘의 북한소식』 24호 (2006. 6. 7).

⁵⁹ (사)좋은벗들 북한연구소, 『뉴스레터: 오늘의 북한소식』 23호 (2006. 6. 1).

평가된다.⁶⁰ 사람의 가치는 그가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혁명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이바지하며 당과 수령에게 얼마나 충실히 복무하는가에 의하여 평가되며, 이러한 기준에서 평가할 때 가장 값 높고 빛나는 가치를 갖게 되는 사람은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몸 바쳐 투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바로 주체형의 인간,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이다.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는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과 대중적 영웅주의, 필승의 신념과 강의한 의지, 혁명적 량만과 락관주의 등의 품성을 지닌 사람”⁶¹을 일컫는다.

북한의 공식가치지향에 따르면 새 세대들에게 있어 삶의 목표 내지 지향은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성격의 핵으로 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서 당과 수령의 뜻을 관철하며 국가와 사회, 집단과 인민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삶의 목표 내지 지향은 기본적으로 청소년 성장과정에서 사회주의 교육의 기본과업을 통해 구현된다. “본질에 있어서 인간개조사업”⁶²인 북한 사회주의교육의 기본과업은 사람들의 사상적 개조를 통해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성격의 핵으로 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한편 식량난이 악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 문학예술계에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핵으로 하는 사상정신적 풍모를 90년대 인간

⁶⁰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편, 『철학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299.

⁶¹ 류만, “90년대 인간성격창조문제에 대한 소감,” 『조선문학』(1991.1), p. 39.

⁶² 김정일,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전국교육일군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김정일선집 8』(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102.

의 성격적 특질로 규정”⁶³한 바 있다. 90년대 성격이란 “격변하는 력사의 흐름속에서도 변함없이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따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의 체현자”를 말한다.⁶⁴ 1980년대 말 이래 진행된 대내외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북한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 북한은 주민들에 대한 사상통제와 체제결속을 위한 방편으로 주체문학의 기본과제 가운데 하나인 주체형의 인간전형 창조에 있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핵으로 하는 사상정신적 품모”를 새삼 강조하기에 이른 것이다.

북한 새 세대들에게 있어 이와 같은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서의 헌신적인 삶은 식량난 이후에도 삶의 목표이며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되어 있다. 소설에서 긍정인물로 등장하는 새 세대들은 청춘의 아름다움, 행복, 희망, 그리고 직업선택에 있어서까지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수령결사옹위와 관련해 의의를 부여하며 국가와 사회, 집단과 인민을 위한 헌신적인 삶을 추구한다. 단편소설 『매혹』에서 한 새 세대 청년은 청춘들의 아름다움과 진정한 행복이란 당과 수령, 남을 위한 헌신에서 찾아진다고 말한다.

우리 시대 청춘들의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이며 진정한

⁶³ 김정웅, “90년대 인간전형을 훌륭히 창조하기 위하여,” 『조선문학』(1991.3), p. 42.

⁶⁴ 김정일은 시대정신의 체현자를 “위대한 주체사상을 철석같은 신념으로 삼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는 새형의 공산주의자”라고 규정한다. 김정일, “사회주의현실을 반영한 혁명적 영화를 더 많이 창작하자,”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자료집 김정일저작선』(서울: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1), p. 50.

행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일신의 안락과 행복은 생각지 않고 오직 당과 수령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자기를 바치는 거기에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고 그 길에 우리의 행복이 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⁶⁵

중학교 2학년 소년단원들의 학교생활을 그린 중편소설 『7분단』에서는 7분단 아이들의 장래 희망이 인민군대에 나가 “아버지장군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라고 자긍심 높게 외친다.

《아저씨, 우린 이제 중학교를 마치면 모두다 인민군대에 나가려고 합니다. 아버지장군님의 군대가 되겠습니다.》⁶⁶

단편소설 『영원한 노을』에서는 수령의 영생을 지키는 것은 곧 사회주의를 고수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단편소설 『나의 모습』에서 한 새 세대 청년은 “장군님께서 하라는 일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무조건 관철”해야 하는 수령결사옹위를 자신의 좌우명으로 한다.⁶⁷ 중편소설 『7분단』에서는 화재가 난 집에 들어가 “대원수님”(김일성)과 “장군님”(김정일)의 초상화를 “안전히 모셔가지고” 아파트 3층에서 뛰어내린 한 중학생이 급우들로부터 “훌륭한 동무”로 대접받는다. 또한 단편소설 『녀성은 다 어머니로 되는가』에서는 청년들에게 “자식들과 그들의 미래를 위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바치는 삶에서 행복”을 찾을 것을 강조한다.⁶⁸

단편소설 『산딸기』에서는 중학생 송희가 김일성의 사망에 큰 충격을 받고는 김정일의 건강을 염려하며 자신의 희망 직업까지

⁶⁵ 로철수, “매혹,” 『조선문학』(1998.1), p. 77.

⁶⁶ 변제진, 『7분단』, p. 14.

⁶⁷ 송출연, “나의 모습,” 『조선문학』(2004.3), p. 64.

⁶⁸ 정해경, “녀성은 다 어머니로 되는가,” 『조선문학』(2001.5), p. 72.

도 바꾸어 버린다. 오래 동안 음악가를 꿈꾸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친위전사 의학박사가 되어 충직한 효녀가 되겠다는 것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것은 아버지장군님의 건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음악가가 되려던 희망도 바꾸었어요. 나는 빨리 커서 아버지장군님의 몸가까이에서 안녕과 만수무강을 지켜 드리는 친위전사 의학박사가 될래요. 그래서 할아버지대원수님께서 조선소년단창립 제5차대회에 보내주신 축하문대로 조직생활도 더 잘하여 할아버지대원수님과 김정숙어머님이 뜻대로 아버지장군님께 충직한 효녀가 되겠어요.⁶⁹

단편소설 『고향』에서는 미술을 잘 하는 “사관장” 충렬이 제대 후 “미술창작기관”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군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간다. 위의 예문들에서와 같이 북한 새 세대의 삶의 목표는 집단중심의 사회지향적이며 궁극적인 지향점은 당과 수령의 뜻을 관철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삶을 한 새터민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자아실현이고, 북한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교육주는 것은 너는 장군님을 위해서 충성과 효성만 다하면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충성심이예요. 장군님이 하라는대로만 하면 돼요. 장군님은 총 명사수고 나는 총알이예요. 총 쏘는대로 나가서 일하면 돼요. 군대 10년을 가도 그건 당연한 거고, 10년을 가도 아무 느낌없이 가는 거고, 가서 직업을 배치해도 거기서 일하는 건 당연한 거다(남 1984년생).⁷⁰

⁶⁹ 리춘복, “산딸기,” 『행복동이들』(평양: 금성청년종합출판사, 2001), p. 278.

⁷⁰ 서울대 통일연구소, 『새터민 사회문화적응과 심리적 통합』(서울대 통일연구소, 2004), p. 238에서 재인용.

그러나 1980년대 말 이래 북한 새 세대의 삶의 목표와 지향은 집단중심에서 자아중심으로 사회지향적인 것에서 개인지향적인 것으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변화는 1995년을 기점으로 한 식량난 이후로 보다 더 빠르게 확산,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설에서 이러한 변화는 부정인물로 등장하는 새 세대들이 당과 수령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탄광, 농촌 등지로 자원해 나가는 것을 기피하거나, 국가와 사회, 집단과 인민을 위한 희생적인 삶보다는 자신의 출세와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모습, 또는 포부와 지향이 일치하는 배우자를 만나기보다는 집안배경이 좋아 사회진출에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경제적으로 부유해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배우자들을 선호하는 새 세대의 모습들에서 엿볼 수 있다. 단편소설 『열쇠』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자기 궤도 이탈’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신념이 부족한 일부 사람들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 자기 궤도를 리탈했는지…»⁷¹

새터민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실제에 있어서도 1980년대 말 이래 북한 새 세대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아중심의 개인지향적인 삶의 목표와 지향은 식량난 이후 보다 더 확산, 심화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식량난의 과정에서 겪은 생계유지의 어려움, 그리고 이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또는 의도한 가족과의 사별 내지 이별을 겪으며 새 세대들은 사상, 이념보다도 돈과 물질을 중시하고 국가와 사회, 집단과 인민을 위한 삶보다는 자신과 가족을 위한 삶에 더 큰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⁷¹ 김혜성, “열쇠,” 『조선문학』(2004.4), p. 75.

3. 직업관

가. 직업의 의의와 선호하는 직업

직업이란 자기 능력에 따라 어떤 목적을 위해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일을 뜻하며⁷² 사람은 이러한 직업 활동을 통하여 생계유지와 국가, 사회에 대한 봉사, 그리고 개성신장을 도모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직업이 인간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직업이 갖는 의미에 따라서 직업관은 생업으로서의 직업적 측면을 강조한 자기본위의 직업관(이기주의적 직업관), 사회적 역할분담으로서의 직업적 측면을 강조한 사회본위의 직업관(전체주의적 직업관), 자아실현으로서의 직업적 측면을 강조한 일 본위의 직업관(자아실현적 직업관) 등 세 가지 유형의 직업관으로 구분되며 사람은 이와 같은 세 직업관의 요소가 적절히 결합된 직업활동을 해나가게 된다.⁷³ 그러나 북한에서 직업의 의미는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북한에서 직업은 “개별적인 사람들이 사회적로동의 일정한 분야를 맡아서 전문적으로 하는 일, 또는 그러한 일의 종류”⁷⁴를 말한다. 이와 같은 정의는 사회적 역할분담에서 직업의 의의를 찾는다는 것을 뜻하며, 따라서 북한에서는 사회본위의 직업관, 즉 전체주의적 직업관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장편소설 『우리의 집』에서 새 세대 여자 혜성의 아버지는 이와 같은 직업의 의의를 “사회적 의무”에서 찾는다.

⁷² 민중서림 편집국 편, 『옛센스 국어사전』(서울: 민중서림, 1988), p. 1781.

⁷³ 정태윤, 『인간과 직업윤리』(서울: 문경출판사, 1990), pp. 341~345 참조.

⁷⁴ 사회과학출판사 편, 『조선말 대사전 2』(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382.

《…원래 일이라는건 재미루 하는게 아니구 사회적의무이니
까. 글썸 저쪽(외국)에서들은 먹고살기 위해 일을 하지만.》⁷⁵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70조는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보장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의 직업선택은 개인들의 의사보다는 당과 정권기관의 인력수급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주민들의 직장배치는 중앙경제계획에 의해 집행되고 각 부문별 수요대로 할당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의 희망이나 소질, 능력등은 부차적인 조건들이다.⁷⁶ 북한주민들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없으며 어떤 부문에 취업하든 당의 직접적인 통제와 지시를 받는다. 또한 직장배치는 주로 각 개인의 성분과 당성에 의해 좌우되며 취업대상자들 가운데 극소수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른바 ‘무리배치’를 통해 집단으로 처리된다. 그러나 소설에서는 새 세대들이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며 선호하는 직업도 다양하다. 그러나 당의 공식가치지향을 구현하는 긍정인물로 등장하는 새 세대들은 선호하는 직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과 수령의 뜻을 받들어 탄광, 농촌 등으로 자원해 나가며 이른바 ‘혁신자’로서 일한다. 단편소설, 『기러기떼 날은다』에서는 “전 과목 최우등”으로 대학을 졸업하는 새 세대 여성이 “대학교원”으로 남으라는 학교측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장군님의 원대한 뜻을 실현”하기 위해 농촌 고향으로 내려간다.⁷⁷ 단편소설, 『벼이삭』⁷⁸에서는 생의 마지막 순

⁷⁵ 최영학, 『우리의 집』, p. 229.

⁷⁶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06』(서울: 통일연구원, 2006), p. 180 참조.

⁷⁷ 리성식, “기러기떼 날은다,” 『조선문학』(2003.8), pp. 18~19.

⁷⁸ 리태윤, “벼이삭,” 『조선문학』(1995.11), p. 43.

간까지 농사일 때문에 포전을 뜨지 못한 김일성(수령)의 유혼을 관철해 내기 위해 군당책임비서의 딸이 농업대학을 지망하여 농사일을 배운다. 단편소설 『공장총각』⁷⁹에서는 새 세대 청년이 수령(김일성)의 유혼을 받들기 위해 농촌으로 내려가며 그 과정에서 사랑하는 여자와 이별하는 아픔도 겪는다. 또한 단편소설 『푸르른 대지』에서는 애초의 희망이 예술계통에 있었던 의사의 딸이 의학부문에 진학하라는 부모의 권고를 뿌리치고 수령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애쓰는 영웅관리위원장에게 감동되어 농업대학으로 진학하며 졸업 후에도 대학교단에 설 것을 권고 받았으나 농장으로 자원해 나간다.⁸⁰ 이 외에도 단편소설 『겨울밤의 은하수』에서는 한 새 세대 청년이 의학박사가 되려다가 농촌의 요양소 의사로 자원해 가며,⁸¹ 단편소설 『여섯번째 버드나무』에서는 공업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한 새 세대 청년이 굴지의 최첨단 컴퓨터기지인 “중앙컴퓨터센터”의 배치를 마다하고 농업연구소에 자원해 간다.⁸² 단편소설 『생활의 시작점에서』에서는 교원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한 새 세대 여자가 “궁벽한 심심산골 막바지인 궁심리”에 있는 인민학교 교원으로 배치되어 간다.⁸³ 또한 단편소설 “명의”에서는 새 세대 여성이 “탄광 운반갱 전차운전공”으로 일하며 혁신자로서 인정 받는다.⁸⁴

위에서 나열한 여러 작품들에서 공통적인 것은 당과 수령의 뜻을 관철하고 국가와 사회, 집단과 인민들에게 헌신하기 위해 탄

⁷⁹ 조상호, “공장총각,” 『조선문학』(1995.7), pp. 69~77.

⁸⁰ 변월녀, “푸르른 대지,” 『조선문학』(2001.9), pp. 51~56.

⁸¹ 방정강, “겨울밤의 은하수,” 『조선문학』(1997.3), pp. 53~62.

⁸² 한정아, “여섯번째 버드나무,” 『조선문학』(2001.9), p. 60.

⁸³ 한형수, “생활의 시작점에서,” 『조선문학』(1996.8), p. 52.

⁸⁴ 김형지, “명의,” 『조선문학』(1996.9), pp. 29~37.

광과 농촌으로 자원해 나가며 혁신자로서 일하는 새 세대들의 신분에서 나타난다. 이들은 거의 예외 없이 최우등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교수, 연구요원, 박사 등의 자리를 보장받으며, 부모의 직업, 사회적 지위, 경제력 등도 일반 노동자의 그것과는 크게 다르다. 소설에서 긍정인물로 등장하는 새 세대들의 부모들은 교수, 의사, 의학박사, 과학자, 기사, 외교관 등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위에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은 선행 연구에서도 나타났으며, 이로써 식량난 이전과 마찬가지로 식량난 이후에도 북한 새 세대들은 대학진학을 원하며 대학졸업자를 선망하고, 또한 대학 정규과정을 마쳐야 하는 가질 수 있는 정신노동의 직업을 선호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북한에서 대학생, 또는 대학졸업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는 소설작품들은 적지 않다. 한 예로 단편소설 『숨결을 안고온 처녀』에서는 한 새 세대 청년이 “외교부문에서 책임적인 위치에서” 일하고 있는 아버지의 힘을 빌려 대학을 가고 싶어 하며 그의 어머니도 아들을 강하게 부추김으로써 아들의 부정입학을 반대하는 아버지와 갈등을 빚는다.⁸⁵ 단편소설 『강반의 달밤』에서는 공장 대학을 졸업하고 도에 있는 기계연구소 조수로 일하는 봉길이가 휴가차 시골 고향에 내려가는 길에서 만난 여성에게 자신이 대학졸업자임을 은근히 과시한다.

《기계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얼마전에 대학을 졸업하구...》 봉길은 어깨가 으쓱해져 숨기지 않고 말했다.⁸⁶

⁸⁵ 김길손, “숨결을 안고온 처녀,” 『청년문학』(2004.8), p. 16.

⁸⁶ 장선홍, “강반의 달밤,” 『조선문학』(2003.10), p. 66.

또한 북한 소설작품들에서는 ‘대학추천’을 받은 새 세대가 대단히 기뻐하며 부모에게 자랑스럽게 알리는 장면을 묘사한 대목들이 적지 않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실화문학작품 『고임돌』에서도 “대학추천”을 받은 딸이 그 “기쁜 소식을 한시 바빠 어머니에게 알려 주기 위하여 10여리 령길”을 달려온다.⁸⁷ 한편 북한주민들에게 있어 노동당원이 되는 것은 당과 국가의 신임을 입증하며 신분상승을 의미하는바, 이는 취업 및 직장 배치, 또는 간부 승진과 관련해서도 큰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에게 있어 당원이 되는 것은 당사자는 물론이고 온 집안의 경사이며 대단히 감격적이고 뜻 깊은 큰 사건이다. 이에 대해서는 새 세대들도 예외가 아니다. 소설을 통해 보면 북한 새 세대들에게 있어 대학에 진학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의가 있는 것은 노동당원이 되는 것이다. 장편소설 『열망』에서는 가열공 처녀 옥련이 당원이 되어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옥련은 세찬 대문소리와 급한 발자국소리를 듣고 (어머니)최명득이 바빠 일어나 문을 열 때 바람처럼 휩 날아들었다. 그는 뒤축이 높은 밤빛 의혁구두를 발을 되는데로 흔들며 벗어버리고 어푸러질듯이 구들에 뛰어들어 어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어머니! 입당했어요!>> 최명득은 응대를 하지 못했다. 딸의 머리를 끌어안은 두눈에서 어느새 흘러내리는 굵다란 이슬방울이 코마루언저리를 지나 턱에 맺혔다가 옥련의 머리에 락수방울처럼 떨어졌다. 그리고 딸의 머리를 매만지는 그의 손은 흥분으로 세차게 떨었다. …최명득은 눈물섞

⁸⁷ 김명진, “고임돌,” 『조선문학』(2002.3), p. 20.

인 소리를 더듬어가며 겨우 이렇게 뇌였다. <됐구나! 우리 집에도 이젠 당원이 있어!!> 옥련은 인차 어머니의 가슴속에서 벗어나 옷방책상앞에 서있는 (아버지)한석민에게로 다가갔다. 한석민은 한걸음 마주나가면서 딸의 두어깨를 부여잡았다. 그는 딸에게 축하한다는 말을 저도 모르게 이같이 말했다. <고맙다!> 그는 무엇인가 더 말을 하려 했으나 입술이 떨리고 불뭉치같은것이 목을 짝 메워 입을 더 열지 못했다.⁸⁸

또한 『열망』에서는 옥련의 아버지도 당원이 되자 옥련의 어머니는 “우리 집에 해빛이 통채로 흘러드는 것”이라며 감격한다.⁸⁹

소설을 통해 볼 때 북한 새 세대의 선호 직업과 관련해 특기할 만한 것은 소설에서 긍정인물로 등장하는 대부분의 새 세대들이 자신의 적성이나 취향을 고려한 적직을 선택하기보다는 부모가 해오던 일을 기꺼운 마음으로 이어받는다라는 것이다. 한 예로 중편소설 『우리 도시』에서 새 세대 여자 정희는 건축설계가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자신도 장차 건축설계가가 되겠다는 결심으로 “소질과 취미가 더 있는 예술부문 상급학교를 마다하고 건설전문학교를 지망”한다.⁹⁰ 단편소설 『고향』에서도 새 세대 여자 성심은 양어사업소 노동자였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학공부를 마치고 ‘양어기사’가 된다. 소설에서는 새 세대의 부모들 역시 자녀가 자신들이 하던 일을 이어받아 하기를 바라며 이러한 뜻을 노골적으로, 또는 은연중에 자녀들에게 알린다. 장편소설 『우리의 집』에서는 장차 외교관을 꿈꾸는 새 세대 인혁이 건설사업을 하는 아버지의 그런 뜻을 알아채고는 갈등을 겪는다.

⁸⁸ 김문창, 『열망』(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9), pp. 193~194.

⁸⁹ 위의 책, p. 395.

⁹⁰ 오현제, 『우리 도시』(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4), p. 58.

아버지의 의도는 명백했다. 아들이 외교관이라는 《허황한 꿈》(아버지는 분명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을 버리고 자기의 뒤를 이을 《건설쟁이》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⁹¹

단편소설 『젊어지는 교단』에서도 “고향땅에서 교원으로 한 생을 마친” 어머니가 새 세대 아들이 자기의 뒤를 이어 교단을 지켜 주기를 내심 바란다.⁹² 장편소설 『열망』에서는 제대군인이며 당원인 새 세대 청년이 대학추천을 받고도 아버지가 하는 일을 따라 배워 하기 위해 대학추천을 포기하고 아버지가 일하는 공장으로 내려오며, 이러한 아들의 행동에 대해 아버지는 매우 만족해 하며 자랑스러워한다.⁹³ 북한 소설들에서는 이와 같이 새 세대들이 부모의 직업을 이어받게 되는 동기 내지 계기가 당과 수령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온갖 어려움을 감내하는 부모에 대한 감동과 존경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또한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 자신들이 하던 일을 이어받기를 바라는 것도 역시 당과 수령의 뜻을 받든다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다. 이는 단편소설 『고임돌』에서 잘 나타나 있다. 이 소설에서는 도로관리원으로 일하는 어머니가 대학추천을 받아 기뻐하는 딸에게 대학에 가기보다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넘나드는 고갯길을 잘 관리하며 나라의 은덕에 보답하기를 권유하며 딸은 어머니의 권유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저 아래를 내려다 보아라. 이 령길은 평양과 곧바로 이어져 있는 길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도를 찾으실 때는 이 령길을 넘어 오시지 않느냐. 그러지 않아도 높고 험한 령인데…》 어머니의 절절한 토로에 딸의 머

⁹¹ 최영학, 『우리의 집』, p. 69.

⁹² 김정희, “젊어지는 교단,” p. 69.

⁹³ 김문창, 『열망』, p. 151.

리는 점점 수그러졌다. …《네 아버지는 이 삼을 만들어 주면서 나에게 큰 당부를 남겼다. 도로를 잘 관리하고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잘 모셔 달라구 …그런데 나는 그렇게 일하지 못했구나. 나라의 은덕에 보답하기에는 내 힘만으로는 부족한것 같구나. 나는 우리 모녀가 이 삼을 잡고 령길을 지켜 갔으면 하는 생각이다.》 …경실이는 어머니의 그 소원을 가슴에 새겨 안고 령길에 나섰다.⁹⁴

그러나 소설에서 부정인물로 등장하는 새 세대들이 갖는 직업의 의의와 선호직업은 공식가치지향과 다르다. 이들은 “사회적 의무”인 노동에 태만하며 탄광과 농촌으로 자원해 나가기를 꺼려하고 이른바 ‘혁신자’를 꿈꾸며 고생을 마다않는 다른 새 세대들에 대해 나름대로의 충고를 아끼지 않는다. 다음의 예는 단편소설 『생활의 시작점에서』에서 한 새 세대 청년이 “벽촌 중의 벽촌”의 인민학교로 배치 받아 가는 여자후배에게 하는 나름대로의 진심어린 충고이다.

생활이란 변화무쌍해야지 고여있는 물웅덩이처럼 되어서야 무슨 살 재미가 있겠소? 그 한적하고 궁벽한 촌구석에서 구경거리 하나 없이 어제도 그만 오늘도 그만… 단조롭게 반복되는 수업일과밖엔 없는 생활속에 무슨 량만이 있겠대구… 곰곰히 생각해보우, …그렇게 살아서야 어느 세월에 자기 존재를 드러내보겠소?! 사람이 난바에야… 동무가 그 촌구석에서 아까운 청춘시절을 속절없이 흘려보냈대야 동무한테 차례지는게 뭐가 있겠소?! …그러게 빛이 있는것 같으면서도 별로 빛을 내지 못하는게 교원의 직업이라구들 하지 않소?! …한생을 마무리하는 먼 후날에 가서 뼈아픈 후회를 하지 않으려거든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되돌아서 시작점으로 도루가는게 좋겠소.⁹⁵

⁹⁴ 김명진, “고임돌,” pp. 20~21.

⁹⁵ 한형수, “생활의 시작점에서,” pp. 53~54.

단편소설 『보통사람들의 이야기』에서도 사망한 전우의 홀로 지내는 어머니를 위해 산골생활을 하고 있는 새 세대 청년에게 그의 여자친구가 평양으로 돌아올 것을 간절하게 청하는 편지를 보낸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재능의 나라를 활짝 펼수 있는 수도로 돌아와 저와 함께 우리들의 리상을 맘껏 실현해봅시다. 우리들이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정들인 수도의 거리, 생활적으로나 창작적으로 모든 조건이 그 히 갖춰진 수도를 떠나 한적한 산골에서 일생을 보낸다는것은 우리를 배워준 스승들과 더우기는 인재를 아끼는 나라에도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⁹⁶

또한 소설을 통해 보면 북한의 새 세대들은 육체노동에 대한 직업적 차별의식이 있으며 부모세대들 역시 자녀가 육체노동보다는 정신노동을 하는 직업을 갖기를 바란다. 북한 소설들 가운데는 이와 같은 직업적 차별의식을 묘사한 대목들이 적지 않다. 이는 북한이 그동안 계급 없는 사회를 지향하며 이른바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통해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차이를 해소하려 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육체노동에 대한 차별의식이 뿌리 깊게 남아 있음을 말해 준다. 새 세대들의 육체노동에 대한 차별의식을 묘사한 작품들 가운데 하나인 단편소설 『함께 가는 길』에서는 광산기술자 태영이 자신이 마음에 두고 있는 처녀의사 옥주에 대해 육체노동자로서의 자격지심을 다음과 같이 드러낸다.

⁹⁶ 김교섭, “보통사람들의 이야기,” 『조선문학』(2005.4), p. 62.

태영은 문득 눈앞에 떠오르는 옥주의 모습에 가슴이 확 달아 올랐다. 그러나 그는 곧 자신을 비웃고 말았다. 그 처녀는 자신의 손으로는 도저히 잡을수 없는 하늘의 무지개처럼 생각 됐던것이다.⁹⁷

장편소설 『열망』에서는 “가열공” 노동자인 딸이 “직장별 예술 소조공연”에서 “기타 2중주”에 출연하게 되었다고 하자 그녀의 어머니가 딸의 직업을 못마땅해 하며 “가열공”이라는 직업으로 인해 결혼까지도 어려워지지 않을까 크게 우려한다.

《흥, 불을 때는 가열공주제에 무대에 올라가? 거 보기 좋겠다.》 《가열공이 어떻다구 그래요?》 《꽤 좋겠다. 얼굴이 새까매가지구, 그러니 총각들이 달라붙었다가두 물러서지. … 그렇다면 평생 혼자 살게 됐지. 이 세상에 가열공을 좋다 할 총각이 어디 있겠어. 예그, 자식이 하나 있다는게 이렇게 속을 썩이게 하니…》⁹⁸

단편소설 『버드나무』에서는 세계적인 작곡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 “평양과 음악대학과 스승”을 원하는 한 새 세대 청년이 평양을 떠나 농촌으로 가 “농사일로 조국을 받들겠다”는 아버지의 뜻을 어기지 못하고 농장원이 된 자기의 신세를 다음과 같이 한탄한다.

나는 질통을 지고 돌을 저날랐다. 시간이 갈수록 기운이 빠지면서 온몸이 나른해 진다. 그 누가 로동을 노래라고 했던가? 목에서 겨불냄새가 나고 얼굴이며 목덜미로 땀이 줄줄 흘러 내리는데… 나는 기계적으로 밭을 옮겨 짊으며 서글픈 생각

⁹⁷ 공천영, “함께 가는 길,” 『조선문학』(2001.11), p. 23.

⁹⁸ 김문창, 『열망』, pp. 28~29.

에 잠겼다. 내가 농장원이 되다니…. …물고기 먹기가 제 살
깎아 먹기라더니 양어장일이 힘들다. 이젠 지쳤다. 그리고 농
촌이 싫다. 달구지도 진창길도 닭똥도… 여기에 그냥 있다가
는 락오자가 되기가 쉽다.⁹⁹

단편소설 『당부』에서는 한 새 세대 남자가 중학교 졸업 후 공
장이나 기업소, 또는 협동농장 등에 노동자로 배치 당하는 것이
싫어 직장배치가 있기 전에 “《줄》을 잘 타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 애쓴다.

중학교를 졸업한 나는 로동과에서 배치해줄 직장을 기다리지
않고 《좋은 자리》에 《선손》을 써보자고 《줄》이 있는
동무를 찾아갔다가 저녁때에야 집에 들어섰다. …나는 할아
버지의 말처럼 기술도 전문자격도 없는 애송이다. 해운대학
을 지망했으나 졸업시험 점수가 높지 못해 추천도 못받았다.
그렇다고 주저앉아야 하겠는가. 나는 그럴수 없었다. 하여 나
는 딱친구의 아버지가 해운부문 무역회사 계통에 있는데 그
줄을 타면 회사 직원으로 들어갈수 있다는것을 토티었다.¹⁰⁰

새터민들에 따르면 사실상 북한의 새 세대들은 대학진학을 원
하며 대학졸업자들을 선망하고, 특히 김일성대학과 같은 종합대
학 졸업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높이 보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북
한의 부모들 역시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정신노동의 직업을 갖
기를 바란다.

북한은 일단 대학을 졸업하면 직업이 다 있잖아요. 직업, 대
학졸업자는 막노동 하는 사람 없거든요. 암만 못해도, 북한

⁹⁹ 리영환, “버드나무,” p. 35.

¹⁰⁰ 류정옥, “당부,” pp. 52~53.

막말로 지도원이래도 하거든…。 그니까 인식 정도가 아주 좋죠.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저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대학을 못 졸업한 사람이 지도원이나 간부 등용이 안돼요. … 북한의 부모들은 직업에 대한 가치관, 내 자식을 탄광에 두고 힘들게 일하고 농장에 나가 햇볕 쨍쨍 일하는 것보다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사무실,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선호하죠. …그니까 거기는 여기서 변호사, 의사를 선호하듯이 거기도 …뭐 군당, 거기는 당기관이 있거든요. 당 기관, 이런데 일을 선호하죠.¹⁰¹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의 청소년들은 원하는대로 대학에 진학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지 못한다. 교육의 기회균등과 관련해 북한은 “사회주의건설의 로력전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마친 모든 청년들에게 고등교육을 주도록 하여야 한다”¹⁰²라고 밝히고 있으며, 『교육법』에서도 “고등교육 또는 수재교육 부문의 학생모집은 실력을 기본으로 한다”(제48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1980년 3월부터 대학입학자격시험제도(국가판정시험)를 도입하여 원칙적으로 중학교를 졸업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대학진학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중학교를 졸업하는 청소년들은 대학 추천서가 있어야만 대학입학시험을 치를 수 있으며 한 학교에 배당되는 추천서가 많지 않아 경쟁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정작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수는 소규모이다. 또한 청소년의 대학진학은 자신의 뜻에 따라 능동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국가적 수요에 따라 수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당국이 때 시기마다 민족간부에 대한 국가적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기초하여 대학과 대학의 학부, 학과들

¹⁰¹ 새터민 최00, 2005년 5월 12일 면접.

¹⁰² 김일성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함에 대하여,” p. 402.

을 편성하며 학생규모를 정하기 때문이다.¹⁰³ 그리고 현실적으로 북한 청소년에 대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은 출신성분 및 당성에 따른 선별적 진학이다. 대학입학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일차적으로는 모든 중학교 졸업생들에게 대학진학의 기회를 부여하기는 하나 대학에서의 학생선발은 공정한 실력 경쟁에 의하여 이루어지기보다는 입학을 원하는 학생의 출신배경과 당성(조직생활평가결과)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다.¹⁰⁴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북한에서 소학교 교사로 재직(1984.9~1996.8)했던 새터민 여성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북한은 아빠가 노동자면 자식이 공부를 제대로 못해요. 신분
에 따라서…. 아빠가 간부면 그 자식을 자동으로 간부가 돼
요. 여기는 내가 능력이 있으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내가
능력만 있으면 사장도 될 수 있는 여건이 서요. 근데 북한은
…능력이 암만 있어도 안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 애가 진짜
공부를 잘해요. 그러니깐 이 사람을 진짜 핵분야를 공부를 시
켰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에 걸린다, 그럼 안써요.
어차피 성분은 돼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 기본군중
에 속하면, 어느 정도 되면 광업대학, 석탄대학, 이런 데는 갈
수 있겠다, 그렇지만 진짜 핵분야에 최고 좋은 정도면 가야
되잖아요. 당연, 근데 성분법 때문에 못가요. 수재라도 절대
안 써요. 그건 확실해요.¹⁰⁵

최근의 한 관련 조사결과에서도 북한에서 출신성분으로 차별
을 받는 경우는 주로 정치범 또는 숙청자 가족, 부모나 조부모가
지주이거나 월남자인 경우, 중국이나 일본에서 귀국한 가정의 경

¹⁰³ 위의 글, p. 402.

¹⁰⁴ 임순희,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p. 75 참조.

¹⁰⁵ 새터민 최00, 2005년 5월 12일 면접.

우에 신분상의 차별을 받으며, 구체적으로는 노동당 가입 불가, 대학진학의 어려움, 직장배치시 특정 주요 직책 제외 등으로 차별이 가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⁰⁶

새터민들에 따르면 북한의 새 세대들은 대학 정규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한 전문직을 동경하기는 하나 실제에 있어 선호하는 직업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 현금 또는 물질 등의 부수입이 있는 직업 등을 선호한다. 또한 도시에서 정신노동의 직업을 갖고 싶어 한다. 특히 식량난 이후로 대부분의 새 세대들은 당과 수령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탄광, 농촌 등지로 탄원해 가는 것을 지극히 비현실적인 행동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식량난이 악화됨에 따라 새 세대들에게 있어서도 자신과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새 세대들은 대학졸업자를 동경하고 전문직 가운데서도 정해진 월급에만 의존하는 의사나 교수보다는 외화를 쓸 수 있는 외교관이나 무역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진학이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새 세대들이 실제로 선호한 직업은 운전사, 상점판매원, 호텔과 식당의 접대원 등 부수입이 있는 서비스업종과 물품을 다루는 자재 인수원, 외화벌이 지도원 등이 인기가 높았으며 좋은 대우를 받는 가수나 배우 등과 같은 예술인이 되는 것도 선호하였다. 물론 권력을 누릴 수 있는 당간부, 보위부원 및 인민보안원, 청년동맹 간부 등도 새 세대들이 선망하는 직업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북한 새 세대들의 직업 선호 경향은 식량난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에

¹⁰⁶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탈북자 증언을 통해서 본 북한인권 실태조사』 (서울: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05), pp. 104~105 참조.

서 밝히었듯이 식량난 이후 북한의 새 세대들은 돈과 물질을 벌어들여 당면한 생계유지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직업을 가장 선호하며, 이에 따라 당원이 되고자 하는 바람도 이전에 비해 많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 새 세대들의 직업 선호 경향에 있어 한국과 비교해 특기할 만한 것은 의사 직업과 관련해서이다. 소설을 통해 보면 북한의 새 세대들이 선망하는 직업 가운데 하나가 의사이다. 또한 실제로도 북한에서 의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북한 새 세대들 사이에 의사는 대체적으로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으며 부수입 없이 정해진 월급에만 의존하는 직종일 뿐만 아니라 공부하기도 어려운 분야로 인식되어 있으며, 따라서 새 세대들은 자아실현을 위한 전문직으로서의 의사를 선망하나 생계유지를 위한 생업으로서 의사를 선택하는 것은 꺼린다고 한다. 의사 직업에 대한 이와 같은 선호 경향은 식량난 이후 보다 더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전직 의사 새터민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북한은 의과대학을 졸업해도 참 힘들어요. 졸업을 해서 취업은 뭐 그냥 쉽게 돼요. 어차피 국가에서 다 배정을 해주는 거니까.¹⁰⁷ 근데 의사들 생활이라는 게 정말 비참해요. 너무 비참해가지고 오히려 일반 직장인들보다도 못한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하면 직장인들은 자기네 회사에서 생기는 생산하는 물품을 부정축재 한다던지, 뭐 밖으로 빼돌려서 팔아먹기라도 하던지, 아니면 시간이라도 남아가지고 직장에 안 돌아가면 그냥 나가서 장사라도 해요. 근데 의사들이라는 것은,

¹⁰⁷ 의사인 경우 대학을 졸업하고 자격 면허를 획득하게 되면 국가가 일률적으로 배치하는데 본인의 의사가 30% 반영되고 70%는 국가가 결정한다.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06』, p. 180.

…좀 엘리트 계층에 속하다보니까 그냥 국가에서 그렇게 내 버려 두질 않아요. 통제가 엄청 심해요. 그러니까 직장을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가봤자 약도 없어요. 의사들은 환자들 오면 치료를 해주는데, 북한은 무상치료제잖아요. 그리고 의사들 월급은 국가에서 다 내줘요. 그런데 그 월급이라는 게 보잘것없고, …죽도 제대로 못 먹어요. 의사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물론 의대 들어갈 때만 해도 그래도 좀 괜찮았고, 선망하는 직업이었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이제 보면 선배의사들도 의사 때려치우고 일반 그냥 직장으로, 장사하러 나서는 사람이 엄청 많아졌어요. …(의사라는 직업이) 먹고 살 걱정이 없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거면 사람들이 다 기피하는 직종이 될 수도 있는 거죠.¹⁰⁸

식량난 이후 위와 같은 북한 새 세대들의 의사 직업에 대한 선 호경향은 교사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새터민들에 따르면 북한의 학생들에게 있어 교사의 권위는 부모와 같으며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매우 엄격하다고 한다.

저희가 북쪽에 살았을 때에는 선생님의 말씀이 곧 법이에요. 혹시 오해하고 욕을 해도 꾸지람을 들었지 어디 선생님한테… 뭐 좀 남한처럼…(웃음) 막 그거, 그런 거 있잖아요. 상상을,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렇죠. (여 1974년생)¹⁰⁹

그러나 관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북한 학생들은 예전처럼 선생님을 무조건 존경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선생님들이 시간을 쪼개 장사를 다니거나 계속 학부모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은근히 선생님을 무시하는 학생들도 생기며 이렇다보니 선생님들도 교사로서의 자긍심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¹¹⁰

¹⁰⁸ 새터민 최00(31세 남성, 2000년 9월 탈북), 2006년 6월 3일 면접.

¹⁰⁹ 서울대 통일연구소, 『새터민 사회문화적응과 심리적 통합』, p. 237에서 재인용.

새터민들에 따르면 이와 같이 교사의 권위가 흔들리고 교사가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잃게 된 데에는 식량난에 따른 심각한 생활고가 근원으로 작용하였다고 한다. 학생교육, 환자진료 등을 담당하는 교사, 의사 등의 전문직은 생활이 어려워도 일상적인 교육이나 진료 등의 직무를 중단하고 부업을 할 수 없었으며 당의 통제도 보다 엄격했으므로 다른 직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식량난에 따른 생활고가 심했다는 것이다.

북한에는 장사 자체가 자본주의의 온상이라고 해서 반대했어요. 그러나 식량사정이 어려우니까 할 수 없이 풀어놨어요. 풀어놨는데도 교원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 이미지가 학생들을 교육하는 내용하고 본인들 생활하고 틀리니까 당에서 교원들 생활을 엄격하게 통제했어요. 그러니까 생활하기가 더 힘들지요.¹¹¹

따라서 식량난 이후 새 세대들은 의사 직업과 마찬가지로 자아실현을 위한 전문직으로서는 교사를 선망하나 생계유지를 위한 생업으로서는 교사를 꺼린다고 한다.

북한 새 세대들의 직업 선호 경향에 있어 한국과 비교해 또 하나 특기할 만한 것은 남북한 새 세대 모두 시골보다는 도시에서 일하고 싶어 하며, 특히 이들이 가장 바라는 지역은 남북한의 수도인 서울과 평양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의 새 세대들이 각각의 수도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같지 않다. 북한의 새 세대들이 평양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평양

¹¹⁰ (사)좋은벗들 엮음, 『오늘의 북한, 북한의 내일』(서울: 정토출판, 2006), p. 125.

¹¹¹ 박현선, 『현대 북한의 가족제도에 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9), p. 116에서 재인용.

에 집중해 있는 ‘권력’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데에 있다. 이와 관련해 전직 의사였던 한 새터민(40세)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지방의 의사들하고 평양시에 있는 의사들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평양시하고 지방하고는 레벨이 완전히 달라요. …북한에서는 모든 것이 국가권력에 의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참 살아가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평양 시내의 의사들은 주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하고 많이 지내고, 또 진료도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에게 돌아오는 혜택의 몫이 크고, 지방에 사는 의사들은 뭐 그런 사람들 무리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무료로 진료를 하고 이렇게 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진료를 하면은 당국자 이렇게 해주면 그 사람들이 슬쩍 해주는 인사가 뭐냐면 쌀 같은 거 2,000Kg을 슬쩍 주는 거예요.¹¹²

나. 직업의식

소설에서 긍정인물로 형상화된 새 세대들은 직업의식이 강하다. 이들은 일을 하는 데 있어 매사에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며 적극적·능동적으로 즐겁게 일을 한다. 한 예로 단편소설 『흰 들국화』에서 “사단군의소 경리간호원”으로 일하는 새 세대 여자는 주어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한편 시간이 날 때마다 병실을 찾아다니며 환자들에게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준다.¹¹³ 단편소설 『별들이 웃는다』에서는 한 새 세대 여교원이 산촌에서 살며 영예군인인 아버지의 일을 돕는 “학과실력이 낮은” 한 학생을 애정 어린 관심과 교사로서의 의무감·사명감을 가지고 지도해 나간다.¹¹⁴ 또한 단편소설 『함께 가는 사람들』에서는 새 세대 여자는

¹¹² 새터민 박00(40세 남성, 2003년 탈북) 2006년 5월 20일 면접.

¹¹³ 장미현, “흰 들국화,” 『조선문학』(1997.4) pp. 74~80.

해가 일에 대한 열정이 강한 나머지 잠으로 보내는 밤 시간마저 아쉽게 생각한다.

은혜는 원래 밤을 싫어했다. … 모든것을 잠재우는듯한 그 보이지 않는 <힘>이 싫었다. 밤은 마치 <자라, 자라>하고 쉽없이 웅얼대며 강요하는듯싶었다. … 사람은 무엇때문에 잠을 자는가, 밤때문이다. 밤이 없다면 사람은 일생동안에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더 많은것을 건설할것인가… 밤은 어쨌든 아쉬웠다. 자연의 법칙에 순종한다는것이 어쩐지 자기를 패배자로 인정하는것만 같았다.¹¹⁵

새터민들에 따르면 실제에 있어서도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이 심화되기 이전에는 소설에서와 같이 북한 주민들의 직업의식이 강한 편이었다고 한다.

북한에, 경제적으로 밑바탕이 되어 가지고, 그 때 내가 알고 있던 북한은 북한사람들 굉장히 솔직했고 순수했고, 자발적이었고 정직했었어요. 그 때 북한 사회 분위기는 어땠냐 하면 서로 허물없고 쉽게 친했고, 쉽게 믿어줬고 알아줬고, 그리고 모든 전 사회적으로 거짓말을 안했고 김일성의 지시에 대해서 진심으로 추종했고, 예를 들어 누가 보든 안 보든 진심으로 열정적으로 일을 해왔었어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있었어요.¹¹⁶

식량난을 통해서 주민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모든 것이 사명감,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다. 연구사업을 한다. 환자를 진료한다. …경제적인 것을 생각을 안 했어요. …순 이런 사명감이 90%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¹¹⁴ 최양수, “별들이 웃는다,” 『조선문학』(1998.3).

¹¹⁵ 리명순, “함께 가는 사람들,” 『조선문학』(1999.1), p. 55.

¹¹⁶ 새터민 김0(30세 남성, 1997년 탈북), 2006년 5월 27일 면접.

다 필요가 없구나.¹¹⁷

그러나 이미 알려진대로 식량난이 악화됨에 따라 북한 주민들은 국가에서 배치해 준 직장에 충실하기보다는 자신과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 밖의 일에 더 비중을 두게 되었으며, 이로써 북한주민들의 직업의식이 크게 약화되었다. 이러한 실태는 북한 소설에서도 잘 나타나있다. 단편소설 『열쇠』에서는 한 젊은 아내가 “《고난의 행군》시기”에 직장생활에 태만하고 국가재산을 훔치는 등 “비사회주의적” 행동을 한 남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한탄하고 있다.

곤난은 사람을 가르는 시금석이다. 사실 《고난의 행군》시기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모두가 웃으면서 그것을 이겨냈다. …허나 충국이 아버지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 타락… 그리고는 자기를 잃었다. 모두가 신념을 지키고 조국을 지킬 때 그는 자기자신도 지키지 못했다. …책임운전수가 없을 때마다 빈번히 불도젤의 기름을 훔쳐서 술과 바꾸었고 지어는 공장에 한 대뿐인 불도젤을 마구 혹사하였다. 그가 법적제제를 받은것도 자기 술친구의 터발을 일구어준다고 하면서 불도젤을 막 몰아대다가 벼랑턱에서 굴러뜨렸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오직 《나》라는 개념밖에 없었다. 출근하고 싶으면 출근하고 출근하기 싫으면 술과 놀음으로 시간을 보냈다. 물론 결근하는 때가 드문했다. 누가 충고를 할라하면 눈을 부라리며 주먹자랑을 하였다.¹¹⁸

중편소설 『열매는 봄날에』에서는 “군체신소 우편반장”을 하는 한 여성이 식량사정으로 인해 군 체신소 직원들의 “출근률이 떨

¹¹⁷ 새터민 박00(40세 남성, 2003년 탈북), 2006년 5월 20일 면접.

¹¹⁸ 김혜성, “열쇠,” 『조선문학』(2004.4), pp. 67~68.

어지자 빈 통신구역까지 도느라 신발바닥에 불이 일 정도”로 뛰어 다닌다.¹¹⁹ 또한 이 소설에서는 식량난으로 인해 농장원들이 자신과 가족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장일보다도 “개인부업”에 더 주력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오경철이 말이 지금 문제는 조금 일군들보다 농장원들속에 있다고 했다. 농사가 잘 안되고 분배몫이 적어 진다고 해서 개인부업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그 수확물이 간단치 않다고 했다. 대체로 다른 농장, 다른 작업반들에도 류사한 알만한 결함들이어서 부부장이나 리담당일군들도 별로 이의를 느끼지 않는것 같았다.¹²⁰

식량난 이후 보다 더 뚜렷해진 북한주민들의 직업의식 약화는 특히 가사와 직장 일을 병행하는 여성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소설을 통해서도 잘 엿볼 수 있다. 단편소설 『행복의 무게』에서 연구사로 일하는 젊은 여성 유경은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으로 인한 연구환경의 열악함과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해오던 연구 사업을 포기하려 하며, 이로 인해 남편과 언쟁을 하는 등 갈등을 겪는다.

《연구사업을 그만 두겠다!... 진심이요?》 그때 유경은 퇴원한지 얼마 안 되는 어린애를 안고 조용히 다독이기만 했었다. 《그래요. 촉매연구도 가정생활도 모든게 저에겐 힘에 부쳐요.》 ...《하지만 우리가 공동연구를 계속 밀고 나간다면 빠른 시일내에 가능성을 현실성으로 바꿀수 있다고 보오. 당신만 물러 서지 않는다면 말이요.》 유경은 천천히 머리를 흔들었다. 《제발 저를 내버려 두세요. 전... 지쳤어요.》 ...《두뇌

¹¹⁹ 박웅전, 『열매는 봄날에』, p. 80.

¹²⁰ 위의 책, p. 8.

의 부족으로 연구사업을 포기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학사인 당신이 모든게 힘들다고 사직한다면… 그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앞에 재세로 되는거요.》 유경은 반발적으로 긴 눈썹을 치켜 올렸다. 《재세한다고요? 어쩌면 당신이 그런 말을… 저에게 연구과제만 있는가요? 지금은 시약, 실험기구, 연구조건만이 아니라 가정을 유지하기조차 힘든 때예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전 녀성이예요.…”》¹²¹

그래, 이것이 녀성이 아닐까? 엄혹한 오늘날 가정살림을 도맡아 나서고 건강한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들을 여전히 사회적 의무에 충실하도록 떠미는 여기에 녀인들의 강의성과 아름다움이 있는게 아니겠는가. 그러나 유경의 생각과는 달리 그의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자신을 스스로 기만하고 있다는 허무함으로 하여 까닭없이 온몸이 곤욕을 치른것처럼 시름시름 아파 나기도 했다.¹²²

단편소설 『나의 시어머니』에서는 작업반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한 여성이 가족의 식량조달을 위해 무리하게 일을 하는 시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 한다.

엄혹한 《고난의 행군》을 하는 지금 공급소에서 식량을 거의나 타지 못하지만 자신은 작업반장이다보니 직장에 노성 붙어 있어야 하는것이다. 더우기 안해마저 직장에 나가니 이 정도로 끼니를 에우는것도 70로인인 어머니의 수고의 덕인것이였다. 옥현은 벌써 전부터 직장을 그만두고 무슨 별이를 해서라도 식량을 해결하며 늙은 시어머니를 쉬게 하고 싶었었다.¹²³

위와 같은 북한주민들의 직업의식 약화는 새 세대들에게 있어

¹²¹ 리라순, “행복의 무게,” 『조선문학』(2001.3), p. 25.

¹²² 위의 글, p. 24.

¹²³ 장기성, “나의 시어머니,” 『조선문학』(2003.10), p. 26.

서도 예외가 아니다. 한 새터민에 따르면 새 세대를 비롯한 북한 주민들은 경쟁이라던가 직업의식을 운운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출신성분에 따라 주어진 직업생활을 하며 나름대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¹²⁴ 그러나 식량난을 겪으며 이와 같은 나름대로의 안정된 생활이 흔들리고 있으며 특히 새 세대들 사이에 직업의식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새터민 청소년들은 북한에서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지만 남한에서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또한 북한에서는 열심히 일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하지만 남한에서는 열심히 일한 사람은 성공한다고 인식하였다.¹²⁵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북한 새 세대의 직업의식 약화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2002년 탈북한 30세의 새터민 남자도 새 세대를 비롯한 북한주민의 직업의식 약화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북한사회 분위기가 어땠냐 하면, 열심히 일하고 정직히 일하면 바보예요. 북에서는 바보예요. 너 그래봤자 굶어죽어, 어떻게든 피부러가지고 땡땡이치고 그래가지고 에너지 많이 낭비안 해가지고 집에 가서 다른 일에 장사하는 일에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그랬단 말이에요.¹²⁶

¹²⁴ 서울대 통일연구소, 『새터민 사회문화적응과 심리적 통합』, p. 246 참조.

¹²⁵ 위의 책, p. 235 참조.

¹²⁶ 김0(30세 남성, 1997년 탈북), 2006년 5월 27일 면접.

IV

식량난 이후 북한 새 세대의 가정관

1. 결혼관

가. 사랑과 결혼의 의의

소설에서 그려지는 사랑과 연애에 대해 김일성은,

우리는 연애를 위한 연애를 그려서는 안됩니다. 연애를 위한 연애는 한갓 자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교양적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해로울 수 있습니다. 새형의 인간들의 연애는 반드시 혁명위업의 숭고한 목적에 복종되어야 하며 혁명의 승리를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되어야 합니다.¹²⁷

라고 밝힌바 있다. 이른바 “주체형의 인간들에게 있어서 참다운 애정륜리는 혁명동지들 간에 맺어진 동지애에 기초를 두고 있으므로 청년남녀 간의 사랑을 연애를 위한 연애로 그려서는 안되며 당과 혁명이 준 임무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사상정신적으로 공감되고 결합되는 것으로 되여야 한다.”¹²⁸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북한의 공식적인 가치지향은 소설에서 긍정인물로 그려진 새 세대들의 사랑관·결혼관에 있어 핵을 이룬다.

사랑이란 아름다운 것이며 그것은 쌍방을 비할 바 없이 고상한 세계에 승화시킨다. 그러나 그것은 서로의 리상과 지향이 일치할 때만이 가능하다. 그렇지 못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으며 한갓 거짓에 불과하다... 그와의 사랑은 어디까지나 농촌테제 관철에 다소나마 이바지 하려는 숭고한

¹²⁷ 김해월, “우리시대 여성들의 사랑의 세계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 『조선문학』 (1991.7), p. 65.

¹²⁸ 위의 글.

지향만을 안고 육종을 진행해 오는 과정에 맺어진 것이 아닌
가, 한 마디로 말하면 현대화되고 과학화된 달피재의 래일에
대한 숭고한 이상과 꿈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이루어
어진 사랑이 아닌가? 그러나 두 사람의 사랑에서 육종이라는
이 이상을 빼버리면 무엇이 남는가?¹²⁹

사랑은, 사랑은 결코 맹목적인 연분이 아니다.··· 오늘 우리
시대 청년들의 사랑은 고난의 길을 걷는 내 조국과 강성대국
의 자랑스런 역사를 펼쳐가는 위대한 이 시대에 보탬이 되고 자
양분이 되고져 순결한 량심과 깨끗한 구슬땀을 바쳐가는 거
기에서 싹트고 꽃피어나는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것이다.¹³⁰

사랑, 그것은 벽차고 참된 생활의 거세찬 격류속에서 미래를 확
신하는 강毅한 인간들만이 느낄수 있는 환희의 분출이다!”¹³¹

결혼이란것이 생판 알지도 못하는, 더우기 자기 사업을 리해
해줄줄 모르고 내심의 진정을 들여다볼줄 모르는 그런 상대
와의 결합으로 되고만다면 거기에 무슨 인간다운 행복이 있
소? 참다운 결혼이란 호상 깊은 리해로부터 출발하여 서로의
지향을 귀중히 여기고 그 실현으로 떠밀어주는 상대들의 결
합이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오.¹³²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1995년 이후 발표된 소설에서도 긍정인
물로 등장하는 새 세대들은 남녀간의 사랑에 있어 중요한 요소들
로 뜻과 지향의 일치, 헌신, 상호이해와 믿음, 기쁨과 괴로움의 공
감, 진실하고 순결한 마음, 상호존중과 평등 등을 꼽는다. 그리고
일정기간 이러한 요소들을 서로에게서 확인한 다음 비로소 서로
에게 속내를 드러낸다. 따라서 친구처럼 편하게 지내다가 “어느

¹²⁹ 한운, 『씨앗』(평양: 문예출판사, 1992), pp. 177~178.

¹³⁰ 송영금, “사랑은 연분이 아니다,” 『청년문학』(1999.9), p. 44.

¹³¹ 윤경찬, “넓어지는 땅,” 『조선문학』(2001.10), p. 53.

¹³² 김혜영, “다시 본 모습,” 『조선문학』(1999.1), p. 77.

날 갑자기 단도직입적으로 사랑을 고백”하게 되면 상대로 하여금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길 수도 있다. 단편 소설 『별』에서 한 새 세대 여자는 우정으로 대한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단도직입적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데 대해 남자의 행동이 “철면피하고 무분별하고 무례하다”고 비난하며 분함과 무서움을 느낀다.¹³³ 그러나 최근 발표된 소설들 가운데는 긍정인물로 등장하는 새 세대들이 이성과의 만남과 사랑, 그리고 결혼에 있어 위와 같은 당의 공식가치지향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 작품들도 드물지 않다. 이를 테면 소설작품에서 새 세대들은 뜻과 지향의 일치, 헌신 등을 운운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성격에 매력을 느껴 호감을 가지고 접근하며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 결혼에 이른다. 이와 같은 새 세대들의 만남과 사랑을 단편소설 『오후5시』는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다. 작품 속의 새 세대 여자 성희는 현혈하러 갔다가 새 세대 남자 철진을 처음으로 만난다. 그러나 첫 번째 만남에서 성희는 철진으로 인해 마음이 상한다. 현혈하려는 사람들은 많았으나 간호원이 채혈을 마감함에 따라 마지막으로 채혈의사 앞에서 팔을 걷어 올리던 성희 앞에 해군중위 철진이가 갑자기 나타나 새치기를 하여 채혈을 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에 그들은 그 때에 바로 사랑이 시작되었음을 고백한다. 이른바 상대의 ‘뜻과 지향’이 자신의 그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만난 처음부터 서로에 대해 호감을 느끼며 사랑을 키워간 것이다.

그때로부터 그들의 사랑이 시작되었다. …사랑의 감정은 사

¹³³ 리정수, “별,” 『조선문학』(1996.9), p. 53.

랑하는 대상의 언어와 행동, 용모와 육체에 다 잇닿아있는 이를테면 다변수함수와 같은것이다. 그 복합적인 감정수학은 컴퓨터도 풀어내지 못한다. 성희와 철진은 보름이 멀다하게 서로 주고받은 편지로 사랑을 무르익혔다.¹³⁴

단편소설 『열쇠』에서도 새 세대 여자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남자의 “사나이다운 열정”에 이끌려 그와 결혼한다.

동정도 순간의 흥분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마음속으로 그를 사랑했다.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그를 사랑했다. 나도 모르게 사랑했다. 비록 어두운 구석에서 방황하는 사람이긴 하였지만 그의 인간됨을 사랑하였다. 그에게는 흠이 많았다. 그러나 사나이다운 열정이 있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릴줄도 알았다. 모든 사람들이 너무도 짝이 기운다고 우리의 사랑에 혀를 찼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무시하였다. 오로지 열정, 사나이다운 그의 열정에 이끌리었다. 그리고 그의 뜨거운 열정에 불타버리는 자신이 기쁘기만 하였다.¹³⁵

단편소설 『뜨거운 눈』에서는 전문학교 졸업생이며 공장에서 회계원을 하는 “공장 처녀” 은경이 성실하고 순박하기는 하나 “과감하고 열정적이며 즐기찬” 성격이 못되고 소심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새 세대 남자 진철의 사랑 고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¹³⁶ 2005년 발간된 장편소설 『우리의 집』에서 주역으로 등장하는 새 세대 남녀의 만남과 사랑도 당과 수령의 뜻 관철, 집단과 인민을 위한 헌신 등, 이른바 ‘지향과 포부’가 일치하여 서로 사랑하고 맺어지는 ‘사상적 결합’이 아니다. 이들은 “평양국제영화축

¹³⁴ 립화원, “오후5시,” 『조선문학』(2000.1), p. 53.

¹³⁵ 김혜성, “열쇠,” p. 71.

¹³⁶ 송출언, “뜨거운 눈,” 『조선문학』(2004.10), p. 31.

전”에 참가한 외국영화를 “동시번역”하는 일이 계기가 되어 만났으며 15일 동안 함께 영화 번역 일을 한 후로는 그들이 번역한 영화 속의 남녀주인공처럼 사랑한다. 이들은 번역일이 끝나 헤어진 다음날부터 “참을 수 없는 그리움” 때문에 함께 일하던 “국제영화회관 마당”으로 서로를 찾아 나서며 약속이나 한 듯 그 곳에서 만나 영화 속의 남녀주인공이 나눈 대사를 그대로 주고받는다. 그리고 이후 이들은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장소”에서 만나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사랑을 쌓아가며 결혼을 약속한다.¹³⁷

1995년의 선행연구에서는 소설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새 세대 여자들이 사랑과 결혼에 있어 대체적으로 수동적·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사랑하는 남자에 대한 충실한 “방조자”, “내조자”로서의 역할에서 결혼의 의의를 찾았다. 또한 새 세대 남성들에게 있어 결혼이란 사랑이 전제된 방조자의 선택이며, 사랑하는 한 여자의 운명을 책임지는 것을 의미했다. 이와 같은 결혼의 의의는 1995년 이후에 발표된 소설작품들에서도 보편적인 경향으로 나타난다.

《저를 받아주지 않겠어요?》 《안돼! 데려다 고생시키고 싶잖아!》 《제가 원한다면요?》 《그래도 안돼!……》 《저를 몰아내지만 말아주세요.》¹³⁸

그러나 한 가지 대답만은 꼭 듣고싶었다. 《나는 동무를 사랑합니다.》 혹은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세요.》 이 말을 듣는다면 금숨은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았다.… 그 말만 듣는다면

¹³⁷ 최영학, 『우리의 집』, pp. 39~45 참조.

¹³⁸ 림원춘, “눈물젖은 숲,” 『조선문학』(1996.11), p. 77.

때없이 찾아오는 외로움과 고독을 모두 웃으며 이겨낼 수 있
으리라.¹³⁹

《왜 왔소?》 두억형이 나직이 물었다. 《동문 어쩔… 제가
여자라는걸 한번도 생각해 본적이 있어요?》 《뭐요?!》 《어
떻게 제가 동무의 큰 심장에 따라 설 수 있겠나요. 때로는 유혹
에도 쉽게 빠질수 있는게 처녀시절이랍니다. 그런데 동문 제가
어떤 수렁에서도 혼자 헤여 나올수 있다는거죠?》 《?!》 《너
무해요, 너무. 손 한번 내밀기가 그렇게도 비싼가요?》¹⁴⁰

그러나 1995년 이후 발표된 작품들 가운데는 새 세대 여자들이
사랑과 결혼에 있어 이전에 비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
이는 작품이 드물지 않다. 1999년에 발간된 장편소설 『열망』에서
는 가열공 노동자 옥련이 첫 눈에 마음에 든 새 세대 남자 철룡의
사랑을 “기어이 쟁취하고야말리라는 일념으로” 적극적, 능동적으
로 철룡에게 다가간다. 옥련은 철룡과 가까워지기 위해 그에게
팔씨름을 제의하는가 하면 집까지 데려다 줄 것을 청하기도 한다.

옥련은 새물거리며 재촉했다. 그에게는 팔씨름에서 이기고
지는것이 벌써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보고 싶었으며 그의 온기를 감수해보고싶은 마음이 더
불같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을 모르는 철룡은 의연히 한자리
에 선채 다가올념을 내지 않았다. 처녀와 팔씨름을 한다는것이
너무 당치 않고 어이없게 여겨져 그러는게 분명했다. 그러
나 옥련은 그대로 물러날수 없었다. 그는 어느새 씩하니 달려
가 철룡의 팔소매를 잡고 쇠의자에도 끌었다. …비록 석달도
되지 않은 나날이었지만 옥련의 불같은 마음은 철룡을 자기
의 세계에 깊숙이 끌어들이는데 모자라지 않았다. 저녁교대
를 마치고 퇴근할 때마다 철룡은 옥련을 그의 집까지 데려다

¹³⁹ 석남진, “한 녀교원의 사랑,” 『조선문학』(1996.9), p. 46.

¹⁴⁰ 공승길, “방파제,” 『조선문학』(2002.9), pp. 41~42.

주군하였다. 그것이 이제는 두사람사이에 어길수 없는 일과 처럼 되어버렸다. 그것도 옥련이가 먼저 요구하여 그렇게 된 것이였다.¹⁴¹

그런가 하면 2005년에 발간된 장편소설 『우리의 집』에서 새 세대 여자 혜성은 결혼을 약속한 인혁이 외교관이 되고자 하는 자신의 희망과는 달리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건설일군으로 자신의 대를 이어주기를 바람에 따라 갈등을 겪고 있는 데 대해 인혁의 태도가 분명하지 않음을 비판하며 그녀의 아버지를 뒤이어 외교관이 되어 주기를 적극 권한다. 또한 혜성은 인혁을 집으로 데려가 부모에게 소개시키며, 인혁을 만난 그녀의 부모 역시 인혁이 외교관이 될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태도를 보인다.

소설을 통해 보면 북한의 새 세대 여자들은 선행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결혼 적령기를 의식하는 편이다. 또한 이들의 부모들도 딸의 결혼이 늦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그 때로 말하면 금숙이 혼사문제 때문에 친척들과 주위사람들의 시달림을 받을대로 받던 때였다. 언제까지 그렇게 기다리려는가, 청춘이 영원한 것인줄 아는가 하고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이제는 31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혼기>가 펴 지났다.¹⁴²

그는 명애가 이 겨울에 들어 서면서 왜 더 공장일을 뜨직해하는가를 알고 있었다. 이해도 이제는 거의다 갔다. 새해가 잡히면 명애도 24살이 된다. 그는 키가 쪽 빠지고 나무랄데없이 잘 생긴 처녀였다. 그의 어머니는 언제부터인가 딸에게 고급기능공이 될 필요가 없음을 자꾸 설교하였다. 인물 잘난 처

¹⁴¹ 김문창, 『열망』, p. 187.

¹⁴² 석남진, “한 녀교원의 사랑,” pp. 43~46.

녀여서 좋은 혼처들이 많이 나서는데 괜히 고급기능공이 돼
가지고 공장을 뜨면 시비질이 많다느니...¹⁴³

처녀는 일숨씨도 곱고 얼굴생김새도 별반 나무랄데가 없는데
왜 그런지 대상이 나타나지 않아 30이 거의 되어서야 약혼을
했다는 처녀였다. 그래서 이제라도 혹시 총각쪽에서 파혼선
고라도 해오지 않을까 처녀가 걱정한다는 소리를 들은 생각
이 났다.¹⁴⁴

그러나 새터민들에 따르면 식량난 이후 북한에서도 30대 미혼
여성이 드물지 않으며 독신여성을 천시하는 사회적 통념에도 불
구하고 여자들 사이에 독신 선호 경향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고도
한다. 이와 같은 경향은 북한 문학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
예로 단막희곡 『삶의 노래』에서 미혼의 연구사 영희(38세)의 연
구조수로 일하는 새 세대 여자 수연(28세)은 자기가 혼기를 놓치
게 될까봐 걱정하며 시집가라고 원하는 연구사에게 결혼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영희: 수연이, 너 이젠 시집을 가야지?

수연: 어머니. 호호호... 연구사동진 갑자기...

영희: 애, 웃지마. 난 이리다가 네가 정말 나처럼 혼기를 놓치
게 될까봐 걱정이야.

수연: 아이, 연구사동지야 애인이 계시지 않나요? 꼭 결혼을
하구 가정을 이뤄야만 할까요? 뭐, 나도 이제...¹⁴⁵

단편소설 『녀전사의 길』에서는 새 세대 여전사가 그의 상관인
여소대장과 과거에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꽃다발을 바쳤던 한 여

¹⁴³ 박찬은, “복주머니,” p. 14.

¹⁴⁴ 로정법, “시대의 발걸음,” 『조선문학』(2001.7), p. 55.

¹⁴⁵ 김형길, “단막희곡: 삶의 노래,” 『조선문학』(2001.9), p. 43.

성소대장을 회고하면서 여자는 꼭 시집을 가야 하는가에 의문을 던지며 시집을 가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너잔 꼭 시집가야 하나요?》 《무슨 똥판지같은 소릴…》
《아니예요. 그 소대장동지도 말이예요. 남자였더라면 지금도
부대에 있었을 거예요. 음-난 시집 안갈래요. 제대두 안되
구… 할머니 될 때까지 사적포를 지킬래요. 그래서 꼭 장군님
을 뵈올래요. 소대장동지도 그러자요. 예?》 《그래그래… 할
머니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포에 장군님을 꼭 다시 모시자
요》¹⁴⁶

선행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1995년 이후 발표된 소설에서도 새 세대들은 자유롭게 이성을 만나 연애하며 연애는 반드시 결혼으로 이어진다. 이들은 서로 만나 사랑하고 결혼에 이르는 과정에서 다른 이성을 만나거나 소개받지도 않는다. 이들에게 있어 “사랑과 결혼은 동일한 것”이며 한 사람이 여러 이성들과의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한 예로 장편소설 『열망』에서는 결혼을 약속한 새 세대 남자가 아무런 예고 없이 외적 조건이 좋은 다른 여자와 결혼해 버린 데 대해 그와의 결혼을 약속했던 새 세대 여자의 직장 동료들이 “당위원회”에 찾아가 사실을 밝힐 것을 그녀에게 촉구하며 격분한다.¹⁴⁷ 그러나 알려진 바에 따르면 1980년대 말 이래 북한의 새 세대들 사이에서 사랑과 결혼을 별개의 문제로 하여 처신하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으며, 북한에서 이름 있는 한 시나리오 작가도 이러한 풍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¹⁴⁶ 조근, “녀전사의 길,” 『조선문학』(1996.3), p. 26.

¹⁴⁷ 김문창, 『열망』, p. 70.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영화에 다 담지못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과 결혼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극히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사람들 속에는 사랑과 결혼을 동일한 것으로가 아니라 서로 별개의 문제로 간주하면서 사랑은 사랑대로 결혼을 결혼대로 분리시켜 생각하는 현상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랑>은 참다운 사랑을 모르는 부르조아적 인생관의 산물이며 이런 사람은 일생토록 참된 사랑의 재미를 느낄수 없을것입니다.¹⁴⁸

북한당국이 예전과 달리 새 세대들의 자유연애에 대해 관대해지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남녀관계에 대한 보수적 관념이 점차 희박해짐에 따라 새 세대들 사이에서는 자유연애와 연애결혼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에서는 여자들의 이성교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며 여자들의 순결을 절대적으로 강조한다. 한 예로 단편소설 『갈매기』에서는 새 세대 청년 태성이 여러 명의 동료들이 있는 데에서 평소 마음에 둔 여자의 이름을 부르며 속마음을 드러내자 당사자인 새 세대 여자 명애는 몹시 당혹해 한다.

선원들이 그에게 수고했다고 말을 하자 남태성은 뜻밖에도 <<홍명애가 곁에 있으면 힘이 난다>>고 해서 사람들을 웃기였다. <<암, 그렇구 말구, 사랑이란 억센 힘을 낳는거야.>> <<청춘이란 그래서 좋은거지.>> 그 순간 홍명애는 부끄러워 얼굴이 훗훗 불 타올랐다. 많은 동무들앞에서 그런 말을 하면 내가 응할줄 아는가 봐. 그런 말은 남자에게 허물될것이 없다 쳐도 처녀인 나에게에는 왜 허물이 되지 않겠는가.¹⁴⁹

소설에서 북한 새 세대들의 만남, 사랑과 관련해 특기할 만한

¹⁴⁸ 장유선, “사랑과 결혼에 대하여 하고싶은 말,” 『조선영화』(1993.9), p. 47.

¹⁴⁹ 한원희, “갈매기,” 『조선문학』(2000.12), p. 64.

것들 가운데 하나는 선행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새 세대들은 외
적조건만 보고 주위사람의 소개로 이성을 만나는 것에 대해 불편
함을 느끼며 거부해 한다는 것이다. 한 예로 단편소설 『사랑은 연
분이 아니다』에서는 기계공장의 현장기사로 일하면서 항상 영예
의 혁신자로 꼽히어 많은 청년들로 하여금 짝사랑으로 애를 태우
게 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한 새 세대 여자가 공장대학 시절의 담
임교원이 한 청년을 소개해 주려하는데 대해 몹시 불편해 한다.

나는 놀래기보다 아연해지고 말았다. 진정한 사랑의 감정이
없이 얼굴이나 직업을 보고 대상자를 선택하는 그런것을 나
는 경멸한다. 대방에 대한 아무런 파악도 없이 어떻게 한순간
에 만나보고 인생문제를 론할수 있단 말인가. 나는 자리를 뜨
려다가 선생님의 성의를 무시하는가싶어 그냥 자리에 앉아있
었다.¹⁵⁰

단편소설 『넓어지는 땅』에서도 새 세대 처녀는 “남의 소개로
생면부지의 남자와 마주 선다는” 것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며
거부감을 느낀다.¹⁵¹ 중편소설 『푸른과원』에서는 새 세대 처녀 은
경이 외숙모가 “멋쟁이 총각”을 만나보라고 하는 데 대해 그 남
자가 “훌륭한 총각”일 거라고 생각은 하나 선보는 것 자체를 꺼
려한다.

은경은 생글생글 웃기만 했다. 말을 들어 보면 훌륭한 총각이
틀림 없지만 생판 처음보는 남자와 마주 앉아 일생문제를 의
논한다는것 자체가 맘에 들지 않았다.¹⁵²

¹⁵⁰ 송영금, “사랑은 연분이 아니다.” 『청년문학』(1999.9), p. 39.

¹⁵¹ 윤경찬, “넓어지는 땅,” 『조선문학』(2001.10), p. 47.

¹⁵² 엄성영, 『푸른과원』, p. 33

북한 소설에서는 집밖의 특정 장소에서 남녀가 정식으로 맞선
을 보는 대목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찾
아가 여자의 선을 보는 대목은 있다.¹⁵³ 단편소설 『질어가는 단풍』
에서 산림지도원인 새 세대 여자 선경의 어머니는 낯선 총각이
예고도 없이 딸을 선보기 위해 집으로 찾아온 데 대해 기뻐하며
퇴근하여 집에 온 딸에게 옷을 갈아입고 화장도 하고 나오도록
재촉한다.

우리 선경이가 곱긴 곱긴 곱구나. 목이 쭉 빠진게. 사실은 총각
이 네 선을 보려고 왔다. 얼마나 미끈하게 잘 생겼는지. 지방건
설총국인가 하는곳에 있는데 글썄 너를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
찾아왔다는구나. 원 저런 복덩이가 제발로 굴러들다니...¹⁵⁴

나. 배우자조건

소설에서 긍정인물로 등장하는 새 세대 남자가 바라는 배우자
조건은 남자의 일과 포부, 지향에 대한 이해와 헌신, 높은 이상과
지적 수준, 순결하고 얌전하고 성실한 마음씨, 매력적인 아름다운
용모 등이며, 특히 남자의 일과 포부, 지향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헌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가 하면 새 세대 남자는 자기
일에 충실하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사회의 세포인 가정
을 튼튼히 다지고 나아가 사회와 혁명에 이바지 할 줄 아는 여자
를 배우자감으로 선호한다. 전통적인 집안일과 직업 활동을 여유
있게 병행해 나가며 가정은 물론이고 사회와 혁명에 헌신할 수

¹⁵³ 새터민들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남자가 여자 집으로 찾아가 선을 보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라고 한다.

¹⁵⁴ 전송희, “질어가는 단풍,” 『조선문학』(1998.6), p. 44.

있는 여자라야 한다는 것이다. 중편소설 『푸른과원』에서 긍정적인 물로 등장하는 명진은 새 세대남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배우자 조건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흔히 한가지 일에 전심하는 사람들이 그런것처럼 그도 사랑이 어떤것이라는것을 깊이 알지 못했고 구태여 깊이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 총각이라면 누구나 할수 있는 생각, 처녀란 외모도 마음도 다 아름다와야 한다는것, 특히는 자기 사업에 대한 참다운 리해와 그 지향에 도움이 될 자질과 성품을 지녀야 한다는 극히 소박한 견해였다.¹⁵⁵

장편소설 『열망』에서는 제대군인 당원이면서도 대학추천을 포기하고 공장 노동자 생활을 자청한 새 세대 청년 철룡이 배우자 조건으로 직업보다는 성격을 더 중요시한다. 따라서 그는 어머니가 소개하는 의사 직업을 가진 여자를 마다하고 “씨원씨원하구 생활에서 진취성이 있는 여자”를 선택한다.¹⁵⁶

또한 소설에서 새 세대 남자들은 여자의 ‘수줍음’을 아름답게 보며 매력을 느낀다. 중편소설 『열매는 봄날에』에서 속으로 좋아하는 남자와 이중창을 하게 된 새 세대 여자 영숙이 몹시 수줍어 하자 이를 본 사람들은 영숙의 수줍음을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영숙은 빨개진 얼굴을 한손으로 가리우며 부끄러워 어쩔줄 몰라 했으나 그 모양이 더욱 눈길을 끌었다. 그래서 처녀들의 수줍음은 가장 독특한 미라고 하는지도 모른다.¹⁵⁷

¹⁵⁵ 엄성영, 『푸른과원』, p. 85.

¹⁵⁶ 김문창, 『열망』, p. 189.

¹⁵⁷ 박용전, 『열매는 봄날에』, p. 146.

북한 소설을 통해보면 새 세대 남자들은 여자의 외모를 중시하는 편이다. 긍정적인물로 등장하는 새 세대가 좋아하는 여자들은 모두가 아름답고 예쁜 외모를 지니고 있으며 비슷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를 보면 이들은 늘씬하고 호리호리한 균형 잡힌 몸매, 가름한 얼굴, 달걀형의 해맑은 얼굴, 우윳빛 같이 맑은 얼굴, 부드러운 눈매에 긴 속 눈썹, 윤기 흐르는 머리카락, 얇전히 다문 입과 부드러운 입술, 반듯한 이마, 보름달같이 환한 발그레한 볼, 별에 그을리지 않은 해말간 하얀 살결, 단정한 몸가짐과 옷차림, 아래로 살포시 드리운 부드러운 눈길, 호수같이 그윽한 정서를 담은 맑은 눈동자 등으로 그려져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묘사된 외모로만 볼 때 북한의 새 세대들은 보기에 너무도 순결하고 연약하여 자신들로 하여금 보호본능을 느끼게 하는 여자에게 호감을 갖는 것으로 보이며 다음의 예문들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가름한 얼굴에 반짝이는 눈, 자그마한 입술, 가늘사한 목, 그 어테를 보아도 한창 물먹은 꽃처럼 애되고 연약하게만 느껴지는 처녀…¹⁵⁸

서정님은 성악가로서의 재능이 엇보일뿐만아니라 그 얼굴생김새 또한 무척 눈길을 끄는 처녀였다. 숲속의 옹달샘같은 그윽한 눈, 상큼한 코, 어린애의 살결마냥 뽀얀 얼굴, 화가가 아름답게 다듬어놓은듯 한 모습이였다.¹⁵⁹

송이는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잘 생긴 처녀는 아니였다. 윤기 흐르는 쌍태머리, 언제 봐야 정기도는 까만 눈동자, 살결이 맑은 가름한 얼굴, 고집스러워 보이는 작은 입…호리호리한 몸매는 균형이 잘 잡혀 있으면서도 어딘가 가냘파 보였다.¹⁶⁰

¹⁵⁸ 로철수, “매혹,” p. 73.

¹⁵⁹ 류정옥, “금대봉마루,” p. 52.

¹⁶⁰ 김청수, “금강내기 바람,” 『조선문학』(2002,8), p. 56.

위와 같은 새 세대 남자의 배우자 조건은 선행연구에서도 다르지 않게 나타났다. 그러나 2005년 발간된 장편소설 『우리의 집』에서는 주역으로 등장하는 새 세대 남자 인혁이 사랑하는 새 세대 여자 혜성의 외모가 선행연구에서와는 크게 다르게 그려져 있다. 혜성은 북한이 공식 지향하는 ‘조선녀성’의 모습이 아닌 서구형에 가까운 외모를 지닌 여자¹⁶¹로 묘사되어 있으며 지나가는 여자들은 그녀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본다.

윤덕준은 늙은이다운 호기심으로 처녀를 살펴보았다. 얼굴도 몸매도 돌보일만큼 아름다왔는데 그보다 더 사람들의 눈을 끄는것은 그의 옷차림이었다. 봄날에 맞는 밝은 색깔의 꼭맞는 의복이며 굽높은 반짝거리는 신발이며 외국영화에서나 보았던듯 한 중절모 비슷한 모자며 손에 든 황금빛 사슬이 달린 가방이며… 한마디로 말하여 어느 외국영화에서 튀어나온듯한 화려한 옷차림이었다. …지나가던 처녀들이 그 처녀의 옷에서 부러워하는 시선을 떼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 질이나 맵시가 대단한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수 있었다. 한 늙은 녀인은 몇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처녀의 옷차림을 흘린듯이 멍하니 바라보고있었다. 그만한 나이의 딸을 가진 녀인일것이다. 자기 딸에게도 그런 옷을 입혀 내세우고싶은 부질없는 공상에 빠져있는것이 틀림없었다.¹⁶²

1995년 이후 발표된 몇 편의 소설작품들에서는 영예군인 여성과 결혼하는 것으로 당의 뜻을 받드는 새 세대들도 등장한다. 단편소설 『녀전사의 길』에서는 한 새 세대 청년 군관이 군복무중에

¹⁶¹ 연구자가 2006년 5월 평양에서 만난 20대 후반의 안내원 여자는 아주 큰 키에 서구형의 세련된 몸매와 태도를 지녔으며 옷차림과 장신구 등도 돋보였다. 평양 거리를 지나는 여자들의 옷차림과 태도도 북한이 공식 지향하는 그것과는 달랐으며, 2002년에 연구자가 평양에서 본 여자들과는 다른 걸모습이었다.

¹⁶² 최영학, 『우리의 집』, pp. 7~8.

사고로 하반신신경이 마비된 여전사를 사랑하며 결혼을 청한다.¹⁶³ 단편소설 『금대봉마루』에서는 한 새 세대 청년이 군복무중에 두 다리를 잃어 영예군인이 된 여성을 사랑한다.¹⁶⁴

북한소설들에서는 평양에서 부모와 함께 살며 대학공부까지 마쳤으나 당과 수령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농촌, 또는 탄광에 자원하여 어려운 삶을 사는 새 세대 여자들이 드물지 않게 등장한다. 그리고 평양에서 내려온 새 세대 여자는 지역 남자들의 ‘경외심’을 자아내며 이들의 큰 관심을 모은다. 단편소설 『차번호 《만-하나》』에서 평양처녀와 결혼을 약속한 새 세대 청년은 그 기쁨을 일기에 다음과 같이 적어 놓았다.

내가 지금 제일 기쁜것은 평양처녀를 한생의 길동무로 삼은 것이다. 생각해 보면 나는 이미 펍 오래전부터 평양처녀를 반려로 삼고 남다르게 일해 보려 한것 같다. 그러니만큼 이것은 요즘 일부 청년들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진 생활때문에 먹을 알을 노려 수도처녀를 택하려는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하기에 지금 내 마음은 푸른 하늘을 통채로 그려안은것처럼 환희롭기만 하다.¹⁶⁵

소설에서 긍정인물로 등장하는 새 세대 여자가 바라는 배우자 조건도 새 세대 남자와 마찬가지로 거의 완벽에 가깝다. 선행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소설에서 새 세대 여자들은 건장한 체격에 잘 생긴 얼굴, 의협심 강한 사나이다운 성격, 명석한 두뇌, 비상한 포부와 헌신의 열정, 용기 등을 지닌 지성적이고 탐구심 강한 미래지향적인 남자를 배우자감으로 선호하며, 특히 당과 수령의 뜻

¹⁶³ 조근, “녀전사의 길,” pp. 23~32.

¹⁶⁴ 류정옥, “금대봉마루,” pp. 51~60.

¹⁶⁵ 김창수, “차번호 《만-하나》,” 『조선문학』(2000.10), p. 77.

을 관찰하고자 하는 남자의 지향과 포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한 소설에서 당의 공식 가치지향을 반영하는 새 세대 여자의 배우자 조건에서는 당과 수령의 뜻 관찰, 또는 당과 수령의 은덕과 배려에 대한 보답에 의의를 둔 영예군인에 대한 ‘의무감’이 중요한 요소로 강조된다.

영예군인들을 내세워주고 아껴주는것이 우리 당의 의도인데
내가 그를 안이상 어떻게 외면할수 있겠는가.¹⁶⁶

한편 1955년 이후 발표된 소설들에서 사랑과 결혼의 의의와 관련해 능동적·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새 세대 여자들은 배우자 조건에 있어서도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이지 않다. 장편소설 『열망』에서는 가열공 노동자 옥련이 조건은 아주 좋으나 여자의 직업을 이해하지 못하고 싫어하면서도 오직 미모에 반해 결혼하기를 원하는 충각을 비판하며 결혼을 거부한다.

«상대해보니 시시해요. 주대도 없구 신념도 없어요. 아버지 덕분에 대학은 졸업했지만 제 손으로 제 운명을 개척할 사람이 못돼요. 미모에 반해가지고 살겠다는 그런 사람과는 억만금을 준대도 싫어요. 참말 시시해서… 글썄 자기와 결혼하면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가열공을 안시키고 외화벌이기관이 나 다른데로 옮겨주겠다고 않아요. 그래서 다시는 찾지 말고 탁 쓰아주고 돌아섰어요.»¹⁶⁷

또한 『열망』에서는 가열공 처녀 옥련의 어머니도 제대군인인 딸이 당원이 되자 딸의 배우자감을 고르는 데 있어 당당하게 처

¹⁶⁶ 정형주, “점중화,” 『조선문학』(1995.2), p. 54.

¹⁶⁷ 김문창, 『열망』, p. 138.

신하기로 하며 딸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한다. 배우자감으로 좋은 조건을 갖추었으니 선택당하기보다는 당당하게 “새서방감”(신랑감)을 선택하라는 것이다.

《이젠 나두 사위감을 큰 소리치며 고를테다. 너야 인물도 이만저만 아니지. 군대에 갔다왔지, 당원까지 됐겠다. 그러지 못할게 없지 뭐. 너두 탕탕 튀겨라…》¹⁶⁸

1995년의 선행연구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있어 북한 새 세대의 배우자 조건은 공식 가치지향과 달리 매우 현실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면 새 세대들은 배우자의 출신성분과 능력, 부모의 권력배경과 경제력 등을 중시하며 새 세대 남자들은 특히 여자의 외모를 기본으로 꼽는다. 또한 식량난, 경제난이 악화됨에 따라 새 세대들은 당적배경이 없더라도 돈이나 물품을 다루는 직업을 가진 배우자를 선호하며 새 세대 여자들은 특히 평양에 거주하는 남자를 배우자감으로 선호한다. 이와 같이 당의 뜻을 받들기보다는 자신의 편의와 안락위주로 배우자를 선택하고 도시 거주자를 선호하는 새 세대의 배우자 조건은 1995년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알려지고 있다.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이 심화됨에 따라 새 세대들 사이에 현실적인 조건을 중시하는 경향이 보다 더 확산되었으며 최근 사회적으로 소득에 따른 빈부격차가 발생한 이후로는 특히 경제적인 조건을 가장 중요시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새 세대들의 부모 역시 자녀들이 위와 같은 현실적인 조건을 갖춘 배우자를 만나 편안하고 안락한 결혼생활을 하기를 바란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한 새터민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¹⁶⁸ 위의 책, p. 195.

…우리 사위, 내가 사실 맘이 없어서 안 보내려 그랬는데…
 당원이고, 집안이 좋고, 성분이 좋은 데로 시집가야지 살지,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좋은 데로 가야지. 내가 좋아서 사는가,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¹⁶⁹

위와 같은 실태는 북한 소설에서도 잘 엿볼 수 있다. 장편소설 『우리의 집』에서 새 세대 여자 혜성의 어머니는 딸의 결혼문제와 관련하여 남편에게 다음과 같이 불만을 토로한다. 곱게 키운 딸이 고생스러운 결혼 생활을 해서는 안 되며 고생하지 않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직업을 가진 배우자를 만나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혜성일 어떻게 길렀어요? 이 에미와 같은 설음이나 불행을 모르게 하자고 결심하고 키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녀자란 시집가서 고생하지 말아야 해요. 당신은 모르지요? 녀자들의 고생을…» …«그래요! 자식이 고생안 하고 잘살게 해줄 생각을 안하면 그게 무슨 부모예요? 당신도 아는 것처럼 지금 모두 <고난의 행군>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알아요? 난 혜성이한테 그 고생만은 못시키겠어요!» …«…인혁이 저 사람네 집형편은 또 어떻게요? 아버지가 20년나마 시당비서하면서 자식들 집문제도 풀지 못해서 옛날 세칸짜리 집에다 두 아들을 살림시켜놓구 갔어요. 혜성이가 고생도 못해본게 그런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겠나요?»¹⁷⁰

장편소설 『열망』에서 새 세대 남자 필훈의 아버지는 외적 조건이 좋은 새 세대 여자와의 결혼을 아들에게 강요하며 끝내는 물리적으로 결혼을 성사시킨다. 아들과 결혼한 여자는 빼어난 미모를 지니었으며 의대를 졸업하고 호텔의사로 근무하고 있다. 또

¹⁶⁹ 서울대 통일연구소, 『새터민의 사회문화적응과 심리적 통합』, p. 84에서 재인용.

¹⁷⁰ 최영학, 『우리의 집』, p. 284.

한 그녀의 아버지는 중앙기관의 부총국장이며 필혼이 결혼하게 되면 “불편이 없는 간부주택에 아들처럼 첫날부터 들어가 살 수 있는” 조건을 지닌 여자이다.¹⁷¹ 중편소설 『열매는 봄날에』에서는 아들이 좋아하는 새 세대 처녀의 집안배경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녀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것을 권한다.

《애야, 영숙이만은 참한 애지. 허지만 그 집 꼴을 봐서라도 잘 생각해 보려무나.》¹⁷²

단편소설 『따뜻한 꿈』에서는 아들이 사랑하는 새 세대 여자가 현실적으로 사고할 줄 모른다는 이유로 부모가 결혼을 반대하며 아들이 보다 조건이 좋은 여자와 선보기를 권한다. 보다 좋은 조건이란 여자가 좋은 직업을 가졌으며 인물도 좋다는 것,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학교 졸업생이지만 그 여자의 집이 아들의 앞날을 받쳐 줄 수 있다는 것”이다.¹⁷³ 또한 단편소설 『군복입은 사람들』에서는 비행사를 사위로 맞고 싶어 하는 어머니의 바람과는 달리 새 세대 딸 명해가 영예군인과 결혼하겠다고 하자 그녀의 아버지 경진이 심한 충격을 느낀다.

경진은 응대를 할수 없게 목이 메었다. 후두둑… 갑자기 심한 부정맥을 느끼었다. 벽차고 두려웠다. 왜 이러는가? 명해가 눈먼 청년과 배필이 될수 있다는 넘려때문인가? 그 문제가 나를 이처럼 진정할수 없게 만드는 그렇듯 커다란 희생이라

¹⁷¹ 김문창, 『열망』, p. 70.

¹⁷² 박웅전, 『열매는 봄날에』, p. 63.

¹⁷³ 최련, “따뜻한 꿈,” 『조선문학』(2002.1), p. 58.

도 된단 말인가?¹⁷⁴

단편소설 『금대봉마루』에서는 자신이 두 다리가 없는 영예군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남자를 의식적으로 멀리 하는 새 세대 여자에게 후배 영미는 바보 같은 행동이라며 안타까워한다.

《언닌 바보야. 그렇게 좋은 사람을, 다시 없을 그런 행운을
떨어뜨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더구나 평양사람이 아니야. 품
놓고 애쓰며 찾아도 그런 자리는 쉽게 나타나지 않을거야.》
영미는 아쉽고 분해서 제깬에 울먹거리었다.¹⁷⁵

2. 부모관

선행연구에서 북한 새 세대의 부모관은 ‘새 세대가 부모와 자식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주로 ‘효(孝)’를 중심으로 논하였다.¹⁷⁶ 효의 개념은 북한의 사전적 정의에 따라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잘 섬기는 일 또는 그렇게 하는 자식의 도리”¹⁷⁷라고 규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분석 자료로 활용한 소설들에서 긍정인물로 그려진 새 세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이들은 부모의 노후봉양을 부모의 사랑과 기대에 대한 보답으로, 자식 된 도리로 당연시하였으며,

¹⁷⁴ 조인영, “군복입은 사람들,” 『조선문학』(2002.3), p. 40.

¹⁷⁵ 류정옥, “금대봉마루,” pp. 58~59.

¹⁷⁶ 최재석 교수에 따르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파악하려면 무엇보다도 효를 이해하는 것이 그 첩경이며 효란 자식의 부모에 대한 일방적인 관계만을 지칭하는 것이다. 최재석, “한국가족의 전통적 가치의식,” 『아세아문제연구』 제7권 제2-4호 (서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4), p. 20.

¹⁷⁷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 2』, p. 1000.

연로한 부모에 대해 연민과 감사의 정을 느꼈고, 부모에 대한 존경과 공지, 부모·자녀간의 혈연을 중시하여 부모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 애썼다. 이들은 결혼이 늦어져 연로한 부모에게 손자손녀를 안겨드리지 못하는 것도 불효로 생각하고 안타까워했다. 또한 이들은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도 부모의 뜻을 존중하였으며 돌아가신 날을 기억하여 성묘를 하는 등 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예를 표하였다. 이와 같은 새 세대들의 부모관은 1995년 이후의 소설들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단편소설 『낮은 미래에 산다』에서 한 새 세대 청년은 군내 외국어경연에서 1등을 해 외국어 대학에 추천을 받았으나 아들인 자신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업을 달성해 주기를 원하는 어머니의 뜻에 따라 김일성종합대학 지질학부를 선택한다.¹⁷⁸ 단편소설 『금대봉마루』에서 한 새세대 처녀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전사답게 군사복무를 잘하고 돌아와 다시 우리 탄부들을 위해 노래를 부르거라》”한 아버지의 당부를 유언으로 받아들이고 영예군인이 되어서도 탄광에서 점수원으로 일하며 탄부들을 위해 노래를 부른다.¹⁷⁹ 중편소설 『푸른과원』에서는 고향에 내려간 미혼의 새 세대 청년 명진이 자기의 어머니와 함께 있는 친구의 아들을 보며 어머니에게 손자를 안겨드리지 못하는 데 대한 죄송함으로 마음이 무겁다고 토로한다.

《…나는 출장길에 고향집에 잠깐 들린적이 있었소. …어머니는 안 계시구 낯선 사내애가 놀이감으로 고층살림집을 짓고 있더라 말이요. …그때 어디로 잠깐 나갔던 어머니가 돌아 오셨소. 여간 반가와 하시지 않더군. 내가 사내녀석을 가리키

¹⁷⁸ 한형수, “낮은 미래에 산다,” 『조선문학』(2005.2), pp. 46~47.

¹⁷⁹ 류정옥, “금대봉마루,” pp. 51~60.

며 누구냐고 물었더니 옆집에 사는 동길의 아들이라는거요.
 <허허, 그래두 그 녀석이 심심할 때면 내곁에서 곧장 말동무
 가 되여주군 한단다. 잔심부름두 해주구.> 어머니의 설명이
 였소. 나는 금시 입이 굳어 지고 말았지. 동길이는 나의 소꿉
 동무였다오. 연구소로 돌아 오는 내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
 소.》¹⁸⁰

그런가 하면 단편소설 『보통사람들의 이야기』에서는 평양이
 고향인 새 세대 청년 김석이 외진 산골로 내려가 사망한 전우의
 어머니를 모시고 친부모를 대하듯 효도를 한다.

김석의 고향은 평양이었다. 부모형제들과 친척들은 모두 그
 곳에서 살고있었다. 김석은 부모들이 기다리고있는 평양으로
 가지 않고 홀로 있는 전우의 어머니를 찾아 하루에 기차가 한
 번밖에 서지 않는 한적한 산골로 왔던것이다.”¹⁸¹

북한 소설에서 등장하는 새 세대들은 부모에 대해 불손하게 말
 하거나 행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모의 뜻, 또는 언행이 당의 공
 식 가치지향을 거스르는 경우에는 그에 저항하며 부모에게 항의
 하기도 한다. 또한 소설에서 일부 새 세대들은 부모가 육체노동
 을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그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한다. 단편소
 설 『벼이삭』에서 좋아하는 여자친구와 함께 길을 걷다가 거름을
 싣고 오는 아버지와 마주치게 되자 몹시 당황한다.

각양각색의 자동차가 오가고 사람들로 붐비는 네거리 북판에
 서 진거름을 싣고오는 아버지를 보는것은 마을에서 보는것과
 전혀 감정이 달랐다. 어쩔바를 몰라 서성거리는 사이에 지적

¹⁸⁰ 엄성영, 『푸른과원』, pp. 98~99.

¹⁸¹ 김교섭, “보통사람들의 이야기,” p. 61.

에 다가왔다. (아, 야속하구나.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공교롭지 않은가.) 그는 먼데를 보는척 판전을 피웠으나 온 신경은 아버지한테로 쏠렸다. 제발 그냥 지나쳤으면, 못 본척해줬으면...¹⁸²

새터민들에 따르면 실제로 있어서도 선행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새 세대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며 식량난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모 모시기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고 한다.

북한에선 그렇게 못살고 먹을 거 없어도 부모들 모시는 건, 그건 상당히 본받을만한데...¹⁸³

또한 새터민들은 북한 새 세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들이 나이 든 세대들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북한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을 존경해요. 왜? 그 분들 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아는 것도 많고 우리 배울 점도 많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근데 한국은, 나이 젊은 게 ভাল 것처럼 아는가 봐요. 나이 들어 가면은 웬지 죄지는 것처럼 뭐, 웬지 싫어하고, 사람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젊어지고 싶어하고 막 할아버지 할머니들 존경하고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늙었다고 뭐 그런 거, 전 너무 이상하더라고요(여 1974년생).¹⁸⁴

¹⁸² 리태운, “벼이삭,” 『조선문학』(1995.11), p. 43.

¹⁸³ 최00(67세 여성, 1996년 탈북), 2006년 5월 13일 면접.

¹⁸⁴ 서울대 통일연구소, 『새터민 사회문화적응과 심리적 통합』, p. 238에서 재인용.

북한 소설에서도 새 세대들은 노인을 만나게 되면 아주 공손하게 대하여 부모에게 하듯 편안하게 따뜻하게 모신다. 또한 노 세대들과 의견을 달리할 때에도 새 세대들은 무례하게 굴지 않으며 노 세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애써 마음을 쓴다. 소설에서는 노 세대들 역시 새 세대들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강요하기보다는 이들을 격려하며 바로 잡아주려고 애쓴다. 이는 중편소설 『푸른과원』에서 잘 그려져 있다. 이 작품에서는 과수재배 방법을 놓고 새 세대 연구사 신명진과 노 세대 분장장 박두섭이 세대간 갈등을 겪는다. 그러나 이들의 갈등은 서로를 적대시하거나 외면하는 양상으로 그려지지 않는다. 갈등을 겪으면서도 애써 서로에 대해 마음을 쓴다. 새 세대 신명진은 과수재배방법에 있어 구세대의 구태의연합을 벗기어 주는 것이 구세대에 대한 새 세대의 의리이며 도리라고 생각한다. 박두섭은 자기네 세대들이 새 세대들의 내일을 위해 사과나무를 심고 가꾸어 온 데 대해 자긍심을 나타내는 한편 새 세대 연구사 신명진을 격려하며 그의 노고를 높이 평가한다. 그리고 박두섭은 노 세대와 같은 시련을 겪지 않아 시행착오를 겪는 새 세대들을 바로 잡아주는 일은 자기와 같은 노 세대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처음으로 맞닥들린 깨바위골호원문제가 이제 보니 단순한 생산기술적 문제인것이 아니라 심각한 인간문제라는데 은근히 놀래지 않을수 없었다. 그것은 이미 청계분장으로 내려 오던 그날에 벌써 자기 어깨우에 지워 진 운명이기도 했다.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명진의 가슴속에서는 새로운 분발심이 용암처럼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분장에 올라 간 박두섭분장장이 내려오면 마음을 털어 놓으리라. 구태의연합 과수재배방법으로부터 과학과 기술이 도달한 오늘의 과수재배방법으로 이끌어 주리라. 이것이 두섭이네 세대에 대한 새

세대의 의리이고 도리가 아니겠는가.¹⁸⁵

연구사와 같은 젊은 세대는 비록 새로운 지식에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역세여 졌지만 늙은 세대가 걸어온 길은 걸어 보지 못했다. 때문에 그들은 제단에는 일을 잘하고 빨리 하자라는 것이 본의 아니게 막다른 골목으로 뛰여 들수 있고 자연과 사회 현상의 준엄한 객관적법칙들을 제멋대로 해석하다가 일을 잡치기도 한다. 이 젊은 세대들을 누가 바로 잡아 주겠는가. 그 뜨거운 마음들이 열매를 맺도록 누가 뒤받침해 주겠는가? 이것이 바로 준엄한 시련의 언덕을 넘어 온 로세대-새 세대들의 아버지가 할 일이 아니란 말인가? 목전의 성과를 그려 보며 조금하게 덤빌 때는 그들한테서 배척을 받더라도 두손으로 확실스럽게 거머잡고 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람들이 바로 자기 세대인것이다.¹⁸⁶

그러나 북한 새 세대의 부모관과 관련해 새터민들의 일부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2003년 탈북한 60세의 새터민 여성은 남한 청소년의 윗사람에 대한 예의바름에 경탄하며 북한의 청소년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비판한다. 그는 북한 청소년들이 부모와 윗사람에 대해 무례하고 불손하게 행동하게 된 근원을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교육에서 찾는다.

…내 그래 느꼈어요. 거기서는 젊은 애들 그런 모습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기껏해야 앉은 자리 권하는 거, 이거 일쑤고 이러는데 거기서는 공손하게 모르는 사람 인사를 하거나 초면에 보는 사람들 이렇게 뭐 이러나 이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내 하나부터 열까지 이런 생활에 이르기까지 결국은 청소년 교육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부모를 귀중히 여기고 진짜 그렇게 교육받고 가족단위로 귀중한 것 이런 거를 교육받잖아요. 북은 나서부터 위대한 김정일 이렇게 만세를 부르게 하고 말 배우기 시작하면 고맙습니다 아버지 김정일 고맙습니

¹⁸⁵ 엄성영, 『푸른과원』, pp. 52~53.

¹⁸⁶ 위의 책, pp. 173~174.

다 이 말부터 배우고 어머니 아버지 족보는 몰라도, 애들이 자기 분이 무언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김일성이 김정일 가계 째째 외우고…¹⁸⁷

3. 부부관

부부관계는 결혼이라는 제도에 의해 비혈연적으로 맺어진 밀접한 인간관계이다. 따라서 부부관계는 제도라는 틀 속에서 당위성을 지니기는 하나 그보다는 서로간에 적응을 위한 의식적인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인위적인 관계이다. 또한 이와 같이 비혈연적, 인위적 관계인 부부관계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문제들은 주로 집안일에 있어 부부의 역할분담, 아내의 직업활동과 직장생활 등에서 비롯된다.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식량난 이후 북한 새 세대의 부부관도 이와 같은 부부간 갈등의 원인인 부부의 가사분담과 아내의 직업활동 및 직장생활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선행연구에서도 밝혔듯이 북한주민들의 일반적인 부부관계는 전통사회의 그것과 별로 다르지 않으며 새 세대 부부관계도 예외가 아니다. 선행연구에서 북한 새 세대의 부부관계는 남편중심의 수직적 관계로 나타났다. 분석에 활용한 소설에서도 아내는 가사를 전담하며 아내의 직업활동과 직장생활은 남편의 양해가 있을 때 편안한 마음으로 해나간다. 또한 아내는 매사에 남편의 뜻을 우선시하고 따르며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미덕으로 되어 있어 저항감을 내비치지 못한다. 이와 같은 부부관은 1995년 이후에 발표된 소설작품들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소설에서 드물지 않

¹⁸⁷ 김00(60세 여성, 2003년 탈북), 2006년 5월 27일 면접.

게 찾아지는 “《하긴 여자란 시집가면 다야.》”¹⁸⁸라는 문구는 새 세대의 부부관을 매우 함축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다. 여자는 결혼과 함께 한 인격체로서의 존재 의의를 잃고 남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본질적으로 예속적인 지위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부부관을 잘 형상한 작품들 가운데 하나는 단편소설 『숲에 들렀다 가시라』이다. 이 작품에서는 예명(예술단의 플루트 연주가)이 친정부모와 함께 휴일 나들이를 가기로 했으나 남편(광물연구소 연구사)이 그날 아침 굳이 출장을 떠나려 하자 출장을 하루 미루고 함께 나들이에 가줄 것을 애원한다. 그러나 남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출장을 가버린다.

《아버님이 우릴 위해 모처럼 마련한 휴식인데 그렇게 빠지면 어떻게 해요? 하루 쉬고 래일 떠나세요.》하고 예명은 애원하다싶이했었다. 하지만 고집센 남편은 부득부득 출장배낭을 꾸리면서 아무 대꾸도 없었다. 《절 생각해서라도 하루 좀 바쳐주세요.》 예명은 금시 혀끝에 매달리는 그 말을 입밖에 내지 않았다. 남자쪽에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주어야지 여자쪽에서 입에 올리면 단박에 역스러워진다는것을 모르지 않았던 것이다.¹⁸⁹

한편 소설을 통해 보면 남편중심의 부부관계는 여자들 스스로가 인정하며 그러한 부부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는 것도 여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여긴다. 단편소설 『열쇠』에서 기혼의 직장 여성 영미는 남편과의 불화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며 심하게 자책한다.

이 세상에 가정을 이룬 녀인치고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

¹⁸⁸ 김호석, “푸른들,” 『조선문학』(1995.2), p. 34.

¹⁸⁹ 김홍익, “숲에 들렀다 가시라,” 『조선문학』(1999.4), p. 52.

하지 않는 안해는 없을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한때 남편에 대한 존경은 둘째치고 사랑의 감정마저도 사라진적이 있었다. 아마 그 말을 듣는다면 사람들은 나를 탓할것이다. 나는 이 욕을 달게 접수한다. 사랑에 살고 정에 사는것이 인간일진대 남편조차 사랑하지 않는다면 무슨 녀성이란 말인가.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남편을 만나는가에 따라 그 여자의 일생이 규정된다고 한다. 나는 이 말이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듯 여자에게는 남편이 중요한것이다. …어머니들도 속이 상할 때는 남들에게 자기자식의 못난점을 하소연한다. 하지만 안해들은 혼자서 속을 썩이는 한이 있어도 자기 남편의 결함을 감추고 산다. 아마도 일심동체라는 부부의식, 남편의 명예이자 자기의 명예라는 녀성적인 속성이 작용해서일것이다. 자기 남편의 결함을 들고다니는 녀인은 안해이기전에 녀성이 아니다. 허나 나는 지금 말로써가 아니라 행동으로 남편을 타매하고있다. 수많은 사람들앞에서 남편에게 공개적으로 침을 뱉고 돌아섰다. 과연 내가 녀성답게, 안해답게 옳게 처신하였는가.¹⁹⁰

또한 단편소설 『행복의 무게』에서 의사로 일을 하며 이미 남편과 가정불화를 겪은 최순은 여자들에게 있어 가정의 의의와 소중함을 일깨우며 남편과 갈등을 빚고 있는 친구 유경에게 저항하지 말고 남편의 뜻을 따를 것을 강하게 권한다.

«우리 녀자들에게야 가정이 있잖니. 아이를 잘 키우고 남편을 성공시키고도 자기자신도 성공하고 싶은것은 우리 같은 녀성들의 리상이지.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쉽진 않아. 녀성의 성공에 비껴 진 가정은 벌써 균형이 파괴되어 엉망이 되었다는걸 의미하지. 남편이 주부가 되었던지 아니면 아이들이 때식을 번지던지…» …«유경이, 차마 너를 못 보겠구나. 물론 연구사업은 훌륭하고 숭고한 일이지. 그래서 난 너에게 연구사업을 그만 두라고 하고 싶진 않아. 그러나 우린 어머니이고

¹⁹⁰ 김혜성, “열쇠,” pp. 65~68.

안해이며 한가정의 주부야. 녀성이 가정을 잃으면 도대체 무엇이 남겠니?... 노엽게 생각진 말아. 난 네가 편안하지 못하고 불화가 많았던 우리 가정처럼 되지 않길 바랄뿐이다...»¹⁹¹

새터민들도 북한에서의 부부관계는 소설에서와 같이 남편중심의 수직적 관계이며, 이는 북한사회에 “조선시대의 봉건적 잔재”인 남존여비사상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북한남자의 가정개념대로 여기서 가정생활하면 그 사람 감옥, 한 달 이내에 감옥가요. 왜냐하면 북에서 남자의 가정개념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요, 남자는 부엌에 내려가서는 안 되며 집에 와서 집안일에 신경 써서도 안 되며, 남자는 바깥일에, 남자는 대장부니까 큰일을 해야 하며, 여자는 남자의 하나의 부속물이며, 이런 차원이예요. 완전히 옛날 봉건시대, 그런 것이 굉장히 농후해요. 그래서 한 마디로 설명하면 돼요. 북한에서는 남자들이 욕을 하잖아요? 여자들이 눈을 뜨면, 이게 어디서?, 이렇게 돼요. 눈을 떠도 이게 어디서 이렇게 되는데, 말대꾸 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서는 여자가 쫓아내잖아요.¹⁹²

북한사회는 남성우월사회라고 해야 하나? 남존여비사상이라고 해야 하나? 남성이 우월한 사회가 아닙니까? 거긴 아직껏 조선시대의 봉건적인 잔재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남자가 가정의 주인으로써 모든 것을 결론하고 이끌어가고 그렇거든요. 뭐 사회나 가정이나 비슷한 거 같아요. ...우리 집사람도.... 북쪽으로 말하자면 말대답이 어디 말대답이 있어요. 거긴 그러질 못했거든.¹⁹³

새터민들에 따르면 남편중심의 수직적 부부관계는 이혼과 관

¹⁹¹ 리라순, “행복의 무게,” pp. 31~33.

¹⁹² 김0(30세 남성, 1997 탈북), 2006년 5월 27일 면접.

¹⁹³ 안연진,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가족문화 특성에 관한 질적 연구,”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79~80에서 재인용.

련해서도 아내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남편과의 이혼을 원해도 아내가 제기하는 이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법적으로 이혼이 성사되더라도 남편의 보복이 두려워 여자들이 이혼을 쉽게 결단내리지 못한다고 한다.

북에서도 싸우긴 싸우는데, 그냥 여자쪽에서 그냥 그러려니, 그리고 북은요 내가 이사람하고 살다가 싫으면 이혼같은것도 안되요. 이혼이 잘 안되고, 그리고 내 이사람 싫다 어떻게 싫냐 해서 얘기하면 그럼 이사람 흠집내기가 되잖아요. 그럼 이사람 법에 걸어서 또 어떻게 해야되나 그런거. 합의이혼이라는 게 없어요.¹⁹⁴

북한에 있을 때는 옆집에서 싸워서 다리 부러지고 피 터지고 해도 부부싸움이니까 돌아 안보는 거예요. 북한에서 맞아 죽어도 남편 손에서 맞아 죽고 이혼하자면 몇 년을 별러서 해야 하고 혹시 이혼한 다음 어느 골목에서 만나면 여자는 남편 손에 맞아 죽어요. 이러니까 살기도 지겹고 이혼하기도 지켜워할 수 없이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¹⁹⁵

한편 1995년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소설들에서 남편중심의 수직적 부부관계를 비판한 작품은 매우 드물다. 정현철의 단편소설 『삶의 향기』에서 새 세대 청년 영호가 아버지가 소개한 새 세대 처녀를 만나보고 난 다음에 그녀의 수동적·소극적인 태도와 성적 자기비하를 비판하며 남녀동등한 수평적 부부관을 설파한 대목이 거의 유일하다.

¹⁹⁴ 최00(30세 여성, 2002년 탈북), 2006년 5월 30일 면접.

¹⁹⁵ 장혜경·김영란, 『북한이탈주민가족의 가족안정성 및 사회적응과 여성의 역할』(서울: 한국여성개발원, 2000), p. 131에서 재인용.

…남편의 직위와 명예, 그리고 성과 속에 자기의 인격도 뭉개지도 있는듯이 생각하면서 사회 앞에 지닌 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애써 노력하지 않는 여성들, 시집을 가면 남편에게 자기의 희망이며 신념까지 다 용해되고 맡겨버리고마는 그런 여성들이 아직도 시대의 수지로 남아있으니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지금도 여자에게 무조건 복종할것을 요구하며 또 그렇게 고분고분하는 여성을 《괜찮은 안해》라고 생각하면서 칭찬까지 하는 일부 사람들의 뿌리깊은 관념이다. 그런 사람들의 결혼은 결합일뿐이지, 사랑의 승화이고 열매는 아니다. 호상성이 없는 일방의 내조는 본질적으로 예측이며 불평등이다. …여성들이 시집을 가는것은 남편의 뒤바침 하나때문도 아니며 자식을 잘 키우는 한 가정의 행복만을 위해서도 아니다. …부부는 종속이 아니라 동등한 자격과 의무로서 서로 돕고 이끄는 동지적 관계로 되어야, …평등은 사랑의 가장 견고한 기초이다.¹⁹⁶

그러나 1995년 이후 발표된 소설들 가운데 특히 2000년대 들어서 발표된 작품들에서는 남녀동등한 수평적인 부부관계를 지향하는 새 세대 부부들이 적지 않게 등장한다. 또한 『삶의 향기』에서 새 세대 청년 영호가 한 비판은 실제적인 새 세대의 부부관을 반영한 것이라기보다는 북한인 공식 가치지향을 강조한 계몽성의 글이었다고 한다면 2000년대 이래 발표된 소설에서 새 세대들이 남녀동등한 수평적 부부관계를 지향하고 있는 모습에서는 식량난 이후 점차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새 세대들의 부부관을 반영하고 있다는 데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편 새터민들은 북한 가정의 대부분이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수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살기는 하나 가정에 따라서는 집안일을 돕는 남편들도 드물지 않다고 한다. 그리고 식량난이 심화됨에 따라 아내가 가

¹⁹⁶ 정현철, “삶의 향기,” 『조선문학』(1991.11), pp. 45~47.

족의 생계유지를 책임지게 되면서부터는 남편들의 가부장적 의식이 많이 약화되었으며 아내의 남편에 대한 의식 및 태도에 있어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북쪽에서도 남편들이 주로 어떤 신혼생활에 도와주나 하면, 군대나갔다가 제대해서, … 참 정말 여기 못지않게 도와줘요. 직장 나올 때 아이 데리고 가는 것을 남편이 다 데리구, 또 퇴근할 때두 데리구 오구, 그리고 또 집에 와서도 막 자기 색시를 아끼는 정도로 생활하고, …가만히 앉아서 가정일 안 돌보는 사람도 있고, 그 반면에 많이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참 잘 도와주는 사람 많아요. 그건 다 그렇잖아요.¹⁹⁷

북한의 부부는 남편이 남자가 너무 가부장적이지 않아요? 그냥 시키고 너 술 사러 갔다 와, 그러면 갔다 와야 되고… 너무 여성들이 막말로 억압되서 그런것 같은데, 요즘은 많이 조금은 또 나아졌다고 하네요. 요즘은 여자들 시장가서 별어서 살아야 되고 하니까 그런 인식이 조금씩은 바뀌진다고 하는데…¹⁹⁸

내 애기 가졌는데 결혼해야 되겠다고 내 대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활했고… 지금은 또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생활이 어려워도 여자들이 많이 나가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이 남자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는데…¹⁹⁹

북한소설에서 새 세대들의 달라진 부부관은 새 세대 남편들의 아내에 대한 사랑과 부부 사이에 주고받는 정에 대한 각별한 의미부여 등으로 묘사되기도 하나 대부분의 관련 소설작품들에서는 새 세대 남편들이 성역할 분담이 아닌 아내와의 동등한 가사분담을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성의 있게 실천하는 모습으

¹⁹⁷ 최00(67세 여성, 1996년 탈북), 2006년 5월 13일 면접.

¹⁹⁸ 최00(30세 여성, 2002년 탈북), 2006년 5월 30일 면접.

¹⁹⁹ 김00(60세 여성, 2003년 탈북), 2006년 5월 27일 면접.

로 그려진다. 단편소설 『녀성은 다 어머니로 되는가』에서 새 세대 남편은 아내의 건강을 걱정하며 새삼 부부의 정을 되새긴다. 그리고는 임신중임에도 불구하고 “장군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 산에서 나무 심는 일을 하는 아내를 위해 정성껏 저녁상을 준비한다.

결혼 후 2년나마 자식을 기다려온 나로서 안해의 몸이 그전 같지 않더니 안해에 대한 생각이 더 깊어 졌다. 정말 부부간의 정은 머리흰 로인이거나 갓 결혼한 신혼부부이거나 다같이 생이 끝나는 날까지 소중히 가꾸어야 할 인간생활에서 가장 아름다운 감정이 아닐까 생각되었다. …개울물을 타고 내려 오며 잡은 산천어꺀미를 들고 집으로 들어 선 나는 줄에 걸어 놓았던 안해의 앞치마를 벗겨 두르고 저녁차비를 시작했다. 안해를 위해 잡아 온 산천어로 튀기도 만들고 농마지침도 지지고 안해가 내 밥상에 꼭꼭 받쳐 주던 참나무버섯을 넣은 감자곱돌장도 잊지 않았다. 다행히도 안해가 도착하기전에 밥이 다 되었다. 나는 밥을 폼다. 안해가 늘 내 밥을 먼저 푸듯이 나는 안해의 밥을 먼저 퍼서 저녁상을 차려 놓고 안해를 기다렸다.²⁰⁰

단편실화소설 『푸른꿈』에서는 대학교수를 마다하고 유치원교양원이 되어 열과 성을 다해 일하는 아내의 가사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새 세대 남편이 기꺼운 마음으로 집안일을 돕는다.

옥선은 대학공부까지 할수 있었고 졸업후에는 대학교단에 서게 되었다. 결혼을 하고 세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서도 그는 가정생활보다 대학에 더 재미를 느끼는듯 싶었다. 그래서 저녁에는 남편이 행주치마를 걸치는 때가 드문하였다. …옥선은 소원대로 유치원교양원이 되었고 남편이 행주치마를 걸치

²⁰⁰ 정해경, “녀성은 다 어머니로 되는가,” pp. 64~71.

는 회수는 예전보다 더 많아졌다. 그래도 안해의 불 같은 마음을 알고 있는 남편은 불평 한마디없이 코노래를 흥얼거리며 동자질을 하곤 했다.²⁰¹

단편소설 『푸르른 대지』에서는 작업반일로 늘 바쁜 아내를 대신하여 남편 석우는 저녁끼니 준비를 도맡아 하다시피 한다. 또한 석우는 논에서 밤을 지새운 아내에게 아침밥을 지어 갖다 주기도 한다. 그는 “옆집에서 한사발 가져다준 붕어까지 짹짹히 지져 놓고 기다렸다가 맛 있게 식사를 하는 안해”를 보며 내심 몹시 흐뭇해한다.²⁰²

한편 1990년대 중반 이래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이 악화되면서 북한주민의 가정생활에 변화가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편들이 직장에서 생활비(월급)를 받아오지 못해 주부들이 가족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서부터 점차 남편들이 가장으로서의 구실을 못하고 무능력해져 가정에서의 권위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1990년대 말 이래 발표된 북한 소설에서도 엿볼 수 있다. 1999년의 장편소설 『열망』에서는 “설계사업소 실장”에서 해임되어 일반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석민이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면서 아내의 타박을 감내하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그는 집에 들어와서 거의 말없이 지내는 사람이였다. 무언이나 리해타산의 저울에 먼저 올려놓고 생각하며 살림살이에 대한 말밖에 모르고 항상 자기를 집에서 모든 결론권을 가진 가장으로 자처하면서 남편을 눈섭아래에 떨구어보려는 안해

²⁰¹ 윤경찬, “푸른 꿈,” 『조선문학』(2003.2), p. 71.

²⁰² 변월녀, “푸르른 대지,” p. 55.

와 그는 별로 말하고싶지 않았으며 실지로 또 할말도 없었다. 그리하여 안해의 그 어떤 지청구에도 귀머거리라도 된듯이 지냈다. 그가 들은척마는척학 앉아 책을 그냥 들여다보자 최명득(아내)은 두손을 짚고 에그그 소리를 내며 일어나 마늘그릇을 가지고 옷방으로 올라와 석민이가 보려고 펼쳐놓은 책우에 소리나게 놓았다. 이쯤되면 한석민으로서도 더는 어찌지 못하였다. 마뜩지 않아하는 소리를 한마디만 하였다가는 집안이 소란해지고 세대주로서 하는 일이 뭐가 있는가,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남보다 못지않게 먹고 입고 쓰고 사는것이 누구의 덕인지 알기나 하는가, 벽에다 못하나 박을줄 모르고 살아오면서 어찌다 해달라는건데 그래 마늘까는것도 몰라서 그러는가 하고 고아대는소리가 기관총소리처럼 련발로 터져나올것이였다. 한석민은 할수 없다는듯 마늘그릇을 가지고 아래방으로 내려가 앉았다. 남편을 자기의 요구에 순응하게 한 최명득은 딸한테로 다시금 공격의 화살을 돌렸다.²⁰³

2001년에 발표된 단편소설 『회초리』에서는 돌격대원들의 합숙소에서 상처림을 하던 한 돌격대원의 아내가 바쁘게 일하는 자기를 돕지 않고 동료 대원들 가운데 그냥 앉아만 있는 남편을 향해 핀잔을 퍼붓는다. 이러한 아내의 행동에 남편은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미안해하며 아내의 상처림을 돕는다. 또한 돌격대원의 아내는 발전기 시운전이 실패로 돌아가 풀이 죽어있는 남편의 동료 돌격대원들에게 핀잔을 하며 일에 자신이 없으면 아내들과 성역할을 바꾸어보자고 농담 섞인 제의를 한다.

녀인은 국수그릇들을 차려 놓다 말고 남편에게 맥주병을 내밀며 통을 주었다. «아니 당신은 뭘해요? 주인이 멍청해서!» 안해한테 통을 맞은 남편은 찢찢 매면서 잔들에 맥주를 부으며 돌아 갔다.²⁰⁴

²⁰³ 김문창, 『열망』, pp. 29~30.

²⁰⁴ 안홍윤, “회초리,” 『조선문학』(2001.8), p. 35.

마침내 녀인은 국수그릇들을 상우에 다 차려 놓고 나서 어서 들 상앞으로 나왔으라고 하였다. 한사람 두사람 마지 못해 상앞으로 우물우물 나왔었다. 성의가 하도 고마우니 먹어 줘야지 어찌겠나 하는 기색이었다. «아유, 지지리들두 못났네요! 아니 사내대장부들이 그만한 일에 뭘 그다지 풀들이 죽었어? 꼭 손자 죽은 늙은이들처럼!» 몇사람이 허허 웃었다. «그렇라 문 우리하구 치마를 바꿔 입자요. 우리 대신 밥두 하구 아이두 낳구 다 하라요. 그저 삼태자들만 낳지 못해 보라요!»²⁰⁵

그러나 대부분의 새터민 여자들에 따르면 식량난 이후 북한 가정의 주부들이 주로 장사를 통해 경제력이 강해지면서 가정에서 발언권이 다소 강해진 것은 사실이나 주부들은 세대주를 집안의 가장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가정의 평화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세대주 중심의 가정생활에 저항하지 않는 편이라고 한다. 또한 가정에 따라서는 식량난의 악화로 인해 오히려 가부장 문화가 더욱 심화되었다고도 한다.

체제 자체가 불평등이라는 거는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북한에는 대남주의가 많이 있고, 현재까지도 북한에서는 여자라고 하면 가치 없이 보고 남자들이 여자를 많이 좀 힘들게 하죠. 현 상황에서 북한에서는 여자들이 많이 움직여서 벌어들여 먹고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일안해도 집에 들어오면 여자들을 때려요. 구박받는 일이 많고, 모든 시대들을 보면 여자들이 그렇게 남자들 때문에 제가 벌어들여도 남자들은 큰 소리치고, 남자들이 주권 쥐고 이렇게 살아요. 가정에서. 그래도 남자한테 그렇게 그쳐, 남자들은 여자는 조금 살다가 힘들면 내버리고 내버리고 하니까 그 사회가 그게 좀, 이혼해요. ... 장사를 못 한다던가 가정살림이 어렵다던가 하면 여자한테 다 덮어씌워요. 네가 살림을 잘못하기 때문에 너하고 살기 힘

²⁰⁵ 위의 글.

들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한다는 걸 걸고, 무조건 이혼하면 여자들은 꼼짝 못하고 이혼해요.²⁰⁶

그런 거 아직도 북한은 남존사상이 많으니까요. 그저 지금 그때 다시 사상은 뭐이나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사는 데는 여자가 남자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여자를 기본 택해서 가정을 묶거든요. 여자는 죽도록 벌어서 남편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가정을 먹여 살리는 것이 100% 중에 아마 20~30%밖에 안 될 거예요. 여자들은 나가서 직장일을 하고 들어와도 어쨌든 먹고 사는 데는 기본 주자로 하고 어떤 남자들이 많은가하면, 그까 여자들 몸 팔아서라고 나 맥여 살려라 그런 남자들이 절반이거든요. 막 벌어들이지 못하면 막 때리고 그런 거 직접 봤어요. …그렇게 막 때리고, 자기는 벌지 못해 있어도 막 아내를 때리고, 나가버리고 기본이 그래요.²⁰⁷

위와 같이 식량난이 악화됨에 따라 가부장 문화가 심화된 가정은 단편소설 『열쇠』²⁰⁸에도 잘 그려져 있다. 이 소설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 직장에서 불도저의 기름을 훔쳐 술과 바꾸거나, 한 대뿐인 불도저를 사적으로 사용하다 사고를 내는 등 문제를 일으켜 “법적교양”을 받고 온 남편에 대한 아내의 갈등과 재결합과정을 다룬 작품이다. 소설에서 남편은 결혼 전부터 불량배로 지냈으며 결혼 후에도 “술과 놀음, 싸움질”을 일삼았고 아내에게도 “쌍욕, 행패질, 손찌검” 등을 하는 사람으로 형상되어 있다.

²⁰⁶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탈북자 증언을 통해서 본 북한인권 실태조사』(서울: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05), p. 108에서 재인용.

²⁰⁷ 위의 책, pp. 107~108에서 재인용.

²⁰⁸ 김혜성, “열쇠,” pp. 65~78.

V

식량난 이후 북한 새 세대의 여성관²⁰⁹

²⁰⁹ 분석들에서 밝힌대로 북한 새 세대의 여성관은 선행연구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남존여비관념을 중심으로 하여 분석, 논하기로 한다.

북한은 정권창립 이전에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제정하고 정권창립 이후에는 헌법, 어린이보육교양법, 사회주의노동법, 가족법 등의 제정을 통해 여성의 정치·사회적 역할을 보장하였으며 호적제도 폐지, 국가에 의한 자녀양육제도 시행 등의 제도적 정비와 함께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통해 여성의 사회진출과 지위 향상을 도모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여성관련 법·제도적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여성들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 지위와 역할도 크게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북한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은 관련 법·제도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으며 봉건적 가부장 질서에서 형성된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식도 그대로 남아 있다. 또한 가정에서의 여성의 지위도 사회주의체제에서 표방하는 사회주의 남녀평등과 크게 다르다. 사회주의 남녀평등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정생활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가부장 질서가 유지되고 있으며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은 여성의 몫이라는 전통적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녀성은 가정의 주부이며 온 가정에 건전하고 화목한 분위기를 차넘치게 하는 꽃이다. 늙은 부모들이 여생을 값있게 보내도록 잘 돌봐주는것도 녀성들이며 남편이 혁명사업을 잘 하도록 적극 도와주고 받들어주는것도 안해이며 혁명동지인 녀성들이다. 아들 딸들을 낳아 키우는것도 녀성들이며 그들을 혁명위업의 미더운 계승자로 준비시키는 첫째가는 교양자도 녀성들이다.²¹⁰

²¹⁰ 박영숙, “가정혁명화와 녀성들의 책임,” 『조선녀성』(1999.3), p. 15.

북한에서 남존여비사상은 “남자를 존대하고 여자를 천대하는 착취사회의 반동적 료리도덕관”이며 근절되어야 할 봉건유교사상의 잔재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북한여성들의 지위와 역할이 관련 법·제도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음은 북한사회 전반에 전통적인 남존여비사상이 뿌리 깊게 잔존해 있음을 말해 주며 이와 같은 실태는 북한 소설을 통해서도 잘 엿볼 수 있다. 소설에서는 선행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긍정인물, 부정인물 구분 없이 새 세대들의 여성에 대한 인식이 거의 같게 나타난다. 다음의 예문들은 새 세대 남자들이 여자에 대해 의식·무의식적으로 성적인 우월감을 드러내는 대목들이다. 먼저 단편소설 『복주머니』에서는 새 세대 청년이 마음에 두고 있는 새 세대 여자가 자기의 농담을 이해 못하고 항의 하는 데 대해 “과연 여자들이란”하며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드러낸다.

《과연 여자들이란… 사실은 인원이 많아서 내려왔는데, 룡담삼아 한마디 한걸 가지구 맏혀서 그러우. 잘못했소.》²¹¹

새 세대 남자들의 성적인 우월감은 10대의 청소년들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중학생들의 생활을 그린 중편소설 『자라는 부대』에서 여학생과의 경쟁에 대해 한 남학생은 “《시시하게 여자애하고나 맞서겠어?》²¹²”라고 말하며, 단편소설 『넋』에서는 여자아이가 한 이야기의 사실여부를 따지며 언쟁이 붙은 자리에서 또래아이들 가운데 대장노릇을 한 상대방 남자아이가 “나는 지고싶지 않았다. 계집애한테 진다는것은 《대장》으로서 있을수

²¹¹ 박찬은, “복주머니,” p. 18.

²¹² 민경숙, 『자라는 부대』(평양: 금성출판사, 2005), p. 37.

없는 노릇이었다.²¹³라고 당시의 심정을 밝힌다. 중학교 2학년 소년단원들의 학교생활을 그린 중편소설 『7분단』에서 7분단 분단위원장 철남은 모든 일에 우승하는 5분단의 분단위원장 효숙이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분단을 잘 이끌어 나가는 능력이 무엇인가를 궁금해 하는 한편 무슨 일에서나 효숙이한테 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 남자인 자신이 여자인 효숙이보다 성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말 알다가도 모를 수수께끼였다. 효숙이는 분단에서 키가 그리 큰축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이들을 째짜게 다루는것 같지도 않았다. 그래도 머리통이 큰 남자애들까지 자기 분단위원장을 따르며 고분고분 말을 잘 들었다. …그는 무슨 일에서나 효숙이한테 지고싶지 않았다. 무엇이 모자라서 여자애한테 진단 말인가. 힘으로 하나 노력으로 하나 지혜로 하나 딸리는것이 없었다.²¹⁴

중편소설 『우리 도시』에서는 한 설계실에서 함께 일하며 정을 쌓아가는 설계원 영심과 찬일이가 학교 시설물 설계와 관련해 이견으로 대립한다. 이때에 찬일이 느끼는 영심에 대한 야속함이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녀자의 마음이란 바람속의 갈대라더니 이렇게 돌변하는가?!) 상대도 되지 않는 처녀한테 설계영웅이 되자고 흥금을 터놓았던 그날 저녁의 산보길이 지금에 와 생각하니 허무맹랑하고 실련을 당한것처럼 부끄러웠다.²¹⁵

²¹³ 김영선, “뉘,” 『조선문학』(1996.11), p. 18.

²¹⁴ 변제전, 『7분단』, pp. 48~49.

²¹⁵ 오현재, 『우리 도시』, p. 84.

한편 소설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성적인 우월감을 의식·무의식적으로 내보이는 새 세대 남자들에 대해 새 세대 여자들의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성적인 비하감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새 세대 여자들에게 있어 이러한 태도는 역시 긍정인물, 부정인물 구별 없이 거의 같게 나타난다. 한 예로 단편소설 『녀전사의 길』에서는 하반신 신경마비로 제대하여 영예군인이 된 새 세대 여자가 자신의 청혼을 잘 받아주지 않자 새 세대 남자 명도철이 “정말 여자들이란”하고 성적 고정관념을 내보이는 데 대해 새 세대 여자는 자신이 ‘천한 존재’임을 전제하고는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명도철이를 야속해 한다.

《이 명도철이 싫으면 싫다고 하오. 자유니까. 강요하지는 않겠소. 강요해서 풀릴 문제도 아니구. 정말 여자들이란…》…
(어쩌면… 내가 아무리 천하기로서니 동지를 그렇게밖에 생각못하는 웅졸한 녀자로 알았어요? 의심하구 질투하구.)²¹⁶

다음의 예문은 단편소설 『백로떼 날아든다』에서 서로를 마음에 두고 있는 새 세대 남녀가 만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다. 여기에서도 새 세대 남자 순철이 의기소침해 있는 연순이의 태도에 대해 “여자들이란”하고 성적 고정관념을 내보이며 이러한 순철의 태도에 대해 새 세대 여자 연순은 자신이 여자이기 때문에 배포도 없고 웅졸하다고 말하며 스스로를 비하시킨다.

순철이에게 반감게 달려가야 할 연순이었으나 달빛아래 오도카니 섰다. 《연순동무, 왜 그러오. 무슨 일이 있었소?》 천천히 다가온 순철이 그에게 물었다. 이제 헤어지면 언제 다시

²¹⁶ 조근, “녀전사의 길,” p. 29.

만날지 모를 그들인데 왜 저리도 의기소침할까? 《누구와 다투기라도 한가보군. 녀자들이란…》 사랑하는 처녀의 응석을 너그럽게 받아주려는듯 순철의 어조는 자못 다정하였다. 《그래요. 저는 녀자예요. 녀자인 까닭에 남자들처럼 배포유하지도 못하고 용졸하고…》²¹⁷

단편소설 『넓어지는 땅』에서는 마음에 둔 새 세대 청년 철호가 자신의 방에 찾아와 하는 행동에 당황해 하며 수치감을 느끼는 작업반장 처녀 진옥의 속마음을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다.

강철호는 화분을 이리저리 돌려 보다가 손가락으로 종이꽃들을 탁탁 튕겼다. 그러자 종이꽃에서 먼지가 일어 났다가 서서히 가라앉는것이 해살을 통해 똑똑히 보였다. 순간 진옥은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이 방의 주인으로서, 더구나 처녀로서 남자들앞에서 게으른 구석을 보인것만 같아 부끄럽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했던것이다.²¹⁸

단편소설 『눈보라는 후덥다』에서는 한 새 세대 여자가 자신은 남자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인데 오히려 남자로부터 편잔을 듣는 것에 대해 내심 불쾌해 한다.

《장대기를 놓으면 어찌자는거요. 죽자고 그래. 헛 참.》 나는 얼굴이 활짝 붉어 졌다. 나는 온곱지 않은 눈길로 김석철을 쏘아 보았다. 하필이면 녀자인 나에게 왜 큰소리를 치는가.²¹⁹

단편소설 『녀전사의 길』에서도 사랑하는 남자의 오해 섞인 태도에 대해 새 세대 여자는 자신이 연약한 여자임을 내세우며 무정해 한다.

²¹⁷ 김명익, “백로페 날아든다,” 『조선문학』(2005.6), p. 42.

²¹⁸ 윤경찬, “넓어지는 땅,” p. 46.

²¹⁹ 박일명, “눈보라는 후덥다,” 『조선문학』(2003.5), p. 25.

그래 어쨌다는거예요. 약해요. 녀자니까요. …무정해요. 정말 무정해요.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할망정 아- 됐어요. 가세요.²²⁰

이 외에도 단편소설 『매혹』에서 새 세대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에게 보내는 편지글에서 “00보냄”이라고 하나 새 세대 여자는 “000올림”이라고 하여 성적인 차별의식을 드러낸다.²²¹ 한편 북한에서 여성은 “생활의 꽃, 행복의 꽃, 나라의 꽃”으로 상징, 인식되고 있으며 이른바 선군시대에 들어서는 “선군의 꽃”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이와 같이 자신들이 “꽃”으로 대상화된 데 대하여 북한 여성들은 거부감보다는 오히려 자긍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선군의 꽃”으로 불리는 것에 큰 영예로움을 느낀다.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오늘의 선군시대에서 우리 녀성들이 결코 생활의 꽃, 행복의 꽃만이 아님을 나는 새롭게 느끼게 되었다. …선군시대에 피어난 선군의 꽃, 이 얼마나 영예로운 부름인가. 얼마나 고귀한 칭호인가. …이 영예로운 부름과 고귀한 칭호는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바칠 때 불리워지며 빛나는 것이다.²²²

소설에서도 여성은 꽃으로 상징, 대상화되어 그려진다. 특히 ‘수령형상창조’ 작품의 하나인 단편소설 『매혹』에서는 김일성이 “녀성들이야말로 사랑의 아름다움과 매혹적인 인정의 향기로 영원히 인간생활을 품미롭게 하는 꽃중의 꽃입니다.”²²³ 라고 말하는 것으로 형상함으로써 김일성의 여성관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²²⁰ 조근, “녀전사의 길,” p. 31.

²²¹ 로철수, “매혹,” p. 76.

²²² 김영숙, “선군의 꽃,” 『청년문학』(2003.10), p. 31.

²²³ 김준학, “매혹,” 『조선문학』(1998.9), p. 26.

있다. 김일성에게 있어 바람직한 여성상은 “남편공대도 잘하고, 부모공대도 잘하고, 어린것도 잘 기르고, 살림을 잘하며, (사회주의 건설현장에서) 계속 일을 해내는”²²⁴ 전통적인 주부로서의 역할과 사회주의 혁명가로서의 역할을 잘 병행해 나가는 여성이다. 또한 김일성은 여성들에 대해 특히 “조선녀성의 품성”과 여성다움을 강조한다.

녀성들은 자신의 해방과 권리, 평등만을 생각하는 나머지 조선녀성들이 예로부터 가지고 있는 고유하고 아름다운 품성을 잃어버려서는 안되오. …우리 녀성들은 이런 고상한 도덕적 품성을 견지하며 레절 바르고 몸가짐이 단정해야 하오. 녀성은 녀성다와야 하오.²²⁵

김정일의 여성관 역시 김일성과 같다. 또한 이와 같은 두 수령의 여성에 대한 인식은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서도 보편적이며 새 세대들도 예외가 아니다. 장편소설 『열망』에서는 예술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문화회관을 찾은 가열공 처녀 옥련이 화장하지 않고 왔다는 이유로 입장을 금지 당하며 이에 대해 옥련은 여자로서의 몸가짐이 단정하지 못한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밖으로 나와 버린다.

회관관장과 관리원이 땀을 뻘뻘 흘리며 사람들을 입장시키고 있었다. 회관관장이 옥련에게서 표를 받다가 그를 옆으로 내

²²⁴ “금순동무는 이 공장에서 몇 십년이고 일해야 하오!,”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대한 수령의 품 속에서(4)』(동경: 조선청년사, 1972), p. 154.

²²⁵ 김일성이 고상한 도덕적 품성으로 예시한 것은 “춘향의 절조”와 “심청의 효심”이다. 김명화, “녀대원들과의 담화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편,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7), pp. 262~263.

세웠다. 《어느 직장이요? 처녀라는게 화장두 안하구 일하던 대루 와?》 옥련은 만사람들앞에서 속옷까지 벗기우는것 같은 부끄러움과 수치감을 당하였다. 뒤에 섰던 함마운전공이가열로에서 일하다나니 미처 화장을 못하고 왔다고 그를 변명해주었다. 그제야 회관관장은 리해가 된다는듯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가라고 했다. 그러나 옥련은 객석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인채 사람들을 비집고 밖으로 나오고 말았다.²²⁶

한편 북한은 “조선녀성의 품성”과 여성다움에 있어 특히 순결의식을 강조한다. 이는 북한의 한 작가가 쓴 북한여성들이 지향해야 할 “참된 사랑관”에 잘 나타나있다.

어느 남자가 사귀고싶어하더란 말만 들어도 처녀의 순결을 잃은것처럼 여기며 모욕으로 받아들이는 순진성, ...그의 소박성과 순결성, ...이것이 바로 숙임이의 인간적미이다.²²⁷

그러나 식량난이 심화되면서 여성들의 자아인식의 변화와 함께 새 세대 여자들 사이에 종래의 순결의식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식량난이 심화됨에 따라 생계유지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자 순결을 지키는 것보다 먹는 사는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겼으며 성을 도구로 하여 생계유지를 도모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와 같은 의식의 변화는 1990년대 중반 이래 식량난이 악화되면서 급증한 북한여성의 매춘, 동거, 또는 사실혼의 관계 등으로 반영되고 있으며 관련 자료에서는 이와 같은 실태를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²²⁶ 김문창, 『열망』, pp. 190~191.

²²⁷ 김해월, “우리시대 녀성들의 사랑의 세계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 p. 67.

음식을 먹으면서 치켜보고 결혼했는가고 물으니 그는 대뜸 요즘 같은 시기에 시집가는 여자는 머저리라고 하였다. 시집 가지 않고 장사만 잘 하면 돈도 벌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가 말하는 장사란 몸을 파는 장사였다.²²⁸

실제에 있어 북한 새 세대의 여성관은 소설에서 나타난 것과 다르지 않다.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실제에 있어서도 새 세대들 사이에 남존여비사상이 만연해 있으며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 보편적인 여성에 대한 성적 차별의식 내지 고정관념이 새 세대들에게서 나타난다.

(간부들) 주로 남자가 하죠. 남자가 하는데, 여자가 간혹 있긴 있어요. 대부분 보면 남자가 하죠. 우리 학교는 주로 보면 남자가 해요.²²⁹

직장에서는요, 예를 들어 사무원이나 노동자나 같죠. 대학을 졸업했으면 똑같은 지도원이지만 여자는 간부자격도 안해 줘요. ...그렇게 하고 입당시키는 것도 남자 위주로 하지, 여자는 잘 안 시켜줘요. 그리고 훈장, 북한사람들 훈장을 주잖아요. 당에 충실하면 여자가 더 당연히 충실해요. 그래도 여자는 잘 안줘요. 남자를 많이 주지.²³⁰

지금까지 북한당국이 국제사회에 식량 원조를 요청한 1995년 이래 나타나고 있는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를 북한소설을 분석 자료로 하여 살펴보았다. 선행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공

²²⁸ 권혁, 『고난의 강행군』(서울: 정토출판, 1999), p. 189.

²²⁹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탈북자 증언을 통해서 본 북한인권 실태조사』, p. 106에서 재인용.

²³⁰ 위의 책에서 재인용.

식 가치지향에 있어서나 실제에 있어서나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1980년대 말 이래 나타나고 있는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는 식량난의 악화로 인해 많은 아사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1995년 이후에도 이전과 같은 양상 및 추세로 지속되고 있다. 다만 식량난 이후 북한의 공식 가치지향에 있어 남녀동등한 수평적인 부부관계가 이전보다 더 강조되고 있으며, 실제에 있어서도 식량난 이후 새 세대를 비롯한 북한주민들 사이에 부부가 가사를 분담하거나 남편이 아내의 일을 돕는 등 점차 수평적인 부부관계를 지향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특기할 만하다. 이러한 실태는 단편소설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잘 나타난다. 다음의 예문은 소설에서 30대 중반의 남자(세대주)에 대한 직장 상사의 평이다.

그의 인간됨에 대해 말하자면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첫 손가락에 꼽아야 할것은 안해를 끔찍이 사랑한다는 점이다. 그는 일부 덜된 녀석들처럼 자기 안해한테 반말질을 하는 경우가 전혀 없다. 언제나 경어를 쓰면서 처를 무척 아끼군한다. 안해의 부담을 덜어주자고 때로는 제가 밥을 짓고 빨래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는) 안해를 도와주는것을 당연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것이였다.²³¹

²³¹ 리희남, “한가정에 대한 이야기,” 『조선문학』(2004.5), p. 27.

VI

북한 새 세대 가치관의 변화요인

1.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

1990년대의 북한 경제는 지속적인 침체일로 상태였으며 특히 중반 이래 연이은 자연재해로 인해 식량난이 크게 악화됨으로써 적게는 수십만 명에서 많게는 수백만 명으로 추정되는 아사자가 발생 하는 비극적인 현상을 초래하였다. 기아, 곧 굶주림이 수많은 북한주민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장편소설 『열망』에서는 당시의 국가적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여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붕괴와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 민족의 아버이를 잃은 크나큰 슬픔과 난관을 겪고있었다. 남들같으면 열백번도 더 주저앉고 말았을 그러한 난관과 시련이었다.²³²

북한 소설에서는 식량난을 소재 및 주제로 하여 당시의 경제적 어려움을 그린 작품들이 많은 편이다. 그 가운데 중편소설 『열매는 봄날에』에서는 군당 선전선동부장 정순길이가 사실상 식량난으로 인해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음을 작업반원들에게 역설하며 마음아파 한다.

사실 지금 우리는 식량 때문에 <고난의 행군>을 합니다. 식량 때문에 로동자, 사무원들이 난관을 겪는것은 말할것두 없구 어떤 가정엔 가슴 아픈 상실도 있단 말입니다.²³³

새터민들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난은 1997년과 1998년에 가장

²³² 김문창, 『열망』, p. 12.

²³³ 박용전, 『열매는 봄날에』, p. 90.

심각했다고 한다.

97년도, 98년도 이때 제일 악화되었어요. 그전으로부터 제대로 안졌어요. 그전으로부터 한 5년 전으로부터도 진짜 제때 아주고, 그냥 말하면 또 굶기고, 한꺼번에 쌀이 들어오면, …그 배급 한 번 타 먹는 것이 새벽부터 나서서 줄을 서야 돼요. 그렇게 줄을 서다가도 만약 쌀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쌀을 못타고 도로 집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쌀을 타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사생결단하는 거예요. 그 줄을 섰는데 갈리는 사람… 그래요, 먹는 거 앞에서는… 배고프면 배고픔을 두고 그 앞에 양반 없어요.²³⁴

북한의 식량난이 극심하여 아사자 수가 가장 많았다고 하는 당시의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은 단편소설 『버드나무』이다. 화자(話者)인 새 세대 청년의 일기 형식으로 쓰인 이 소설은 당시의 식량사정과 주민생활의 어려움, 그리고 새 세대들의 사상적 이완 등을 미루어 짐작케 한다.

…얼마전부터 집집들에서 쌀 떨어 저 간다는 소리가 쉬쉬 나돌았다. 처음 사람들은 당황하고 놀라와 했지만 생활이 늘 이렇겠는가? 좀 참으면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좀처럼 궁한 티를 내지 않았다.(주체 85(1996)년 12월 X일)
…나는 버드나무밑으로 가서 벌렁 드러누웠다. 온몸이 나른해 지면서 금시 땅속으로 잦아 드는상싶다. 나는 오늘아침에도 풀죽으로 끼니를 예우고 나왔다. 차차 나아 지겠지 하고 생각했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만 간다. …그래도 한해전까지는 먹고 입고 쓰고 사는데서 불편은 했지만 참을수 있었고 저녁이면 음악공부도 할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사정이 다르다.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으로 기름 한방울, 비료 한줌 사들여 오기 힘들었고 이상기후현상까지 겹쳐 농사도

²³⁴ 서울대 통일연구소, 『새터민의 사회문화적응과 심리적 통합』, p. 81에서 재인용.

잘 안된다. 설사 곡괭이로 땅을 두치고 등어리로 가대기를 끄는 한이 있어도 제 손끝으로 낱알을 만들고 물고기를 길러야 했으며 등잔불밑에서 글을 읽고 신발을 기워 신어야 했다. 간고하고 험난해도 사람들은 묵묵히 시련을 헤쳐 나갔다.(주체 87(1998)년 4월 X일)

…저녁이라야 나박김치에 범벅뿐이어서 먹고 싶지 않아 나는 옷방으로 올라 가 누웠다. 여느때 같으면 록음기라고 틀어 놓고 노래라도 들으련만 그것도 싫다. 모든 의욕이 싹 사라지고 모든 것을 체념하고만 싶다. 이제 또 밤작업을 나가야 한다. …예로부터 배살이 피어야 낫살이 피인다고 하였는데 아무리 참는다고 한들 배 고픈것과 어떻게 타협한단 말인가? 나는 밤일을 나가기 싫어 이불을 뒤집어 썼다. 생활률조가 파괴되고 갈수록 일이 뻔뻔 꼬여만 나간다. 살아 가기도 힘든데 무슨 작곡이냐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다.(주체87(1998)년 7월 X일) 235

단편소설 『탄부의 보금자리』에서는 소량의 “통강냉이”를 “탄부”인 가장이 식구들과 나누어 끼니를 때우는 모습이 어둡게 그려져 있다.

오늘 아침 그는 일찍 막장에 나가려고 서둘렀다. 식량이 부족했다. 터밭의 강냉이도 여물지 않았으니 아침거리가 변변치 않다는것을 알았기에 식사할 생각도 안한것이다. 그가 옷을 입는데 안해가 무엇인가 담긴 비닐바가지를 들고 다가왔다. 통강냉이 담은것이였다. 말없이 받아 든 유봉은 안해와 두팔, 자기것으로 네뿔 갈라 한줌만 주머니에 넣고 쟁으로 나왔던 것이다. 236

한편 북한당국은 식량난 극복을 위해 ‘죽 먹기 운동’, ‘하루 두 끼 먹기 운동’, ‘허리띠 줄러매기 운동’ 등 각종 캠페인을 벌이는

²³⁵ 리영환, “버드나무,” pp. 39~41.

²³⁶ 김광남, “탄부의 보금자리,” 『조선문학』(2002.8), p. 38.

가 하면 ‘속도전 가루’, ‘남새밥’, ‘김치밥’, ‘산나물 죽’ 등의 대용식품을 개발하여 적극 권장하였으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풀뿌리, 버뿌리, 드릅나무, 뽕나무, 소나무껍질, 산나물, 들풀 등을 대체식품으로 하여 하루 한 끼 정도 연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실태는 소설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단편소설 『함께 가는 길』에는 “대용식량연구에 관한 긴급과제를 수행”하는 새 세대 여자 옥심이 등장한다.

《고난의 행군》의 어려운 나날에 주민식량공급이 최대로 팽팽해 졌을 때 옥심은 대용식량연구에 관한 긴급과제를 수행하였다. 그때 옥심은 쌀의 귀증함을 더없이 폐부로 절감했다. 쌀부족으로 솟아 오른 험난한 생활의 고개턱에서…²³⁷

중편소설 『열매는 봄날에』에서는 군당 선전선동부장 정순길이 풀죽을 먹는 사람들의 영양 상태를 걱정하며 안타까워한다.

정순길은 조반식사를 준비하는 집집의 부엌들을 찾아 가마뚜껑도 열어 보고 차리는 밥상도 눈여겨 보았다. …우리 집 형편을 봐도 요즘엔 강냉이밥이라도 떨구지 않으면 상당한것으로 보는데… 가슴 아픈것은 몇집에서 풀죽을 쑤는것이였다. …그 영양이 식구들의 얼굴에도 알렸다. 저녁엔 죽을 쑤는 집이 더 많을것이였다.²³⁸

북한소설들 가운데 주민들이 굶주림으로 인해 죽어가는 모습을 “세부적으로” 묘사한 작품은 매우 드물다. 그러나 다음의 소설 대목들에서는 주민들의 아사 상황을 엿볼 수 있다.

²³⁷ 공천영, “함께 가는 길,” 『조선문학』(2001.11), p. 25.

²³⁸ 박용진, 『열매는 봄날에』, pp. 79~80.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던 어느해 봄이었다. 허기진 배를 달래며 령길에 오른 성녀는 둘째 딸 춘실이 내외가 보이지 않는다는것을 알았다. …성녀는 령의 중턱에 들어 앉은 그의 집을 찾아갔다. 마당에 들어 서고 부엌에 들어서도 인적이 느껴지지 않았다. 부뚜막이 싸늘하여 가마뚜껑을 열어 보니 맹물만 한바가지 들어 있었다. (이 애들이 아침을 끓이지 못했구나…) 며칠전까지만 해도 칠파리를 캐여 가루범벅을 해먹는것을 보았는데 이젠 그것마저 동이 났단 말인가. 방문을 열고 들어 서니 아닐세라 썰렁한 방에 춘실이 내외가 누워 있었다. 처녀때처럼 늘 밧깃한 흥조가 나던 딸의 얼굴은 누렇게 떠서 부석부석 부어 있었고 사위의 검승한 얼굴은 두눈이 우명하게 꺼져 들어 가 있었다. 《일어들 나가라!》 성녀는 가슴아픔을 누르고 딸, 사위에게 소리쳤다. 이렇게 누워 있으면 애들이 영영 일어 나지를 못할것 같아 아픈 매를 내리지 않을수 없었다.²³⁹

바로 그러한 속에 조국앞에 엄혹한 시련의 시기가 닥쳐 왔다. 《고난의 행군》이라 부르는 시련의 나날이었다. 그 나날속에 조국앞에 성실하고 고지식한 사람들이 일터에서 기대앞에서 순직하기도 하였다.²⁴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자 우리 학급에도 결석하는 동무들이 나타났다. 학교에 안 오는 친한 동무들을 생각하면 공부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나는 수업이 끝나면 굶주려 일어 나지 못하는 아래마을 광윤이나 철삼이들을 찾아 가군 하였다.²⁴¹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 20명을 데려다가 돌보는 어머니를 위해 대학까지 그만 두고 어머니의 일을 돕는 한 세 세대 여자의 이야기를 다룬 단편소설 『어머니에 대하여 말하

²³⁹ 김명진, “고임돌,” 『조선문학』(2002.3), pp. 21~22.

²⁴⁰ 오광철, “어머니에 대하여 말하다,” 『조선문학』(2001.6), p. 73.

²⁴¹ 황청일, “천한산의 붉은 단풍,” 『조선문학』(2002.10), pp. 48~49.

다』에서는 부모를 잃은 13세 소녀가 어머니의 죽음 과정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 간 다음 자꾸 앓았어요. 그래두 계속 직장에 나갔어요. …며칠동안은 너무 아파서 직장두 못 나가구 죽두 못 먹었어요. …²⁴²

북한주민들에게 있어 식량난으로 인한 타격은 거주지역별, 직업별로 차이를 나타냈으며, 친족의 지원여부에 따라서도 정도를 달리하였다. 또한 북한의 기아는 농촌보다 텃밭이 없는 도시지역에서 더 심각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실태는 단편소설 『한가정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엿볼 수 있다.

굴착기 운전공들은 식량사정이 곤란했다. 주변농장들을 찾아 다니며 식량을 얻으러 나선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가까운 친척들의 도움을 받고자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었다.²⁴³

식량난은 북한 사회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궁극적으로는 새 세대를 비롯한 북한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야기하였다. 1990년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온 식량난은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국가와 사회, 집단과 인민보다는 개인과 가족 위주의 가치관, 정치·사상보다는 돈과 물질 위주의 가치관을 형성케 한 것이다. 이와 같은 가치관 변화에 있어 촉진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공식 배급체계의 붕괴와 이에 따른 장마당의 활성화와 식량구입을 위한 주민 이동량의 급증이다. 공식 배급체계가 붕괴

²⁴² 오광철, “어머니에 대하여 말하다,” p. 73.

²⁴³ 리희남, “한가정에 대한 이야기,” p. 30.

됨에 따라 가부장적 국가관에 바탕을 둔 통치이데올로기의 정당성 상실과 함께 사회통제가 느슨해졌으며, 장마당이 활성화되고 주민 이동량이 급증함에 따라 주민들간 상호 접촉 및 정보교환 증대라는 파급현상을 낳음으로써 북한 주민들 사이에 가치관의 변화가 확산, 심화되어 갔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주민들의 가치관 변화는 식량난이 심화됨에 따라 북한 전역으로 확산된 사회적 일탈 내지 비사회주의적 행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미 알려진 대로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이 심화됨에 따라 북한 주민들 사이에 사회적 일탈 내지 ‘비사회주의적’ 행위가 증가하였으며 경제에서의 비공식부문이 활성화됨에 따라 그 속도와 폭을 더해갔다. 국가생산·공급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종래 국가공급에 의존해 오던 일반주민들 사이에 소속 직장 및 단체의 학습, 생활총화 등에 불참하는 조직이탈, 노동자의 직장이탈과 무단결근, 당·정 간부 등을 대상으로 한 뇌물수수, 국가소유의 물자 유용 및 거래, 불법 의료행위, 암거래, 밀무역, 농민들의 식량 전용 및 사적거래 등이 성행하였으며, 텃밭, 부업밭, 폐기밭(소토지) 등의 사적경작과 개인부업·서비스업이 확대되었고, 절도와 소매치기 등의 현상이 날로 증가한 것이다.²⁴⁴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사회에서 이와 같은 추세는 기존 사회질서의 해체라는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게 되며 이에 대해 북한도 예외가 아니었는바, 북한당국은 사상교양을 비롯한 다양한 단속 및 감시체계를 통해 사회통제를 강화해 나갔다. 그러나 식량난이 심

²⁴⁴ 임순희,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서울: 통일연구원, 2004), pp. 27~34 참조.

화되어감에 따라 북한주민들 사이에는 오히려 이러한 행위들을 인정, 수용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었으며, 이러한 행위들은 식량을 비롯한 생활필수품의 절대적인 부족량을 채우고 생존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서 인식된 것이다. 또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여성들을 천시하는 것은 북한의 보수적인 사회통념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식량난 이후 출산 및 양육, 가족 부양 등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여성들이 독신을 선호하는 경향에 대해서도 이를 비난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수용하는 쪽으로 주민들의 의식이 달라져 가고 있다고 한다.

북한 소설에서는 주로 “비사회주의적 요소”, “비사회주의적 행위”, “자유주의”, “날라리 풍” 등의 묘사를 통해 식량난으로 인해 야기된 북한 주민의 가치관 변화를 시사하고 있다. 중편소설 『열매는 봄날에』에서도 식량난으로 인한 사회질서의 혼란과 주민들의 사상적 해이, 늘어나는 비사회주의적 행위 등으로 지적하고 있다.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자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농사를 잘 지어 식량문제를 풀어야 한다. 지금 식량문제로 하여 인민들이 고통을 겪는것은 말할것도 없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생활기풍과 질서가 문란해 지고 전에 없던 비사회주의요소가 자라나 우리 제도의 영상을 흐리게 하는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 지고 있다.²⁴⁵

앞에서 밝혔듯이 북한의 식량난이 초래한 사회적 파급현상들 가운데 하나는 주민 이동량의 급증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주

²⁴⁵ 박웅전, 『열매는 봄날에』, p. 5.

민들의 대부분은 생계유지를 위해 장마당 등지에서 장사를 하였으며 한동안 여러 지역을 떠돌며 장사를 다닌 주민들도 적지 않다. 그런가 하면 주민들의 일부는 가족부양을 위해 다른 지역에 사는 친척이나 친지들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청하거나 아예 국경을 넘어 중국을 넘나든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식량, 또는 생활비 조달을 위해 지역 이동을 한 주민들의 대열에서 새 세대들도 예외가 아니다. 식량난을 겪으며 많은 새 세대들이 학교 공부를 포기하고 식량을 구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거나 부모와 함께 장사를 하며 여러 지역을 떠돌아다녔다. 이와 같은 상황은 식량난이 심화됨에 따라 급격하게 줄어든 학교 출석률에서도 엿볼 수 있다. 한 예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평양의 학교들에서는 수업이 정상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2001년 5월 발간된 북한의 『교원신문』에서는 평양소재 중학교에서도 결석사태가 빚어졌음을 시사하고 있다.

몇해전 봄이었다. (평양 구서고등중학교) 일부 학급들에서 결석생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전에 없던 일이었다. 일군들은 교원들과 마주앉아 그 원인을 분석해 보았다. 식량사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석의 원인이었다.²⁴⁶

한편 이와 같이 새 세대를 비롯한 북한 주민들은 식량, 또는 생활비 조달을 위해 여러 지역을 떠돌아다니며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서로 간에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들을 인식하면서 의식 내지 가치관의 변화를 겪게 된다. 다음의 인용문은 1998년 탈북한 31세 새터민 남자의 구술내용이다. 그의 말에서는

²⁴⁶ 『교원신문』, 2005년 5월 3일.

장삿길에서 처음 들은 남한 방송이 그에게는 남한을 비롯한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시사한다.

그 집에 주파수 검사를 안 받았고 그랬는지, 막 외국방송 나오더라구요. 내가 막 장난질하다가 돌리는데 갑자기, 오후 4시경이었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남한 방송을 처음으로 딱 들었거든요. 그 때 96년도니까, …96년도에 친구들과하고 같이 장사다니다가 장삿길에 고모집에서 딱 남한방송을 들었는데, 오후 4시경에 KBS의 사회교육방송이었어요. …96년 97년 98년 그 삼년 동안 친구들과하고 북한 함흥에서만 만나서 자랐는데, 평양 신의주 해산, 청진 황해도 사리원 남쪽의 서해안 남포까지, 친구들과하고 같이 장삿길에 내가 안다녀 본 데가 없거든요. 함흥이 원래 공업도시니까 함흥의 공업품을 사가지고 농촌지역에 가가지고 팔기도 하고, 그곳의 물건 사가지고 또 여기 함흥에 와서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도, 제가 머리가 텃거든요. 그런 남한 방송도 듣고, 남한에서 대북선전 빼라도 보고 그러면서…. 그게 어쨌든 다 저기 가슴속에 축적되었던 것 같아요. …중국에, 제가 중국으로 탈출하자마자 중국에 연변 전 지역에 한국방송 그대로, 북한에서는 듣지 못하던 한국방송 제대로 들었거든요.²⁴⁷

북한의 새 세대들이 남한을 비롯한 외부세계와 외부 사조·문물에 대한 인식 및 이해를 새롭게 하는 계기는 특히 중국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다음의 인용문도 친척의 도움을 받기 위해 중국에 건너가 입소문을 통해 남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 새터민의 구술내용이다.

그래서 남동생이랑 어머니랑 이제 좀 북한은 생활이 어려우니까 친척의 도움을 받으려고 중국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엄마와 동생이) 말하기를 …남조선 그렇게 잘살고 북한사람

²⁴⁷ 한00(31세 남성, 1998년 탈북), 2006년 5월 20일 면접.

다 그리로 가고 그런 말 막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우물 안 개구리잖아요. 하나도 모르는데 그런 걸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²⁴⁸

1997년 탈북한 30세의 새터민 남자는 중국 연변에서 남한 텔레비전 방송과 잡지, 그리고 남한에서 일하고 돌아온 조선족들을 통해 남한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고 말한다.

남한에 대한 인식을 가진 거요? 연변에 가면 남한 TV를 볼 수 있어요. 세 개 채널인가, KBS, SBS인가 중요한 채널은 볼 수 있고, 남한 잡지들이 많이 나와 있고, 중국 조선족들이 남한에서 일하다가 돌아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말해주는 남한, 그러니까 TV에서도 물론 많이 봤지만, 저건 선전일 뿐이야, 이렇게 많이 생각했죠. 과연 저럴까? 그런데 직접 거기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잘 살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남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알게 되고 생각이 바뀌게 되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됐죠.²⁴⁹

또한 이 새터민 남자는 중국 가정에서의 부부관계를 보면서 종래 자신이 지니고 있던 여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새롭게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북한에서의 남존여비사상이) 중국에서, 1차적으로는 중국에서 허물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여자들의 권위는 남한여자 못지않거든요? 여자들이 남편 쫓아내잖아요. 남편 패는 건 일도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충격 받았어요. 내가 일을 하고 있는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 말은 말이 아닌 거예요. 경제권

²⁴⁸ 서울대 통일연구소, 『새터민의 사회문화적응과 심리적 통합』, p. 88에서 재인용.

²⁴⁹ 김O(30세 남성, 1997년 탈북), 2006년 5월 27일 면접.

을 여자가 쥐고 있으니까. 막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자가 어찌면, 남잔데…. 굉장히 쇼크로 다가왔다가 이 집 가도 그렇고, 저 집 가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자가 그런 세상이구나. 조금씩 그렇게 사회를 알아가니까, 남자가 가까스로 결혼을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하면서 무지몽매했던 껍질을 벗으면서 완전히 바뀌어요. 굉장히 제가 의지적으로 바뀌어요.²⁵⁰

2. 부분적 체제개방으로 인한 외부사조·문물의 침투

선행연구에서 밝혔듯이 1980년대 말 이래 북한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외교적 고립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대서구관계 개선 및 부분적인 체제개방을 모색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1989년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평양축전)과 1995년 ‘평화를 위한 국제 체육 및 문화축전’ 등의 행사 유치를 통해 대외이미지 개선과 체제개방 의지 부각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서구 관계개선 및 체제개방의 과정에서 서구적인 사조와 문물이 북한에 침투 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성장 시기적으로 외부의 자극에 민감한 새 세대들의 의식 내지 가치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새 세대들의 사상적 해이와 무사안일풍조, 개인주의적 생활태도에 대한 북한당국의 잦은 비판과 경고는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1995년 이후에도 북한은 대서구관계 개선을 적극 모색하였으며 부분적, 제한적이거나 체제개방을 보다 더 확대해 나갔다. 이는 1990년대 들어 극심하게 악화되어 가는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

²⁵⁰ 김(30세 남성, 1997년 탈북), 2006년 5월 27일 면접.

해 북한이 서구의 자본과 기술 도입을 더욱 필요로 하게 되었고, 특히 1995년 북한이 국제사회에 대해 식량지원을 요청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이기도 하였다. 1995년 이래 대북식량지원과 관련한 남한 및 국제기구 관계자들의 방북이 잦아졌으며 2000년대 들어 유럽연합 국가들과의 연이은 수교로 유럽인들의 왕래도 비교적 잦아졌다. 또한 2002년과 2004년 평양에서 개최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아리랑’을 관람하기 위해 남한 사람들을 비롯한 많은 외국인들이 북한을 방문하였으며, 이 외에도 북한은 국제회의 및 국제영화제 등을 평양에 유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새 세대를 비롯한 북한주민들에게 외부 사조·문물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북한주민들이 남한을 비롯한 외부세계에 대한 인식을 보다 더 새롭게 하고 외부 사조·문물의 유입을 가속화한 계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2000년 6월 개최된 남북정상 회담과 그 결실인 ‘6·15남북공동선언’(공동선언)이다. 공동선언 이래 남북한간 인적교류의 규모가 확대되고 빈도가 높아감에 따라 남북한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더해 가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인적교류의 과정에서 새 세대를 비롯한 북한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인식과 외부 사조·문물에 대한 인식도 크게 달라져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와 같이 1995년 이후 부분적 체제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북한 당국은 개방 확대에 따른 외부 사조·문물의 침투가 보다 더 거세 질 것을 크게 우려하여 주민들에 대한 사상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새 세대들에 대해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에 맞서 사상투쟁을 강화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지난날 이전 소련과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이 붕괴된것은 결코 군사력과 경제력이 약하거나 문화발전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에 길을 열어준데 있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나라들에 있어서 원자탄보다 더 위험한것이 제국주의자들이 퍼뜨리는 황색바람이다. …총칼앞에서는 드팀없던 신념도 제국주의사상문화를 받아들이면 물먹은 담벽처럼 무너지기마련이다. 변질이 다른것이 아니다. 머리에 자본주의의 쉬가 쓸면 신념을 버리게 되고 사상적으로 무장해제당하게 된다.²⁵¹

청소년들속에 밖으로부터 반동적이고 퇴폐적인 부르주아 도덕과 생활풍조가 침습하지 못하도록 모기장을 든든히 치는 동시에 그것이 발을 붙일수있는 온상인 낡은 도덕과 생활양식을 뿌리 뽑기 위한 조직적인 통제와 사상투쟁을 끊임없이 강하게 벌여나가야 한다.²⁵²

소설들에서도 체제개방 확대에 따른 외부 사조·문물의 침투를 경계하고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작품이 적지 않다. 한 예로 중편 소설 『열매는 봄날에』에서는 ‘자유아시아방송’을 운운하며 “미국식 《가치관》”과 “양키문화” 침투를 경계하는 한편, 일에 태만하고 사상적으로 해이해진 “반장”을 외부 사조·문물에 젖은 사람이라고 비판한다.

미제는 아시아나라들의 거둬되는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자유아시아방송》을 개시했고 최근에는 우리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조선말방송을 시작했다고 했다. 그 무슨 미국식 《가치관》과 썩어빠진 양키문화로 우리를 어찌 보자고 수작질할것이였다. 우리의 모기장은 빈틈이 없고 그 개나발을 들을 사람도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 인민을 사상적으로 와해시

²⁵¹ “《로동신문》, 《근로자》 공동론설: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를 배격하자,” 『로동신문』, 1999년 6월 1일.

²⁵² 『청년전위』, 2001년 5월 25일.

키려는 적들의 발악은 극도에 이른 것이었다.²⁵³

사실 지금 송자동사 사람들은 자기 반장에게서 사상적으로 변질이 올수있는 시초의 징후들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던 말입니다. 우선 위협한게 뭐가. 정치적무관심성이요. 신문을 보지 않고 정세를 알고 싶지 않는단 말입니다. 신문이 매일 와두 때문에 그냥 꽂혀 있는 날이 많다고. 그다음 풀짐, 거름짐을 지기 싫어 하구 …그리구 소왕처럼 행세하면서 사람들을 깔보구 외국상품에도 맛을 들이기 시작했던 말이요.²⁵⁴

한편 관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답한 새터민 응답자들의 절반 이상이 북한 거주 당시 남한을 비롯한 외부 소식 및 정보를 접했으며, 그 경로는 라디오 방송 청취, 중국 친척을 통해서, 그리고 텔레비전 시청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²⁵⁵

중국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 있었어요. (남한노래는) 라디오를 통해서 그냥 방송, (방송을 들을 수가 있는가) 당연히 없죠. (어떻게 들었는가) 제 동생이요 기술자거든요. 그래서 주파수를 딱 맞춰서 밤이면 열시 지나서 이불 속에서 가만히… …뉴스 같은 것도 많이 들었어요.²⁵⁶

저는 삼촌이 세 번 방문하셨으니까,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분이니까, 또한 제가 대학교원이니까 두 번째 방문하셨을 때 소니라디오를 주셨고요. 조국 방문하는 사람들은 짐을 수색하는 것은 없거든요. 휴대용 라디오를 통해서 KBS 주로 들었어요. …그 시간 기다리고 그랬는데, 12시쯤 해서 자지도 않고 듣고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미국의 소리 방송 많이 들었습니다.²⁵⁷

²⁵³ 박웅전, 『열매는 봄날에』, pp. 76~77.

²⁵⁴ 위의 책, p. 102.

²⁵⁵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탈북자 증언을 통해서 본 북한인권 실태조사』, pp. 140~145 참조.

²⁵⁶ 위의 책, p. 143에서 재인용.

저희 집(함북 회령시)은요 중국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TV 채널 돌리면 연변 채널이 나오는데 거기서 한국 드라마가 나오요. 그래서 밤에 11시 되면 그걸 봤거든요. 걸려도 사람들 꽤 많이 보고 있어요. 그 때 내가 보면서, 왜 많이 그런 교육받았잖아요. 진짜 나쁜 교육 받았는데, 그걸 보니까 너무 예절 바르고 말씨랑 보면 내가 배웠던 거랑 틀리잖아요. 거기서 보고 내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²⁵⁸

평양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19세의 새터민 남자는 남한의 드라마를 녹화한 비디오테이프를 어렵지 않게 구해 볼 수 있었으며 친구들과 돌려보기도 했다고 한다.²⁵⁹ 관련 구술자료들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구술이 드물지 않다.

마음을 여는 친구들과하고는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정세라던가 그런 얘길 하죠. 그러나 보통 친한 사람하고는 주로 남쪽 얘기를 많이 하고 남쪽 테이프도 같이 보고 했죠. 남쪽 테이프 내용을 보고 남쪽 생활을 보고 하죠. 이렇게 같이 본 사람들 끼리는 의사소통이 통하니까 말하죠. …그런 걸 보면 거리면 거리, 아파트면 아파트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현실이니까. 그런 걸 보면서 많이 느끼죠.²⁶⁰

네. 남한노래도 듣고, 지금 OCN에서 나오는 영화들 있잖아요. 북한에서 다 봐요. 비디오테이프, 지금 우리 다 본 영화들 하더라도요.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북한에서 다 본 영화들 하네? …비디오 테이프가 친구들과하고 돌아가고, 비디오 테이프가 많이 돌아다니고 그래요. 그거 잘못하다가 잘못되면 감옥가요. 비디오 테이프 드라마나 거기서 많이 봐요.²⁶¹

²⁵⁷ 위의 책, p. 144에서 재인용.

²⁵⁸ 새터민 최00(30세 여성, 2002년 탈북), 2006년 5월 30일 면접.

²⁵⁹ 새터민 최00, 2005년 8월 12일 면접.

²⁶⁰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탈북자 증언을 통해서 본 북한인권 실태조사』, p. 148에서 재인용.

다음의 구술 내용은 러시아 별목공 생활중에 남한 방송을 청취한 북한 주민이 북한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남한 방송을 들으며 남한을 비롯한 외부세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 사례이다.

우리 애 아빠가 소련 갔다 왔어요. 러시아 별목하러 갔다가 왔는데, 와 보니까 사회가 엉망인 거예요. 배급도 안주고 ... 우리 애 아빠가 소련(러시아)에서 여기 남한 방송 많이 들은 거예요. ... (북한에서 주파수 고정 안 시킨 비싼 녹음기를 사 북한방송만 나오도록 조작한 후 안전부 감찰과에 등록하고 주파수 고정 여부 확인) 아빠가 가끔 밤이면, 낮이면 안틀고, 밤에 12시 거의 될 때면 돌리면 여기 한국방송 KBS 들리더라구요. 가끔씩 좀 듣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아빠가 여기에 대한 거 알고서는 중국가자니까...²⁶²

한편 최근에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새터민과 북한 가족과의 직접 통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남한 및 외부 소식·정보가 주민들의 입 소문으로 빠르게 전달, 확산된다고도 한다.

지금 한 근 만 명 밑에 이탈주민들이 와 있는데, 북한하고 다 통화를 합니다. 아시겠지만 중국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도 직접 통화를 다 해요. 북한하고 직접 통화를 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여기 온 사람이 북한에, 북한에 입소문이 굉장히 빨라요. 여긴 인터넷이 떠가지고 빠르지만 그 쪽에서는 또 입소문이 그렇게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도 남쪽의 비밀이 없다시피 다 되어 있었는데, 지금도 더 활성화되고 이리니까 이쪽의 상황이 북한에 다 전달이 돼요.²⁶³

²⁶¹ 새터민 최00(41세 남성, 2004년 탈북), 2006년 5월 21일 면접.

²⁶² 새터민 이00(47세 여성, 1999년 탈북), 2006년 5월 20일 면접.

²⁶³ 새터민 박00(40세 남성, 2003년 탈북), 2006년 5월 20일 면접.

그런가 하면 특히 대학생들은 도서관 “인민대학습당”에서 관련 문헌을 통해 남한 및 서구사회에 대한 자료·정보를 접하며, 이로써 외부세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한편 북한의 어려운 실정을 파악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학을 다닐 때도 김일성광장에 있는 인민도서관, 우린 이게 있거든요? 그 때 오고가며 주말에 가서 책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걸 도서관에, 인민도서관에 책이, 조총련계에서 보는 일본 서적들이 많거든요. 일본 서적들 보게 되면 남한 자료들은 다 오려서 삭제를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러시아 자료 책들, 영문 서적들 보게 되면 남한자료도 나오고 또 일본 과학 기술 잡지를 보게 되면, 참 그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우리보다 많이 월등하다, 이런 걸 많이 직·간접적으로 많이 느꼈거든요. 평양에는 대학졸업생들치고 한 99% 이상, 100%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남한실정이라든가, 서방사회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고, 북한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고…²⁶⁴

²⁶⁴ 서울대 통일연구소, 『새터민의 사회문화적응과 심리적 통합』, p. 89에서 재인용.

VII

결론: 전망

2000년대 들어 북한은 김일성 사후 수년간 지속된 ‘고난의 행군’²⁶⁵이 끝났음을 밝히고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2002년 ‘7·1경제관리 개선조치’를 비롯한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또한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에 힘입어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식량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대량 아사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7·1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 일반 주민 대부분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심화되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신흥부유층이 탄생하는 등 주민들 사이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났다. 일반주민들의 어려운 경제실상은 학생들의 출석 상황에서도 엿볼 수 있다. 경제난 이전에는 좀처럼 허용되지 않던 학생들의 결석이 경제난 이후 허용 내지는 묵인됨에 따라 1990년대 이래 결석률이 급증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평양을 비롯한 주요 도시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지역에서 최근까지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 관련 보고서²⁶⁶에 따르면 2005년 6월 현재 함경북도 온성군 주원 노동자구에 위치한 주원 중학교에서는 30명 학급에서 출석자가 7~8명에 불과하고 27명 학급에서는 1~2명만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중학교 1학년들은 출석을 잘 하는 편이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결석자가 늘어나며, 이는 가난한 집에서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집안의 노동력이 될 수 있어서 학교에 보내는 대신 소토지 농작물을 가꾼다든지 샅별이를 보내든지 집을 지키든지 하는 식으로 가정생계와 관련된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²⁶⁵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20세기 마지막 연대의 6년”이라고 한다. 최길상, “새 세기와 선군혁명문학,” 『조선문학』(2001.1), pp. 5~6 참조.

²⁶⁶ (사)좋은벗들 엮음, 『오늘의 북한, 북한의 내일』 pp. 120~121 참조.

또한 ‘고난의 행군’ 시기에 매년 2백 만 톤가량씩 부족했던 식량사정은 2000년대 들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식량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은 매년 650만 톤의 식량이 필요하지만 자체 생산량은 450만 톤에 불과하여 약 2백만 톤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한다.²⁶⁷ 특히 올해 들어 미사일 발사에 이은 핵실험으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식량지원 규모가 급격히 줄어 북한의 식량사정은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2000년대 들어 북한은 대서구관계 개선을 적극화하는 한편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과 2001년 초 “문제를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높이에서 보고 풀어 나가야 한다”는 김정일의 신사고 발언 이후 부분적·제한적이거나 체제개방을 보다 더 확대해 나가는 추세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와 같은 개방추세가 지속될 것 인지는 일차적으로 북한당국의 의지에 달려 있으며 당면한 국제적 사안으로 북한 핵 문제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은 지난 7월의 미사일 발사와 연이은 핵실험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규탄과 함께 경제적 제제를 당하는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는 곧 외교적 고립을 뜻한다. 그러나 여전히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체제존립을 위한 체제개방이라는 현실적 대안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며, 이미 시작된 개방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데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미사일발사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사업이 계속되고 있음은 단적으로 이를 말해 주고 있다.

한편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과 부분적 체제개방으로 인한 외

²⁶⁷ 『CBS 노컷뉴스』, 2006년 11월 2일.

부 사조·문물의 침투가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에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작용한 상호연관성 있는 요인들이라면 학교 교육은 새 세대의 가치관 형성에 있어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기제이다. 북한은 일정 기간 제도화된 학교 교육을 통해 새 세대들로 하여금 당의 공식 가치지향을 내면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새 세대들은 소년단과 청년동맹의 조직생활을 통해서도 당의 공식 가치지향을 내면화한다. 특히 조직생활에서 주기적으로 행하는 ‘생활총화’는 새 세대들이 공식 가치지향을 어느 정도 내면화 하였는가를 확인, 검열하는 사상적 기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래 경제난이 심화됨에 따라 학교 교육 및 조직생활이 새 세대들로 하여금 공식 가치지향을 내면화하도록 하는 제도적·사상적 기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11년제 무상의무 교육은 제도만 남아있을 뿐 그 의의 및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난 이후 학교 교육시설과 교육기자재 형편이 매우 열악하여 학생들의 활용 가능성이 낮으며 교육기자재 구입 및 보수에 있어서도 학생들이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이 심화됨에 따라 새 세대의 의무적 조직생활도 해이해진 편이라고 한다. 생활총화가 이전보다 더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때로는 생활총화를 거르기도 하는 등 생활총화가 새 세대들 사이에서 점차 그 의의 및 중요성을 덜해가고 있다는 것이다.²⁶⁸

요약하건대 위와 같이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이 지속되고 북한당국이 경제난 해소와 외교적 고립 타개를 통한 체제존립을 모

²⁶⁸ 임순희, 『경제난 이후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p. 91 참조.

색하기 위해 제한적·부분적 체제개방을 계속 확대해 나간다면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는 종래와 같은 양상 및 추세로 보다 더 확산, 심화되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새 세대들은 종래와 같이 정치·사상보다는 물질적인 이익과 부의 축적에 비중을 두며 당과 수령의 뜻 관철, 국가와 사회, 집단과 인민에 대한 헌신 등 집단중심의 사회지향적 가치관에서 자아중심의 개인지향적인 가치관으로의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변화는 새 세대들에 대해 공식 가치지향을 내면화시키는 주요 기제로서의 학교교육 및 조직생활의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보다 더 촉진될 것이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북한사회의 핵심 구성요소인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는 북한 사회의 변화 동인으로 작용하여 궁극적으로는 주체사상의 무력화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말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
- 권혁. 『고난의 강행군』. 서울: 정토출판, 1999.
- 김문창. 『열망』.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9.
- 김재용.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4.
- 김정일. 『주체문학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김태길. 『소설문학에 나타난 한국인의 가치관』. 서울: 일지사, 1977.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탈북자 증언을 통해서 본 북한인권 실태조사』.
서울: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05.
- 민경숙. 『자라는 부대』. 평양: 금성출판사, 2005.
- 민중서림 편집국 편. 『옛센스 국어사전』. 서울: 민중서림, 1988.
- 박웅전. 『열매는 봄날에』.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3.
-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0.
- 변제전. 『7분단』.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2004.
- (사)좋은벗들 엮음. 『오늘의 북한, 북한의 내일』. 서울: 정토출판, 2006.
-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편.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사회과학출판사 편. 『조선말 대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 엄성영. 『푸른과원』.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01.
- 에드워드 스튜어트 저/ 김성경 역. 『문화차이와 인간관계』. 서울: 보성사, 1991.
- 오현제. 『우리 도시』.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4.
- 이주철. 『김정일의 생각읽기』. 서울: 지식공작소, 2000.
- 임순희.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_____.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5.
- 정태운. 『인간과 직업윤리』. 서울: 문경출판사, 1990.
-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대한 수령의 품 속에서(4)』.

동경: 조선청년사, 1972.
 최영학. 『우리의 집』.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5.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06』. 서울: 통일연구원, 2006.
 한윤. 『씨앗』. 평양: 문예출판사, 1992.

2. 논문

- 공승길. “방과제.” 『조선문학』 9호, 2002.
 공천영. “함께 가는 길.” 『조선문학』 11호, 2001.
 김광남. “탄부의 보금자리.” 『조선문학』 8호, 2002.
 김교섭. “보통사람들의 이야기.” 『조선문학』 4호, 2005.
 김길손. “숨결을 안고온 처녀.” 『청년문학』 8호, 2004.
 김명익. “백로페 날아든다.” 『조선문학』 6호, 2005.
 김명진. “고임돌.” 『조선문학』 3호, 2002.
 김명화. “녀대원들과의 담화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편.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7.
 김영선. “녘.” 『조선문학』 11호, 1996.
 김영숙. “선군의 꽃.” 『청년문학』 10호, 2003.
 김일성. “현실을 반영한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하자.” 『김일성저작집 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_____.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낡은 사상잔재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_____. “조선2.8예술영화촬영소의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2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_____. “학교교육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2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_____.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함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3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 작집 3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 _____. “청년들은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혁명 위업을 빛나게 완성하자.” 『청년문학』 4호, 1993.
- 김정웅. “90년대 인간전형을 훌륭히 창조하기 위하여.” 『조선문학』 3호, 1991.
- 김정일. “사회주의현실을 반영한 혁명적 영화를 더 많이 창작하자.”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자료집 김정일저작선』. 서울: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1.
- _____. “청년들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청년전위가 되자.” 『천리마』 1호, 1991.
- _____.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자.” 『김정일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 _____.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전국교육일군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김정일선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 _____. “청년동맹초급조직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 『김정일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 김정희. “짧어지는 교단.” 『조선문학』 6호, 2005.
- 김준하. “매혹.” 『조선문학』 9호, 1998.
- 김창수. “차번호 <만-하나>.” 『조선문학』 10호, 2000.
- 김청수. “금강내기 바람.” 『조선문학』 8호, 2002.
- 김해월. “우리시대 녀성들의 사랑의 세계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 『조선문학』 7호, 1991.
- _____. “수령형상창조와 감정조직문제.” 『조선문학』 2호, 1999.
- 김현일. “선군시대의 새 세대.” 『청년문학』 2호, 2004.
- 김형길. “단막희곡: 삶의 노래.” 『조선문학』 9호, 2001.
- 김형지. “명의.” 『조선문학』 9호, 1996.
- 김혜성. “열쇠.” 『조선문학』 4호, 2004.
- 김혜영. “다시 본 모습.” 『조선문학』 1호, 1999.
- 김호석. “푸른들.” 『조선문학』 2호, 1995.
- 김흥익. “숲에 들렀다 가시라.” 『조선문학』 4호, 1999.

- 로정범. “시대의 발걸음.” 『조선문학』 7호, 2001.
- 로철수. “매혹.” 『조선문학』 1호, 1998.
- 류만. “90년대 인간성격창조문제에 대한 소감.” 『조선문학』 1호, 1991.
- 류정옥. “당부.” 『조선문학』 11호, 1995.
- _____. “금대봉마루.” 『조선문학』 4호, 2005.
- 리라순. “행복의 무게.” 『조선문학』 3호, 2001.
- 리송희. “청춘이 설 자리.” 『청년문학』 6호, 2004.
- 리명순. “함께 가는 사람들.” 『조선문학』 1호, 1999.
- 리성식. “기러기떼 날은다.” 『조선문학』 8호, 2003.
- 리영환. “버드나무.” 『조선문학』 2호, 2001.
- 리정수. “별.” 『조선문학』 9호, 1996.
- 리춘복. “산딸기.” 『행복동이들』. 평양: 금성청년종합출판사, 2001.
- 리현순. “문학예술에서의 선군혁명로선의 구현.” 『조선예술』 4호, 2001.
- 리태윤. “벼이삭.” 『조선문학』 11호, 1995.
- 리희남. “한가정에 대한 이야기.” 『조선문학』 5호, 2004.
- 림원춘. “눈물젖은 숲.” 『조선문학』 11호, 1996.
- 림화원. “오후5시.” 『조선문학』 1호, 2000.1
- 박영숙. “가정혁명화와 여성들의 책임.” 『조선여성』 3호, 1999.
- 박일명. “눈보라는 후덥다.” 『조선문학』 5호, 2003.
- 박찬은. “복주머니.” 『조선문학』 10호, 2001.
- 박현선. “현대 북한의 가족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9.
- 방정강. “겨울밤의 은하수.” 『조선문학』 3호, 1997.
- 변월녀. “푸르른 대지.” 『조선문학』 9호, 2001.
- (사)좋은벗들 북한연구소. 『뉴스레터: 오늘의 북한소식』 23호, 2006. 6. 1.
- _____. 『뉴스레터: 오늘의 북한소식』 24호, 2006. 6. 7.
- 서울대 통일연구소. 『새터민 사회문화적응과 심리적 통합』. 서울대 통일연구소, 2004.
- 석남진. “한 너교원의 사랑.” 『조선문학』 9호, 1996.
- 송영금. “사랑은 연분이 아니다.” 『청년문학』 9호, 1999.
- 송출연. “나의 모습.” 『조선문학』 3호, 2004.
- _____. “뜨거운 눈.” 『조선문학』 10호, 2004.

- 안연진.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가족문화 특성에 관한 질적 연구.” 카톨릭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안흥윤. “회초리.” 『조선문학』 8호, 2001.
- 오광철. “어머니에 대하여 말하다.” 『조선문학』 6호, 2001.
- 오승련.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문학론>에서 밝히신 주체의 문학형태 리론에 대하여.” 『조선문학』 9호, 1993.
- 윤경찬. “넓어지는 땅.” 『조선문학』 10호, 2001.
- _____. “푸른 꿈.” 『조선문학』 2호, 2003.
- 임순희.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상)』.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 장기성. “나의 시어머니.” 『조선문학』 10호, 2003.
- 장미현. “흰 들국화.” 『조선문학』 4호, 1997.
- 장선홍. “강반의 달밤.” 『조선문학』 10호, 2003.
- 장유선. “사랑과 결혼에 대하여 하고싶은 말.” 『조선영화』 9호, 1993.
- 전송희. “질어가는 단풍.” 『조선문학』 6호, 1998.
- 정현철. “삶의 향기.” 『조선문학』 11호, 1991.
- 정형주. “점중화.” 『조선문학』 2호, 1995.
- 정해경. “녀성은 다 어머니로 되는가.” 『조선문학』 5호, 2001.
- 조근. “녀전사의 길.” 『조선문학』 3호, 1996.
- 조상호. “공장총각.” 『조선문학』 7호, 1995.
- 조인영. “군복입은 사람들.” 『조선문학』 3호, 2002.
- 지경일. “백년을 부를 노래.” 『조선문학』 12호, 1999.
- 최길상. “당중앙위원회 구호는 우리 문학의 시대정신.” 『조선문학』 7호, 1998.
- _____. “새 세기와 선군혁명문학.” 『조선문학』 1호, 2001.
- 최련. “따뜻한 꿈.” 『조선문학』 1호, 2002.
- 최양수. “별들이 웃는다.” 『조선문학』 3호, 1998.
- 최재석. “한국가족의 전통적 가치의식.” 『아세아문제연구』 제7권 제2-4호. 서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4.
- 한웅빈. “스물한발의 <포성>.” 『조선문학』 5호, 2001.
- 한원희. “갈매기.” 『조선문학』 12호, 2000.
- 한정아. “여섯번째 버드나무.” 『조선문학』 9호, 2001.

- 한형수. “생활의 시작점에서.” 『조선문학』 8호, 1996.
 _____. “낮은 미래에 산다.” 『조선문학』 2호, 2005.
 황청일. “천한산의 붉은 단풍.” 『조선문학』 10호, 2002.
 0 0 0. “령도자와 작가: 하나의 생활세부도.” 『조선문학』 10호, 2005.
 0 0 0. “머리글: 혁명의 1세대, 2세대들처럼 살며 투쟁하는 새세대의 형상을 훌륭히 창조하는것은 작가들의 영예로운 임무.” 『조선문학』 7호, 1993.7.

3. 기타자료

『교원신문』

『로동신문』

『청년전위』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공저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2004-07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2004-08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험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윤	저	7,500원
2004-09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정영태	저	5,000원
2004-10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김수암	저	6,000원
2004-1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4-12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박영호	저	5,500원
2004-13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공저	6,000원
2004-14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저	7,500원
2004-15	CSCE/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손기웅	저	5,000원
2004-16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조한범	저	4,500원
2004-17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여인곤 외	공저	9,000원
2004-18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이금순	저	5,000원
2004-19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수영	저	4,000원
2004-20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이 석	저	9,000원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윤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웅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 민	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 석	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핵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핵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2006-01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전성훈	저	10,000원
2006-02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	임강택	저	7,000원
2006-03	7·1조치 이후 북한의 농업개혁과 과제	최수영	저	5,000원
2006-04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과 한국경제의 영향력	이 석	저	8,000원
2006-05	동북아 경제·안보 협력의 연계: 4대 분야 협력체 형성 중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6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6-07	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 -개혁의 부작용을 통해 본 북한 체제전환의 성공과제-	김영운	저	10,000원
2006-08	남북한 공유하천 교류협력 방안	손기웅	저	6,000원
2006-09	북한의 당·군·민 관계와 체제 안정성 평가	정영태	저	7,500원
2006-10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 연구	황병덕	저	8,500원
2006-11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서재진	저	10,000원
2006-12	평화통일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조 민	저	6,500원
2006-13	중국의 대북한 정책: 지속과 변화	최춘흠	저	5,000원
2006-14	한·미 안보관계의 변화와 북·미관계의 전망	박영호	저	7,000원
2006-15	동북아지역의 갈등·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6-16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임순희	저	8,000원
2006-17	개혁·개방과정에서 인권의제: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10,000원
2006-18	경제난 이후 북한 문헌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	조정아	저	6,000원
2006-19	남남갈등해소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학술회의총서

2004-01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 · 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2004-07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10,000원
2004-08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과 한 · 중 협력			9,000원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 · 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 · 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2006-0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10,000원
2006-02	한반도 평화포럼: 구상과 이행			9,500원
2006-03	동북아구상과 남북관계 발전전략			10,000원
2006-04	Political Econom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ism : Linkages between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9,500원

협동연구총서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2	정보화시대 통일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여인곤 외	공저	7,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4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정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2004-08	종합결과보고서: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	김영춘 외	공저	5,500원
2004-09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10,000원
2004-1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오명석 외	공저	5,500원
2004-11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김명섭 외	공저	5,000원
2004-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 · 중국 · 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연구	양영균 외	공저	10,000원
2004-13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관리	박경하 외	공저	10,000원

2004-14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동남아 문화 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서중석 외	공저	10,000원
2004-15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조한범 외	공저	9,500원
2004-16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최진욱 외	공저	6,500원
2004-17	동북아공동체의 행정조직 구축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 조직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윤종설 외	공저	5,000원
2004-1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동향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4-1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방안	전재경 외	공저	8,000원
2004-2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이진국 외	공저	6,000원
2004-2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협력방안	김이선 외	공저	8,500원
2004-2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	윤철경 외	공저	10,000원
2004-23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 · 협력의 실태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4-24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I) : 잠재력과 장애요인	박기홍 외	공저	6,000원
2004-25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I)	김광역 외	공저	4,000원
2004-26	종합결과보고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김광역	저	4,500원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중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II)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오해섭 외	공저	9,000원
2005-01-13	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9,000원
2005-08-01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2005-09-02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 외	공저	10,000원
2006-11-01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2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10,000원
2006-11-03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상)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4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중)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5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1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총괄편)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2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2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1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2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1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2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1 (2006)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6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6</i>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독일통일백서

독일통일백서 2005 8,500원

연례 정세보고서

200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4~2005 6,000원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6,000원

◆ 비매품 ◆

통일 정세 분석

2004-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2004-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실
2004-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조한범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박형중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전성훈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여인곤
2004-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이 석, 최진욱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최의철, 임순희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이교덕, 신상진
2004-11	2차 북·일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영춘
2004-1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CU)프로그램 추진 실태	전성훈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김영춘
2004-15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윤, 박정란
2004-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이금순
2004-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Ⅰ) :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김국신
2004-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Ⅱ) : 부시 공화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김국신, 박영호
2004-19	중국공산당 16기4중대회 결과분석	전병곤
2004-20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4-21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	전병곤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윤,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운,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양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삼,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2005-12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망: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웅
2005-16	일본 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운,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2005-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2005-19	주변4국과의 연쇄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2006-01	2006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허문영, 서재진, 임강택, 전현준, 정영태, 최진욱
2006-02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결산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전현준, 김영운
2006-03	2005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삼
2006-04	북·중관계 강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	박종철, 김국신, 최수영, 허문영, 전병곤
2006-05	중·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6-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4차 회의 결과분석	서재진, 김영운
2006-07	주일미군 재편의 의미와 시사점	김국신, 배정호
2006-08	북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 평가와 전망	김영운
2006-09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0	아베 정권의 출범과 대한민국도 정책 전망	배정호
2006-11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김국신, 박영호, 배정호, 여인곤, 최춘흠
2006-12	미국 중간선거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3	APEC 정상회의의 결과분석	김규륜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곽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렬
2005-06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종철

2006-01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김영윤
2006-02	2006년 QDR의 특징 분석과 한반도안보에 주는 시사점	박영호
2006-03	북한 개발협력력을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임을출
2006-04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추세와 한국의 정책방향	김규륜
2006-05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정책방향	전현준
2006-06	국내외 북한인권 동향 평가와 인권개선 로드맵	서보혁
2006-07	북한군 최고사령관 위상 연구	고재홍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1호(2006)

Studies Series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2006-01	The North Korean Penal Code, Criminal Procedures, and their Actual Applications	Kim Soo-Am
2006-02	North Korea's Negotiation Behavior toward South Korea :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st Inter-Korean Summit Era	Huh, Moon-Young
2006-03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utlook for Unification	Cho, Min
2006-04	A Study on the structure of industry in North Korea	Choi, soo-young
2006-05	The Border-crossing North Koreans: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Keumsoon Lee
2006-06	North Kore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Cho, Jeong-Ah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